

ETHER LIBRARY

0016

세상을 보는 지혜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

발타사르 그라시안

Baltasar Gracián · 1647

철학 · 종교

세상을 보는 지혜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

발타사르 그라시안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 (손에 들고 보는 신탁, 그리고 분별의 기술)

지은이 발타사르 그라시안(Baltasar Gracián, 1601~1658, 스페인 아라곤의 예수회 사제·작가)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647년, 아라곤의 우에스카(Huesca). 그라시안은 이 책을 제 이름이 아니라 동생 「로렌소 그라시안」의 이름으로 펴냈다. 우에스카의 후원자 빈센시오 후안 데 라스타노사가 그라시안의 글에서 잠언 300개를 가려 엮은 형식을 취했고, 서문 「독자에게」도 라스타노사가 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스페인의 예수회 사제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1647년에 펴낸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손에 들고 보는 신탁, 그리고 분별의 기술)』를 스페인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쳐 옮긴 중역이 아닙니다. 저본은 위키문헌(es.wikisource)에 공개된 1647년판 본문으로, 철자만 오늘날의 스페인어로 고쳐 적은 것입니다. 조지프 제이컵스의 영어 번역 『The Art of Worldly Wisdom』(1892)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고, 영어 번역이 스페인어와 다르게 읽은 자리에서는 스페인어 문법을 따랐습니다.

맨 앞의 「독자에게」는 그라시안의 후원자 빈센시오 후안 데 라스타노사가 쓴 서문입니다. 잠언 300개는 그라시안이 썼습니다. 문단 앞의 굵은 숫자는 원문의 잠언 번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잠언 하나가 한 문단이며,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습니다. 위키문헌이 쪽을 나누려고 붙인 묶음 머리글은 1647년판에 없는 것이라 싣지 않았고, 차례를 위해 잠언을 75개씩 네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잠언의 첫 구절, 곧 첫 마침표까지는 원문의 표제구입니다. 원문대로 본문과 같은 문단 안에 두고 따로 줄을 바꾸거나 굵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등급

그라시안은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전체를 향해 돌에 새기듯 말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너」나 「당신」으로 부르지 않고, 격언의 등급인 문어체 하라체로 옮겼습니다. 평서는 「-다」, 권고는 「-라」(하라·알라·

삼으라), 금지는 「-지 말라」입니다. 「독자에게」만은 라스타노사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글이라 독자를 「그대」로 불렀습니다. 경구는 늘이지 않고 원문의 길이에 가깝게 옮겼고, 대구는 같은 틀로 맞추었습니다. 원문에 흔한 쌍점과 쌍반점은 마침표나 쉼표, 이유를 잇는 말로 풀었고, 줄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낱말

그라시안이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며 갈라 쓴 말은 책 전체에서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흔히 「처세」로 옮겨 온 프루덴시아(prudencia)는 **분별**, 코르두라(cordura)는 **슬기**, 디스크레시온(discreción)은 **사려**, 사가시다드(sagacidad)는 **영민함**입니다. 인헤니오(ingenio)는 **재치**, 헤니오(genio)는 **천성**, 구스토(gusto)는 **안목**, 후이시오(juicio)는 **판단력**입니다. 포르투나(fortuna)는 **운**, 수에르테(suerte)는 **운수**, 디차(dicha)는 **행운**이고, 파마(fama)는 **명성**, 레푸타시온(reputación)은 **명망**, 크레디토(crédito)는 **신용**, 에스티마시온(estimación)은 **존중**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핵심어 데센가뇨(desengaño)는 미망에서 깨어 실상을 본다는 뜻이라 **깨어남**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낱말과 소리가 닮은 말을 맞세운 말놀이는 장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스페인어를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표기 원칙에 따라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 형태(알렉산드로스, 오디세우스), 로마 사람은 라틴어 형태로 적었습니다. 그라시안이 로마식으로 부른 신 가운데 로마 고유의 신격은 로마 이름(유피테르, 미네르바)으로, 그리스 신화의 일화는 그리스 이름(아폴론, 헤라클레스)으로 적었습니다.

각주

각주 83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처음 나오는 인물과 신화, 인용된 격언과 속담의 출처, 17세기 스페인의 풍속과 제도, 우리말로 소리를 살리지 못한 말놀이에만 달았고, 그라시안 사상의 해설은 달지 않았습니다.

장마다 따로 읽힐 수 있도록 장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달았고, 여러 장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 자세히, 뒤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말은 「출처 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의 책 이름과 인용은 개역개정을 따랐습니다.

차례

독자에게 8

잠언 1~75 9

잠언 76~150 36

잠언 151~225 64

잠언 226~300 93

독자에게

의로운 이에게는 법이, 지혜로운 이에게는 조언이 필요 없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넉넉히 알지는 못했다. 그대는 내게 한 가지는 용서하고 한 가지는 고마워해야 한다. 용서할 일은 잘 사는 법을 간추린 이 요약집을 신탁(Oráculo)이라 부른 것이다. 경구답고 간결하니 신탁이라 할 만하다. 고마워할 일은 그라시안의 열두 저작[1]을 한 붓에 담아 내놓은 것인데, 그 하나하나가 어찌나 높이 쳐졌는지 『사려 깊은 사람』[2]은 스페인에 나오자마자 프랑스에서 그 나라 말로 옮겨져 그 나라 궁정에서 찍혔다. 이 책이 현자들의 잔치에서 이성의 차림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성은 다른 저작들이 차례로 내올 분별의 요리를 여기 적어 두고, 저마다의 천성에 맞게 그 맛을 나누어 줄 것이다.

---

1. 그라시안의 저작 열두 편을 이 한 권에 담았다는 엮은이 라스타노사의 말. 1647년까지 실제로 나온 책은 『영웅』 『정치가』 『재치의 기술』 『사려 깊은 사람』 넷이다.

2. 그라시안이 1646년에 낸 책(El Discreto). 사려 깊고 세련된 사람의 자질을 스물다섯 편에 걸쳐 그렸다.

잠언 1~75

1 모든 것이 이미 무르익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오늘날 현자 하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옛날 일곱 현자[1]에게 요구된 것보다 많고, 요즘 사람 하나를 상대하는 데는 옛날 한 민족 전체를 상대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이 든다.

2 천성과 재치. 자질이 빛나는 두 축이다.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행복도 절반이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천성까지 좋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불행은 제 길을 잘못 고르는 것이다. 신분에서, 직분에서, 사는 곳에서, 사귀는 사람에서.

3 제 일은 궁금증 속에 끌고 가라. 새로움이 주는 감탄은 성취가 받는 존중이 된다. 패를 다 펼쳐 놓고 하는 놀이는 쓸모도 없고 재미도 없다. 곧바로 속을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직분이 높아 모든 이의 기대가 쏠리는 자리라면 더욱 그러하니, 모든 일에 신비를 내비치면 그 은밀함만으로도 우러름을 불러일으킨다. 제 뜻을 알릴 때조차 드러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하니, 교제에서 아무에게나 속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삼가는 침묵은 슬기의 성소다. 드러낸 결심은 존중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비판에 제 몸을 내맡기고, 일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두 번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이 하는 바를 본받아, 사람들이 늘 지켜보며 잠들지 못하게 하라.

4 앎과 용기는 번갈아 위대함을 이룬다. 둘 다 위대하기에 사람을 불멸로 만든다. 사람은 아는 만큼의 사람이고, 현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식견 없는 사람은 불 꺼진 세상이다. 조언과 힘, 눈과 손. 용기가 없으면 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5 의존하게 만들라. 신상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절하는 사람이다. 영민한 사람은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아쉬워하는 사람을 더 원한다. 천한 감사에 기대는 것은 예의 바른 희망을 도둑질하는 일이니, 희망은 잘 기억하고 감사는 잘 잊기 때문이다. 예절보다 의존에서 얻는 것이 많다. 목을 축인 사람은 곧 샘에 등을 돌리고, 짜고 난 오렌지는 황금 접시에서 진창으로 떨어진다. 의존이 끝나면 화답도 끝나고, 그와 함께 존중도 끝난다. 의존은 채워 주지 말고 이어 가게 하며, 왕관을 쓴 주인조차 늘 자기를 아쉬워하게 두라. 이것을 경험이 주는 으뜸가는 가르침으로 삼을 일이다. 그러나 상대가 그르치도록 일부러 입을 다무는 지나침에까지 가서는 안 되고, 제 이익을 위해 남이 입은 해를 고칠 수 없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6 무르익은 사람. 다 된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 사람으로서도 직분에서도 날마다 조금씩 다듬어져, 마침내 완성된 존재의 경지, 자질과 탁월함이 다 갖추어진 자리에 이른다. 그런 사람은 드높은 안목, 맑게 걸러진 재치, 무르익은 판단력, 찌꺼기를 걷어 낸 의지로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이는 끝내 온전해지지 못해 늘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고, 어떤 이는 늦게야 된다. 말에 지혜롭고 일에 슬기로운 완성된 사내는 사려 깊은 사람들의 드문 사귐에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한다.

7 주인을 이기는 일은 피하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사고, 주인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거나 치명적이다. 윗자리에 서는 것은 늘 미움을 샀으니, 윗사람 위에 서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주의 깊은 사람은 흔한 장점을 감추곤 한다. 아름다움을 수수한 차림으로 가리듯이. 행운이나 천성에서 양보하려는 사람은 쉽게 찾겠지만 재치에서

양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군주라면 더욱 없다. 재치는 모든 속성 가운데 왕이니, 그것을 거스르는 죄는 무엇이든 대역죄[2]였다. 군주는 군주이니, 가장 큰 것에서도 군주이고자 한다. 군주는 도움받기를 좋아하지만 앞질러지기는 싫어하며, 충고도 그가 이르지 못한 것을 밝혀 주는 빛이라기보다 그가 잊고 있던 것을 일깨우는 기억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별들이 이 묘수를 멋지게 가르쳐 준다. 별은 해의 자식이고 저마다 빛나지만, 결코 해의 빛남에 맞서지 않는다.

8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가장 드높은 마음이 지닌 자질. 그 높음 자체가 그를 낯설고 범속한 인상에 매이는 데서 건져 낸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큰 다스림은 없으니, 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유의지의 개선이 된다. 격정이 사람을 사로잡더라도 직무에까지는 손대지 못하게 하라. 직무가 클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이 언짢은 일을 덜고 명망에 이르는 지름길을 내는 세련된 처신이다.

9 제 나라의 흠을 지우라. 물은 흘러 지나는 물줄기의 좋고 나쁜 성질을 띠고, 사람은 태어난 땅의 풍토를 닮는다. 어떤 이들은 남보다 고향에 더 많은 빚을 지니, 그곳 하늘이 더 너그러웠기 때문이다. 타고난 흠 하나 없는 나라는 없다. 가장 세련된 나라도 그러하여, 이웃 나라들이 곧 그것을 꼬집는다. 경계 삼으려고, 아니면 위안 삼으려고. 이런 나라의 흠을 고치거나 적어도 지워 보이는 것은 승리를 거두는 솜씨다. 그러면 제 겨레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라는 갈채받는 신용을 얻으니, 가장 덜 기대한 것이 가장 높이 쳐지기 때문이다. 가문의 흠, 신분의 흠, 직분의 흠, 나이의 흠도 있으니, 이것이 한 사람에게 다 모이는데 주의로 미리 막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괴물이 된다.

10 운과 명성. 하나가 변덕스러운 만큼 다른 하나는 굳건하다. 하나는 살아 있을 때를 위해, 하나는 죽은 뒤를 위해. 앞의 것은 시샘을 막고, 뒤의 것은 망각을 막는다. 운은 바라는 것이고 때로 거들 수도 있지만,

명성은 애써 얻는 것이다. 명망을 바라는 마음은 덕에서 난다. 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거인들의 누이[3]다. 늘 극단을 오가니, 괴물 아니면 경이, 혐오 아니면 갈채다.

11 배울 수 있는 사람과 사귀라. 벗과 나누는 교제가 학식의 학교가 되고 대화가 세련된 가르침이 되게 하여, 벗을 스승으로 삼고 대화하는 즐거움에 배우는 쓸모를 스며들게 하라. 아는 사람들과는 즐거움이 오가니, 한 말은 받아 주는 갈채로 보답받고 들은 말은 가르침으로 남는다. 보통 남을 찾아가는 것은 제 이익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 이익이 한층 높아진다. 주의 깊은 사람은 궁정의 영웅들이 사는 집을 자주 드나드니, 그 집들은 허영의 궁전이라기보다 영웅다움의 무대다. 사려 깊다는 신용을 얻은 귀인들이 있다. 그들 자신이 본보기와 교제로 모든 위대함의 신탁일 뿐 아니라, 그들을 모시는 사람들의 무리도 훌륭하고 우아한 사려를 두루 갖춘 궁정의 학당이다.

12 자연과 기술, 재료와 작품. 도움 없는 아름다움은 없고, 꾸밈이 돋보이게 해 주지 않으면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완전함도 없으니, 꾸밈은 나쁜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완성한다. 자연은 흔히 가장 좋은 대목에서 우리를 버려 두니, 기술에 기대자. 가장 좋은 본성도 기술이 없으면 거칠고, 완전함도 가꾸지 않으면 절반이 모자란다. 꾸밈이 없으면 누구나 투박한 맛이 나니, 완전함의 모든 갈래에서 제 몸을 갈고닦아야 한다.

13 때로는 두 번째 의도로, 때로는 첫 번째 의도로 움직이라. 사람의 삶은 사람의 악의(malicia)에 맞서는 싸움(milicia)이다. 영민함은 의도를 바꾸는 계략으로 싸운다. 겨누는 시늉을 하는 것은 눈을 홀리기 위해서일 뿐, 내보인 대로 하는 법이 없다. 솜씨 좋게 허공을 위협하고는 뜻밖의 자리에서 실행하며, 늘 상대의 짐작을 뒤집는 데 마음을 쓴다. 상대의 경계를 붙잡아 두려고 의도 하나를 던져 놓고는 곧 돌아서서

뜻밖의 수로 이긴다. 그러나 꿰뚫어 보는 지성은 주의로 미리 막고 거듭 생각하며 숨어 기다리고, 상대가 알아듣게 하려는 것과 늘 반대로 알아들으며 거짓 시도를 곧장 알아본다. 첫 의도는 모두 흘려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도를 기다린다. 속임수는 제 꾸밈이 간파된 것을 보면 한층 깊어져 진실 자체로 속이려 든다. 수를 바꾸려고 판을 바꾸고, 꾸미지 않음을 꾸밈으로 삼으며, 가장 큰 솔직함 위에 꾀를 세운다. 관찰은 그 속셈을 알아채고 빛을 걸친 어둠을 찾아내며, 단순할수록 더 깊이 숨은 의도를 풀어낸다. 이렇게 피톤[4]의 간교함은 아폴론의 꿰뚫는 빛살이 지닌 솔직함과 맞서 싸운다.

14 실질과 모양새. 알맹이만으로는 모자라고, 둘레의 모양도 갖추어야 한다. 모양새가 나쁘면 모든 것을 망치니, 정의와 이치조차 그렇다. 모양새가 좋으면 모든 것을 메운다. 거절에 금을 입히고, 진실을 달게 하며, 늙음마저 단장해 준다. 일에서는 '어떻게'가 차지하는 몫이 크고, 몸가짐 하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따 가는 노름꾼이다. 아름다운 몸가짐은 삶의 꽃이고, 좋은 말씨 하나가 어떤 곤경에서도 남달리 사람을 건져 낸다.

15 곁에 재사(才士)를 두라. 힘 있는 사람의 행복은 지성이 용맹한 이들을 곁에 두는 데 있으니, 그들이 무지에서 오는 온갖 곤경에서 그를 건져 주고 어려움과 벌이는 싸움을 대신 싸워 준다. 현자를 부리는 것은 남다른 위대함이니, 항복한 왕들을 굳이 시종으로 삼은 티그라네스[5]의 야만스러운 즐거움을 훨씬 넘어선다. 자연이 윗사람으로 낸 이들을 기술로 종으로 부리는 것은, 삶의 가장 좋은 몫에서 펼치는 새로운 다스림이다. 알아야 할 것은 많고 삶은 짧으며, 알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수고 없이 공부하고, 여럿의 힘으로 많이 배우며, 모두의 머리로 아는 것은 남다른 솜씨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회의 자리에서 여럿의 몫을 말하니, 아니 그의 입으로 그에게 미리 일러 준 현자들이

모두 말하는 셈이어서 남의 땀으로 신탁이라는 신용을 얻는다. 그 현자들이 먼저 읽을 것을 골라 주고, 다음에는 앎을 정수로 걸러 바친다. 그러나 지혜를 종으로 부릴 수 없는 사람은 벗으로라도 곁에 두라.

16 바른 뜻을 품고 알라. 그래야 성취가 풍성하다. 좋은 지성이 나쁜 의지와 짝을 맺는 것은 늘 괴물 같은 폭력이었다. 악한 뜻은 완전함을 해치는 독이며, 앎의 도움을 받으면 더 교묘하게 해를 끼친다. 비열한 일에 쓰이는 탁월함이란 얼마나 불행한가! 지각 없는 학문은 곱절의 광기.

17 행동의 가락을 바꾸라. 늘 한 가지로 하지 말라. 남의 주의를, 그것이 경쟁하는 주의라면 더욱, 어지럽혀야 하기 때문이다. 늘 첫 번째 의도로 움직이지도 말라. 한결같음을 들키면 상대가 미리 막고, 나아가 행동을 꺾어 버릴 것이다. 곧게 날아가는 새는 쏘아 떨어뜨리기 쉽지만 몸을 트는 새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로 움직일 일도 아니다. 두 번이면 그 수를 알아챈다. 악의는 늘 숨어 기다리니, 그것을 따돌리려면 큰 묘수가 있어야 한다. 노름꾼은 상대가 짐작하는 패를 결코 내지 않으며, 상대가 바라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다.

18 노력과 미네르바[6]. 둘 다 없으면 탁월도 없고, 둘이 만나면 넘쳐난다. 노력하는 평범이 노력 없는 뛰어남보다 더 많이 얻는다. 명망은 수고를 값으로 치르고 산다. 값싼 것은 값어치도 적다. 가장 높은 직분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노력이 아쉬웠다. 노력은 좀처럼 천성을 저버리지 않는다. 높은 직분에서 평범하기를 바라서 범속한 직분에서 탁월하지 않은 것은 고결함이라는 핑계라도 있지만, 첫째가는 직분에서 뛰어날 수 있으면서 맨 끝 직분에서 평범함에 만족하는 것은 핑계조차 없다. 그러니 자연과 기술이 있어야 하고, 노력이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

19 지나친 기대 속에 등장하지 말라. 미리 크게 기려진 것이 흔히 당하는 무안은, 나중에 사람들이 품었던 상상의 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참된 것은 상상한 것을 따라잡은 적이 없으니, 완전함을 그려 보기는 쉽고 이루기는 몹시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은 욕망과 혼인하여 언제나 사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잉태한다. 뛰어남이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품은 헤아림을 채우기에는 모자라고, 터무니없는 기대에 속은 헤아림을 만나면 감탄시키기보다 먼저 미망에서 깨운다. 희망은 진실을 크게 위조한다. 슬기로 희망을 바로잡아, 누리는 즐거움이 바라던 것보다 크게 하라. 처음에 얻는 약간의 신용은 호기심을 깨우는 데 쓰일 뿐, 대상을 저당 잡히는 데 쓰이지 않는다. 실제가 헤아림을 넘어 믿었던 것보다 클 때 일이 더 잘 풀린다. 나쁜 것에서는 과장 자체가 도움이 되니 이 규칙이 들어맞지 않아서, 실제가 과장을 뒤집으면 갈채가 따르고 더없이 고약할 줄 알고 두려워한 것이 참을 만해 보이기까지 한다.

20 제 시대를 만난 사람. 탁월하게 드문 사람들은 시대에 달려 있다. 누구나 걸맞은 시대를 만난 것은 아니고, 만나고도 누리지 못한 이가 많다. 더 나은 시대를 누릴 만한 이들도 있었으니, 좋은 것이 다 늘 이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제 차례가 있고, 탁월함조차 유행을 탄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에는 이점이 하나 있으니,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가 제 시대가 아니라면 다른 많은 시대가 제 시대가 될 것이다.

21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도 규칙이 있다. 현자에게 행운이 다 우연은 아니니, 부지런함으로 거들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운의 문 앞에 맵시 있게 서서 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데 만족한다. 더 나은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 슬기로운 대담함을 쓰니, 그 대담함은 덕과 용기의 날개를 타고 행운을 따라잡고 솜씨 있게 구슬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따져 보면 덕과 주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분별과 무분별 말고는 행운도 불행도 없기 때문이다.

22 환영받는 식견을 지닌 사람. 궁정에 어울리는 맛깔스러운 학식은 사려 깊은 사람들의 탄약이니,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에 밝은 실제의 앎으로서 식견에 가깝고 범속한 것과는 멀다. 말에는 잘 버무린 재담을, 행동에는 아량을 넉넉히 갖추고, 그것을 제때 쓸 줄 알아야 하니, 충고가 더없이 엄숙한 가르침보다 농담 한마디에 실려 더 잘 통한 때가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말로 나누는 지혜가 일곱 학예를 다 합친 것보다 값졌다. 그토록 너그러운 학예들인데도[7].

23 흠 하나 두지 말라. 완전함이 걸린 단서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드물다. 마음에서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렇다. 그런데도 쉽게 고칠 수 있는 흠에 매달린다. 남의 슬기는, 두루 갖춘 숭고한 자질에 때로 아주 작은 흠 하나가 덤벼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니, 구름 한 점이면 해 하나를 온통 가리기에 넉넉하다. 그런 흠은 명망에 난 점이니, 적의는 곧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눈여겨본다. 흠을 돋보임으로 바꾼다면 더없는 솜씨일 것이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타고난 무안을 월계관으로 덮을 줄 알았다[8].

24 상상을 길들이라. 때로는 바로잡고 때로는 거들어야 한다.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전부이고, 슬기까지 바로잡아 준다. 상상은 폭군이 되곤 한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하며, 삶을 휘어잡아 그 빠져든 어리석음에 따라 삶을 즐겁게도 무겁게도 만드니, 사람을 제 자신에게 불만스럽게도 흡족하게도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그려 보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집안 형리가 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운 들뜸 속에서 행복과 모험을 내민다. 더없이 분별 있는 양식(良識, sindéresis)이 고삐를 죄지 않으면 상상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25 잘 알아듣는 사람. 추론할 줄 아는 것이 기술 중의 기술이었다. 이제는 그것으로 모자라고 알아맞혀야 하니, 깨어남(desengaño)의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될 수 없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투시자가 있고, 의도를 꿰뚫는 스라소니가 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늘 반만 말해진 채로 오니, 주의 깊은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알아듣고 받되 좋은 일에는 믿음의 고삐를 죄고 싫은 일에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26 사람마다 그를 죄는 조임쇠를 찾아내라.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결단보다 솜씨에 달렸으니, 사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아는 앎이다. 남다른 애착 없는 의지는 없고, 그 애착은 입맛이 갖가지인 만큼 갖가지다. 누구나 우상을 섬긴다. 어떤 이는 존중을, 어떤 이는 이익을, 대부분은 쾌락을. 요령은 이 우상들을 알아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다. 사람마다 잘 듣는 충동을 알면 남의 의지를 여는 열쇠를 쥔 셈이다. 맨 처음 움직이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늘 가장 높은 것이 아니고 대개는 가장 낮은 것이니, 세상에는 질서를 따르는 사람보다 질서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기질을 살피고, 다음에 말로 건드리고, 그 애착으로 몰아붙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의 자유의지에 외통수를 둔다.

27 넓이보다 깊이에 값을 치르라. 완전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아주 좋은 것은 늘 적고 드물었으니, 많은 것은 신용을 잃는다. 사람 가운데서도 거인이 흔히 참된 난쟁이다. 어떤 이들은 책을 몸집으로 높이 치니, 마치 책이 재치보다 팔을 단련하려고 쓰이기라도 하는 것 같다. 넓이만으로는 평범을 넘어선 적이 없고, 모든 일에 두루 끼려다 아무 데도 끼지 못하는 것이 만물박사들의 재앙이다. 깊이는 탁월을 낳고, 숭고한 일에서라면 영웅다운 탁월을 낳는다.

28 무엇에서도 범속하지 말라. 안목에서 그러지 말라. 자기 일이 뭇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언짢아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현자인가! 흔한 갈채를 배 터지게 받아도 사려 깊은 사람은 흡족해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인기의 카멜레온[9]이 되어, 아폴론의 더없이 부드러운 숨결이 아니라 범속한 무리의 입김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지성에서도 그러지 말라. 범속한 무리가 떠받드는 기적에 넘어가지 말 일이다. 그것은 무지한 자나 놀라게 하는 것일 뿐이니, 흔한 어리석음이 감탄할 때 남다른 눈은 미망에서 깨어난다.

29 올곧은 사람. 언제나 이성의 편에 서되 뜻이 어찌나 굳센지, 범속한 격정도 폭군의 힘도 결코 그로 하여금 이성의 선을 밟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누구랴? 올곧음을 끝까지 섬기는 이는 드물다. 많은 이가 올곧음을 기리지만 제집에 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위험이 닥칠 때까지만 따르다가, 위험이 오면 거짓된 자는 올곧음을 부인하고 정치가는 모른 척한다. 올곧음은 우정과도, 권력과도, 제 이익과도 맞부딪치기를 꺼리지 않으니, 바로 여기서 올곧음을 저버리고 싶은 곤경이 생긴다. 교활한 자들은 더 높은 이치나 나라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겠다며 갈채받는 형이상학으로 발을 빼지만, 한결같은 사내는 모른 척하는 것을 일종의 배신으로 여긴다. 영민함보다 끈질김을 자랑으로 삼고 진리가 있는 곳에 늘 그가 있으니, 그가 사람들을 떠난다면 제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30 평판 나쁜 직분을 업으로 삼지 말라. 허황한 일은 더욱 그러하니, 신용보다 업신여김을 부르기 때문이다. 변덕의 종파는 많고, 슬기로운 사내는 그 모두를 피해야 한다. 현자들이 내치는 것과 늘 혼인하는 별난 입맛들이 있으니, 그들은 온갖 유별남에 흐뭇해하며 사는데, 유별남이 그들을 널리 알리기는 해도 명망보다는 웃음거리로 알린다. 주의 깊은 사람은 현자라는 업에서조차 눈에 띄려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꾸며 내는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니, 그런 업은

하나하나 들지 않겠다. 모두가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미 낱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31 운 좋은 사람은 골라 사귀려고, 불운한 사람은 피하려고 알아 두라.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의 죄이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죄를 나눈다. 이만큼 잘 옮는 병은 없다. 가장 작은 화에도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늘 더 많고 더 큰 화가 숨어서 따라온다. 노름에서 가장 좋은 수는 버릴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니, 지난판 으뜸 패의 가장 높은 장보다 지금 판에서 도는 으뜸 패의 가장 낮은 장이 더 중요하다. 망설여질 때는 현자와 분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옳다. 그들은 머지않아 행운과 마주치기 때문이다.

32 남을 기쁘게 한다는 평을 얻으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큰 신용이요, 모두의 호의를 얻는 군주의 돋보임이다. 다스리는 자리의 이점은 이것 하나뿐이다. 누구보다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우정을 베푸는 사람이 벗이다. 반대로 남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으니, 귀찮아서라기보다 심술 때문이며, 모든 일에서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신과는 정반대로 간다.

33 물러설 줄 알라,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삶의 큰 가르침이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일에도 사람에게도 제 몸을 내주지 않을 줄 아는 것은 더 큰 가르침일 테니. 귀한 시간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은 쓸데없는 일들이 있으니, 하찮은 일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 주의 깊은 사람이 되려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고, 남이 저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모두의 것이 되느라 제 것이 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벗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서는 안 되고, 벗이 내주는 것 이상을 바라지 말라. 지나친 것은 모두 악덕이고,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슬기로운 절제가 있어야 모두의 호감과 존중을 더 잘

지키니, 더없이 귀한 품위가 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려 뽑은 것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천성을 지니고, 제 좋은 안목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라.

34 제 으뜸으로 돋보이는 자질, 곧 가장 뛰어난 자질을 알아 그것을 가꾸고 나머지를 거들라. 누구든 제 장점을 알았다면 무언가에서 탁월에 이르렀을 것이다. 으뜸가는 속성을 살피고 거기에 노력을 쏟으라. 어떤 이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어떤 이는 용기가 뛰어나다. 대부분은 저마다의 미네르바를 억지로 비틀어서 아무것에서도 뛰어나지 못한다. 격정이 일찍 추어올린 것을 시간은 늦게야 깨우쳐 준다.

35 헤아리라. 중요한 것일수록 더 헤아리라. 어리석은 자는 모두 생각하지 않아서 망한다. 사물의 절반도 헤아리지 못하고, 해로움도 이로움도 알아차리지 못하니 애쓰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하찮은 것을 대단히 여기고 대단한 것을 하찮게 여기니, 늘 거꾸로 저울질한다. 많은 이가 얼이 없으니 얼이 빠질 일도 없다. 있는 힘을 다해 살피고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자는 모든 것을 헤아리되 가려서 하여, 바닥이 깊고 따져 볼 것이 있는 곳을 판다. 때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처음 알아챔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되새김이 미친다.

36 처신하기 위해, 일에 뛰어들기 위해 제 운을 떠보아 두라. 그것은 체질을 살피는 것보다 중요하니, 마흔 살에 건강을 물으려고 히포크라테스를 부르는 사람이 어리석다면[10], 슬기를 물으려고 세네카를 부르는 사람은 더 어리석다. 운을 부릴 줄 아는 것은 큰 기술이다. 운에도 기다림이 통하니 때로는 기다리며 부리고 운에도 제 차례와 때가 있으니 때로는 붙잡아 누리되, 운의 걸음이 그토록 종잡을 수 없어 그 가락만은 잡을 수 없다. 운이 제 편임을 본 사람은 활달하게 밀고 나가라. 운은 대담한 사람에게 반하곤 하고, 멋을 아는 여인답게

젊은이에게도 반한다. 불운한 사람은 움직이지 말고 물러나, 불운에 두 번 당할 틈을 주지 말라. 운을 휘어잡은 사람은 앞으로.

37 슬쩍 던지는 말[11]을 알아보고 쓸 줄 알라. 사람 사이 교제에서 가장 미묘한 대목이다. 그런 말은 마음을 떠보려고 던지며, 그것으로 마음을 가장 은밀하고 깊숙이 더듬어 본다. 악의를 품고 던지는 말도 있으니, 시샘의 독초에 적시고 격정의 독을 바른 그 말은 호의와 존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벼락이다. 범속한 무리의 뒷공론과 한 사람의 적의가 한꺼번에 공모해도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던 많은 이가, 이런 가벼운 말 한마디에 맞아 윗사람의 총애에서도 아랫사람의 신망에서도 떨어졌다. 반대로 호의로 작용하여 명망을 받쳐 주고 굳혀 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의도가 그 말을 던지는 솜씨만큼의 솜씨로 조심은 그것을 받아 내고 주의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니, 방어는 알아보는 데 달렸고 미리 안 화살은 늘 빗나가기 때문이다.

38 운이 따를 때 이기고 있는 채로 물러날 줄 알라. 이름난 노름꾼이 하는 일이다. 멋진 퇴각은 용맹한 돌격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넉넉해지면, 많아지면 거두어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 끊이지 않는 행복은 늘 의심을 샀다. 띄엄띄엄 오는 행복이 더 안전하고, 누리는 맛을 위해서도 새콤달콤한 데가 좀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이 서로 밀치며 몰려올수록 미끄러져 모든 것을 망칠 위험이 커진다. 때로는 운이 베푸는 총애가 짧은 대신 진하다. 운은 한 사람을 그토록 오래 업고 다니는 데 지친다.

39 사물이 무르익은 때, 제때를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라. 자연의 작품은 모두 제 완전함의 끝에 이른다. 거기까지는 얻어 가고, 거기서부터는 잃어 간다. 기술의 작품 가운데 더 나아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드물다. 모든 것을 그것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즐기는 것은 좋은 안목이 지닌 탁월함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지성의 열매에도 그렇게 무르익는 때가 있다. 그 익음을 알아야 값을 쳐 주고 쓸 수 있다.

40 사람들의 호의. 뭇사람의 감탄을 얻는 것도 대단하지만 애정을 얻는 것은 더 대단하다. 그 일에는 타고난 별자리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부지런함이니, 별자리로 시작하고 부지런함으로 이어 간다. 좋게 헤아려지면 마음도 쉽게 얻으리라 여기기는 하지만, 자질이 탁월한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러니 호의를 얻으려면 선행이 있어야 한다. 두 손으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에 더 좋은 행동을 하며,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라. 예절은 큰 인물이 쓰는 가장 큰 정치의 마법이다. 먼저 공적에, 그다음 붓에 손을 뻗어 칼날(hoja)에서 책장(hojas)으로 나아가야 하니, 글 쓰는 이들의 호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41 결코 과장하지 말라. 최상급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주의가 크게 힘쓸 일이다. 진실을 해칠까 봐서도, 제 슬기에 흠을 낼까 봐서도. 과장은 존중을 헤프게 뿌리는 일이며, 앎과 안목이 짧다는 표시다. 칭찬은 호기심을 세차게 깨우고 욕망을 찌르지만, 그 뒤에 흔히 그렇듯 값이 칭찬에 미치지 못하면, 기대는 속은 것에 등을 돌려 기림받은 것과 기린 사람을 함께 깔보는 것으로 앙갚음한다. 그러니 슬기로운 사람은 아주 삼가며, 넘치기보다 모자라는 쪽으로 허물을 짓기를 택한다. 탁월함은 드무니 존중을 누그러뜨리라. 부풀리는 것은 거짓말의 한 갈래이며, 그러다가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큰 신용을 잃고, 아는 사람이라는 더 큰 신용까지 잃는다.

42 타고난 위세. 윗자리에 서게 하는 은밀한 힘이다. 그 힘은 짜증스러운 꾸밈이 아니라 위세 있는 본성에서 나와야 한다. 모두가 어찌 된 줄도 모르고 그를 따르니, 타고난 권위의 은밀한 기운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스리는 천성이다. 공로로는 왕이요 타고난

특권으로는 사자여서, 남들이 우러르는 만큼 남의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는다. 다른 자질까지 받쳐 준다면 그들은 나라를 움직이는 첫째 동력이 되도록 태어났으니, 남들이 길게 늘어놓아 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짓 하나로 해내기 때문이다.

43 생각은 소수와 함께, 말은 다수와 함께 하라. 물살을 거슬러 가려는 것은 남을 미망에서 깨우기란 불가능하고, 위험을 부르기란 그만큼 쉽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나 해 볼 일이다. 뜻을 달리하는 것은 모욕으로 여겨지니, 남의 판단력을 단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짢은 사람이 불어난다. 비난받은 것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던 사람 때문에. 진실은 소수의 것이고, 속임은 흔한 만큼 범속하다. 광장에서 하는 말로 현자를 가늠해서는 안 되니, 그는 속으로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거기서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흔한 어리석음의 목소리로 말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반박하는 것만큼 반박당하는 것도 피한다. 비판에는 빠르지만 비판을 드러내는 데는 더디다. 생각은 자유로워서 억누를 수도 없고 억눌러서도 안 되니, 제 침묵의 성소로 물러나 있다가 때로 저를 드러낸다면 몇 안 되는 슬기로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다.

44 큰 사람들과 통하는 마음. 영웅과 어울리는 것은 영웅의 자질이다. 숨어 있어서도, 이로워서도 자연의 경이다. 마음과 마음, 천성과 천성 사이에는 핏줄 같은 것이 있으니, 범속한 무지가 사랑의 묘약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 결과다. 그 마음은 존중에서 멈추지 않고 호의로 나아가며, 끌림에까지 이른다. 말 없이 설득하고, 공로 없이 얻는다. 끌어당기는 것도 있고 끌려가는 것도 있으니, 둘 다 숭고할수록 복되다. 그것을 알아보고, 가려내고, 누릴 줄 아는 것은 큰 솜씨다. 이 은밀한 총애가 없으면 어떤 고집도 소용이 없다.

45 되짚는 꾀는 쓰되 지나치게 쓰지 말라. 그것을 꾸며 보이지 말아야 하고, 남이 알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모든 기술은 감추어야 하니,

기술은 의심을 사고, 조심의 기술이라면 미움까지 산다. 속임이 많이 쓰이니 경계를 곱절로 하되,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드러나면 불신을 부른다. 드러난 경계는 상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고 앙갚음을 부추기며, 생각지도 않던 악을 깨운다. 처신할 때 되짚어 생각하는 것은 행동에서 큰 이점이다. 생각이 깊다는 것을 이보다 잘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행동의 가장 큰 완전함은 그것을 해내는 위엄이 보증한다.

46 제 반감을 바로잡으라. 우리는 공연히 미워하곤 하고, 상대의 자질을 알아보기도 전에 미워한다. 이 타고난 범속한 혐오는 때로 탁월한 사내들에게까지 덤벼든다. 슬기로 그것을 바로잡으라. 가장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쁜 불명예는 없다. 영웅과 통하는 마음이 이로운 만큼 영웅을 꺼리는 마음은 흠이다.

47 시비에 얽히지 말라. 분별이 맨 먼저 힘쓸 일 가운데 하나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마지막 고비에 이르기까지 늘 먼 거리를 두니,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까지 갈 길이 멀고 그들은 늘 제 슬기의 한가운데 머문다. 그들은 늦게야 결렬에 이르니, 일을 잘 치러 내기보다 일에서 몸을 빼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판단력을 시험하는 유혹이니, 이기기보다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비 하나가 더 큰 시비를 부르고, 그러면 벼랑이 바로 곁이다. 천성으로, 나아가 나라의 기질로 시비를 잘 거는 사람들이 있어 쉽게 책무에 얽혀 든다. 그러나 이성의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은 늘 일을 깊이 저울질하며 가니, 얽히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보다 큰 용기로 여기고, 시비 거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 있더라도 자기까지 더해 둘이 되지 않게 한다.

48 속이 깊은 사람, 깊은 만큼 사람다운 사람이다. 모든 일에서 안이 겉보다 곱절은 더 있어야 한다. 겉벽뿐인 사람들이 있다. 밑천이 모자라 짓다 만 집처럼, 들어가는 문은 궁궐인데 사는 방은 오두막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머물 데가 없다. 아니, 모든 것이 멈춘다. 첫인사가 끝나면

대화도 끝나기 때문이다. 처음 예를 차릴 때는 시칠리아 말처럼 기세 좋게 들어오다가 곧 입을 다물고 멈추어 서니, 헤아림이 마르지 않고 솟는 곳이 아니면 말도 바닥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처럼 겉만 보는 사람은 쉽게 속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는 꾀는 속이지 못하니 그 꾀는 그들이 텅 비어 사려 깊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을 알아본다.

49 판단력 있고 눈여겨보는 사람. 그가 사물을 다스리지, 사물이 그를 다스리지 않는다. 가장 깊은 곳의 바닥도 곧 재어 보고, 사람의 밑천을 빈틈없이 해부할 줄 안다. 인물을 보자마자 꿰뚫어 알고 그 본질까지 가늠한다. 보기 드문 관찰력을 지녀, 가장 깊이 감춘 속내도 잘 풀어낸다. 날카롭게 눈여겨보고, 섬세하게 헤아리며, 판단력 있게 추론한다. 모든 것을 찾아내고, 알아채고, 따라잡고, 꿰뚫는다.

50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을 결코 잃지 말라. 홀로 있을 때도 저를 허물없이 대하지 말라. 제 올곧음을 제 바름의 잣대로 삼고, 밖에서 오는 어떤 계율보다 제 소견의 엄격함에 더 많이 빚져야 한다. 점잖지 못한 일은 남의 권위가 엄해서가 아니라 제 슬기가 두려워서 하지 말라. 스스로를 두려워하게 되면 세네카의 상상 속 감독관[12]이 필요 없다.

51 잘 고르는 사람. 삶은 대부분 고르는 데 달렸다. 고르려면 좋은 안목과 더없이 바른 소견이 있어야 하니, 공부도 재치도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가려 뽑음이 없는 곳에 완전함은 없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들어 있다. 고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것. 재치가 풍성하고 섬세하며 판단력이 날카롭고, 공부도 많고 식견도 넓은 많은 이가 고르는 대목에 이르면 길을 잃고, 늘 가장 나쁜 것과 혼인하니 일부러 그르치려는 것만 같다. 그래서 잘 고르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다.

52 결코 흐트러지지 말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슬기가 크게 힘쓸 일이다. 그것은 큰 사람, 왕관을 쓴 마음을 보여 주니, 너그럽고 큰

마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격정은 마음의 체액이어서, 어느 하나가 넘치면 슬기가 병든다. 그 병이 입 밖으로 나오면 명망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 제 자신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커져서, 가장 순탄할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누구도 그가 흔들렸다고 나무랄 수 없고 다만 그가 우뚝하다고 감탄하게 하라.

53 부지런하되 생각 깊게. 생각 깊은 머리가 오래 궁리한 것을 부지런함이 재빨리 해낸다. 서두름은 어리석은 자의 격정이니, 그들은 걸림돌을 보지 못해 거리낌 없이 움직인다. 반대로 현자들은 너무 머뭇거려 허물을 짓곤 하니, 알아차리는 데서 망설임이 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미적거리는 굼뜸이 적중한 소견을 망친다. 재빠름은 행운의 어머니다. 아무것도 내일로 미루지 않은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 천천히 서두르기, 장엄한 표어다[13].

54 슬기로운 기개를 지니라. 죽은 사자는 토끼들까지 갈기를 잡아뜯는다. 용기는 농담으로 다룰 것이 아니다. 첫째에게 물러서면 둘째에게도 물러서야 하고, 그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물러서게 된다. 늦게 가서 이겨야 할 어려움도 똑같으니, 처음부터 이겨 두는 편이 나았다. 마음의 기개는 몸의 기운보다 낫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때를 위해 늘 슬기라는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한다. 기개는 사람을 지키는 방패다. 몸이 처지는 것보다 마음이 처지는 것이 더 해롭다. 탁월한 자질을 지니고도 이 마음의 숨결이 모자라 죽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끝내 제 무기력 속에 묻힌 이가 많으니, 자연이 부지런히 꿀벌에게 꿀의 단맛과 침의 매서움을 함께 준 것은 섭리가 없지 않아서다. 몸에는 힘줄과 뼈가 있다. 마음이 온통 무르기만 하게 두지 말라.

55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을성의 품이 넓은 큰 마음을 보여 준다. 결코 서두르지도, 격정에 휩쓸리지도 말라. 먼저 자기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나중에 남의 주인도 된다. 시간의 들판을 지나 기회의 중심으로

걸어가야 한다. 분별 있는 머뭇거림이 성취에 제맛을 들이고 비밀을 무르익힌다. 시간의 목발이 헤라클레스의 강철 쇠몽둥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신조차 매가 아니라 때로 벌한다[14]. 멋진 말이 있다. "시간과 나, 그 둘이면 다른 둘을 상대한다."[15] 운조차 기다림에 큰 상으로 갚는다.

56 즉석의 솜씨를 갖추라. 그것은 복된 재빠름에서 난다. 그 재빠름에는 곤경도 우연도 없으니, 생기와 활달함이 받쳐 주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오래 생각하고는 나중에 모든 것을 그르치고, 어떤 이들은 미리 생각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맞힌다. 반발로 힘을 내는[16] 밑천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궁지에 몰리면 더 잘 해내는데, 이들은 대개 괴물 같아서 엉겁결에 하면 다 맞히고 생각하고 하면 다 그르친다.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끝내 떠오르지 않으니, 나중을 기약할 것도 없다. 재빠른 사람은 갈채를 받는다. 놀라운 그릇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헤아림에서는 섬세함을, 일에서는 슬기를.

57 생각해서 한 일이 더 안전하다. 잘만 하면 충분히 빠르다. 곧 된 것은 곧 무너진다. 그러나 영원히 갈 것은 만드는 데도 또 하나의 영원이 걸려야 한다. 사람들은 완전함만 보고, 남는 것은 잘된 일뿐이다. 깊이 있는 지성이 영원을 얻는다. 값진 것은 값이 많이 든다. 쇠붙이 가운데 가장 귀한 것도 가장 더디고 가장 무겁다.

58 자신을 맞출 줄 알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는 티를 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보다 많은 힘을 써서도 안 된다. 앎도 값어치도 헤프게 쓰지 말라. 좋은 매사냥꾼은 사냥감을 잡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매를 날리지 않는다. 늘 뽐내지 말라. 다음 날이면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다. 빛낼 새로움이 늘 있어야 하니, 날마다 더 내보이는 사람은 늘 기대를 붙잡아 두고 남들은 끝내 그 큰 밑천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내지 못한다.

59 끝맛이 좋은 사람. 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오고, 그 반대도 그렇다. 그러니 끝을 주의하라. 들어갈 때 받는 갈채보다 나올 때의 복에 더 마음을 쓸 일이다. 시작은 아주 순탄하고 끝은 아주 비참한 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무안이다. 요점은 누구나 받는, 들어갈 때의 범속한 갈채에 있지 않고 떠날 때 모두가 아쉬워하는 데 있으니, 떠난 뒤에 그리움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운은 떠나는 사람을 좀처럼 배웅하지 않는다. 오는 사람에게 깍듯한 만큼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다.

60 좋은 소견. 어떤 이들은 분별 있게 태어난다. 타고난 양식이라는 이점을 안고 지혜에 들어서니, 성취에 이르는 길의 절반을 이미 걸은 셈이다. 나이와 경험이 쌓이면 이성이 온전히 무르익어, 아주 절도 있는 판단력에 이른다. 그들은 온갖 변덕을 슬기를 꾀는 유혹으로 여겨 싫어하며, 나랏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랏일은 더없이 중요하니 빈틈없이 안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키를 잡을 자격이 있다. 손수 잡든, 곁에서 조언하든.

61 가장 좋은 일에서 거두는 탁월. 여러 완전함 가운데 하나의 큰 남다름이다. 숭고한 극단 하나 없는 영웅은 있을 수 없다. 평범은 갈채의 대상이 아니다. 뛰어난 직분에서 거둔 탁월은 사람을 범속한 무리에서 끌어내 드문 사람의 반열에 올린다. 낮은 업에서 탁월한 것은 작은 것에서 무엇이 되는 것일 뿐이다. 즐거움이 많은 것일수록 영광은 적다. 빼어난 일에서 남을 넘어서는 것은 군주의 표지와 같아서, 감탄을 부르고 애정을 얻는다.

62 좋은 연장으로 일하라. 어떤 이들은 연장이 형편없을수록 제 솜씨가 더 돋보이기를 바란다. 위험한 자기만족이니, 치명적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신이 훌륭하다고 주인의 위대함이 줄어든 적은 없다. 오히려 성취의 영광은 모두 나중에 으뜸 원인에게 돌아가고, 비난도

마찬가지다. 명성은 늘 맨 앞사람을 따라간다. 명성은 결코 "그는 좋은 대신을, 또는 나쁜 대신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그는 좋은 장인이었다, 또는 나쁜 장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고르고 또 따져 보라. 그들에게 명망의 불멸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63 첫째가 되는 뛰어남. 탁월하기까지 하면 곱절이다. 먼저 패를 내는 것은 큰 이점이니, 비기면 먼저 낸 쪽이 이긴다. 남이 앞서 가지만 않았더라면 제 직분에서 불사조가 되었을 사람이 많다. 첫째는 명성의 장자 상속분을 차지하고, 둘째에게는 소송으로 다투는 부양료만 남으니, 둘째는 아무리 땀 흘려도 흉내라는 범속한 흠을 씻어 내지 못한다. 탁월에 이르는 새 길을 지어내는 것은 비범한 이들의 묘수였다. 다만 슬기가 먼저 그 일의 안전을 다져 두어야 한다. 현자들은 새로운 주제로 영웅들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어떤 이들은 첫째 반열의 둘째보다 둘째 반열의 첫째가 되기를 바란다.

64 괴로움을 피할 줄 알라. 언짢은 일을 더는 것은 이로운 슬기다. 분별은 그런 일을 많이 피하게 하니, 행복의 산파 루키나[17]이고 그래서 만족의 산파이기도 하다. 싫은 소식은 전하지 말고, 받기는 더욱 하지 말라. 고칠 길을 들고 오는 소식이 아니라면 들어올 길을 막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아첨의 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귀가 닳고, 어떤 이들은 뒷말의 쓴 소리를 들어 귀가 닳는다. 날마다 언짢은 일 하나 없이는 살 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독 없이 살지 못한 미트리다테스[18]와 같다. 남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기쁨을 주려고 자신에게 평생의 괴로움을 안기는 것도 제 몸을 지키는 규칙이 아니다. 충고만 하고 자기는 빠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제 행운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남을 기쁘게 하는 일과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맞부딪칠 때는, 남이 지금 언짢아하는 편이 자기가 나중에 손쓸 길 없이 언짢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이로움의 가르침이다.

65 뛰어난 안목. 안목도 재치처럼 가꿀 수 있다. 뛰어나게 알아보면 바라는 욕구가 높아지고, 다음에는 가지는 즐거움이 높아진다. 사람의 밑천이 얼마나 높은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높은 것을 바라는지로 안다. 큰 그릇을 채우려면 큰 대상이 있어야 한다. 큰 덩이가 큰 입을 위해 있듯, 숭고한 일은 숭고한 천성을 위해 있다. 가장 당당한 것들도 그런 안목을 두려워하고, 가장 자신 있는 완전함도 움츠러든다. 첫째 등급의 완전함은 드무니, 값을 쳐 주는 일도 드물게 하라. 안목은 교제로 옮고, 오래 함께하면 물려받는다. 안목이 무르익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큰 운수다. 그러나 무엇이든 마땅찮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니, 그것은 어리석은 극단 가운데 하나이고, 성미가 고르지 못해서보다 티를 내느라 그럴 때 더 밉살스럽다. 어떤 이들은 제 엉뚱한 공상을 채우려고 신이 다른 세상과 다른 완전함을 지어 주기를 바란다.

66 일이 잘 끝나도록 주의하라. 어떤 이들은 뜻을 이루는 복보다 일을 이끄는 엄격함에 더 눈길을 둔다. 그러나 실패가 깎아내리는 신용이 애쓴 수고가 보증해 주는 신용보다 늘 무겁다. 이긴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은 사정의 세세함은 보지 못하고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만 본다. 그러니 뜻을 이루면 명망을 잃는 법이 없다. 좋은 끝은 모든 것에 금을 입힌다. 수단에서 그르친 것이 그 끝을 거스르더라도. 달리 잘 끝내는 행운을 얻을 길이 없을 때는 기술을 거스르는 것이 곧 기술이다.

67 갈채받는 직분을 택하라. 대부분의 일은 남이 흡족해하는지에 달렸다. 존중이 완전함에게 하는 일은 봄 서풍이 꽃에게 하는 일과 같다. 숨이요 생명이다. 모든 이의 환호 앞에 드러나는 직분이 있고, 더 크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직분이 있다. 앞의 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니 뭇사람의 호의를 얻고, 뒤의 것은 더 드물고 정교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늘에 머물러 우러름은 받아도 갈채는 받지 못한다.

군주 가운데서는 이긴 군주가 기림받는다. 아라곤의 왕들이 그토록 갈채를 받은 것도 싸우고 정복하고 너그러웠기 때문이다. 큰 사내는 모두가 보고 모두가 함께하는 이름난 직분을 택하여, 뭇사람의 표로 불멸에 오르라.

68 깨달음을 주라.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것보다 그만큼 더 큰 솜씨다. 때로는 일깨워 주고 때로는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무르익은 일을 떠올리지 못해 하지 않고 만다. 그럴 때는 벗의 귀띔이 이로운 것을 깨닫도록 거들 일이다. 중요한 것이 떠오르는 것은 머리가 지닌 가장 큰 이점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성취가 많다. 빚을 가진 사람은 빚을 주고, 빚을 구하는 사람은 빚을 청하라. 앞사람은 조심스럽게, 뒷사람은 주의 깊게. 실마리만 주면 된다. 깨우쳐 주는 쪽의 이익이 걸렸을 때 이 묘수가 더욱 급하다. 먼저 맛을 보이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더 나아가야 한다. 이미 '아니'를 받았으니 솜씨 있게 '그래'를 찾아 나서라. 대개는 해 보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69 범속한 기분에 굴복하지 말라. 낯선 인상에 결코 매이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제 자신을 되짚어 보는 것은 깨어 있음의 가르침이니, 지금 제 상태를 알고 미리 대비하며, 반대쪽 극단으로 기울여 보기까지 해서, 본성과 기술 사이에서 양식이라는 저울의 바늘을 찾는 일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신을 바로잡는 시작이다. 주책의 괴물들이 있으니, 늘 어떤 기분에 사로잡혀 기분 따라 감정을 바꾸고, 이 볼썽사나운 들쭉날쭉함에 영원히 끌려다니며 서로 어긋나는 일에 매달린다. 이 지나침은 의지를 닳게 할 뿐 아니라 판단력에까지 덤벼들어, 바람과 앎을 함께 뒤흔든다.

70 거절할 줄 알라. 모든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 들어줄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고,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급히 마음 쓸 일이다. 여기서 모양새가 끼어든다. 어떤 이의

'아니'가 다른 이의 '그래'보다 높이 쳐지니, 금을 입힌 '아니'가 맨숭맨숭한 '그래'보다 더 흡족하기 때문이다. 늘 입에 '아니'를 달고 살아 모든 것의 맛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는 늘 '아니'가 먼저 나오니, 나중에 다 들어주더라도 높이 쳐지지 않는다. 처음의 그 언짢은 맛이 앞섰기 때문이다. 단번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 깨어남은 한 모금씩 마시게 하라. 아주 거절해서도 안 되니, 그러면 상대의 의존을 끊어 버리는 셈이다. 늘 희망의 부스러기를 남겨 거절의 쓴맛을 누그러뜨리라. 예절로 총애의 빈자리를 채우고, 좋은 말로 모자란 행동을 메울 일이다. '아니'와 '그래'는 말하기는 짧아도 생각은 길게 해야 한다.

71 본성 탓이든 티 내기 탓이든, 들쭉날쭉하거나 종잡을 수 없이 처신하지 말라. 슬기로운 사내는 완전한 모든 것에서 늘 한결같았으니, 그것이 아는 사람이라는 신용이다. 바뀌더라도 까닭과 사정이 바뀔 때만 바뀌라. 슬기의 일에서 변덕은 추하다. 날마다 딴사람이 되는 이들이 있다. 지성마저 들쭉날쭉하니 의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행운까지 그렇다. 어제는 그의 '그래'를 받는 흰 과녁이던 사람이 오늘은 그의 '아니'를 받는 검은 과녁이 되니, 늘 제 신용을 스스로 깨뜨리고 남의 헤아림을 어지럽힌다.

72 결단하는 사람. 서툰 실행이 우유부단보다 덜 해롭다. 물은 흐를 때보다 고일 때 더 상한다. 무엇이든 남이 먼저 떠밀어 주어야 하는,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 그것은 판단력이 헷갈려서라기보다 굼떠서 생기니, 그들의 판단력은 오히려 날카롭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데도 재치가 들지만, 걸림돌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데는 더 큰 재치가 든다. 어떤 일에도 막히지 않는, 판단력이 크고 단호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높은 직분을 위해 태어났으니, 막힘없는 파악이 적중과 처리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되어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사람 하나는 한 세계를 다 처리하고도 또 한 세계를 맡을 시간이 남았다. 그들은 제 행운을 믿을 수 있을 때 더 확신하며 일에 뛰어든다.

73 슬쩍 빠져나갈 줄 알라. 슬기로운 사람이 곤경을 벗는 길이다. 멋진 익살 한마디로 가장 얽힌 미로에서도 빠져나오곤 한다. 가장 까다로운 다툼도 미소 하나로 맵시 있게 비켜 간다. 위대한 장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가 여기에 제 용기를 세웠다. 말머리를 돌리는 것은 거절의 예의 바른 수다.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보다 큰 주의는 없다.

74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참된 맹수는 사람 가장 많은 곳에 있다. 가까이하기 어려운 것은 제 자신을 모르는 자들의 악덕이니, 그들은 벼슬이 오르면 버릇도 바뀐다. 짜증부터 내고 시작하는 것은 존중을 얻는 알맞은 길이 아니다. 늘 주책없는 사나움을 드러낼 채비가 된, 사귀기 어려운 이런 괴물을 보는 꼴이란 어떠한가? 그에게 매인 사람들은 불행히도 그에게 말을 걸러 들어갈 때 호랑이와 싸우러 가듯 조심과 두려움으로 똑같이 무장한다.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모두의 비위를 맞추었고, 자리에 오르자 모두를 짜증 나게 하여 본전을 찾으려 한다. 직분으로 보면 많은 이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거칠고 거만해서 누구의 사람도 아니다. 이들에게는 궁정식의 벌이 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들과 사귀지 않아 슬기를 얻을 길을 막는 것이다.

75 영웅다운 본보기를 고르라. 흉내보다는 겨룸을 위해. 위대함의 본보기들, 명망을 살아 움직이게 새긴 글들이 있다. 저마다 제 직분에서 으뜸가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되, 따라가려고가 아니라 앞지르려고 하라. 알렉산드로스는 무덤에 묻힌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제 자신을 두고 울었다[19]. 남의 명성이 울리는 나팔만큼 마음에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시샘을 땅에 메치는 그 나팔이 고결함을 북돋운다.

1. 고대 그리스의 일곱 현인(탈레스, 솔론 등).

2. 원문은 lesa Majestad. 군주의 존엄을 해친 죄, 곧 대역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3. 원문 fama는 「명성」 이면서 「소문」 이다.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4권에서 소문의 여신 파마(Fama)는 대지가 신들에게 노하여 낳은, 거인 코이오스와 엔켈라도스의 막내 누이로 그려진다.

4. 델포이를 지키던 큰 뱀. 아폴론이 화살로 쏘아 죽였다. 원문은 피톤의 「간교함(calidez)」과 아폴론의 「솔직함(candidez)」을 소리로 맞세운다.

5. 아르메니아의 왕 티그라네스 2세(기원전 1세기). 항복한 왕들을 시종처럼 부렸다고 플루타르코스가 전한다.

6. 로마의 지혜와 기예의 여신. 그라시안은 이 이름으로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가리킨다.

7. 중세 이래 학문의 기초로 삼은 일곱 자유 학예(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 음악, 천문). 원문의 liberales는 「자유」 학예라는 뜻과 「너그러운」 이라는 뜻을 함께 띤다.

8. 카이사르는 대머리를 부끄러워해 월로원이 허락한 월계관을 늘 쓰고 다녔다고 수에토니우스가 전한다.

9. 옛사람들은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고 산다고 믿었다.

10. 티베리우스 황제는 서른이 넘어서도 제 몸에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남에게 묻는 사람을 비웃었다고 한다(타키투스 『연대기』 6권). 나이가 들면 제 몸은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옛 생각을 받은 말이다.

11. 원문은 varillas(가는 막대, 살). 남의 속을 떠보거나 찌르려고 슬쩍 던지는 말을 가리킨다.

12. 세네카는 훌륭한 사람 하나를 골라 늘 자기를 지켜보는 감독관으로 마음에 세워 두라고 권했다(『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1).

13. 「천천히 서두르라」 (라틴어 festina lente)는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했다는 말이다(수에토니우스 『황제전』 「아우구스투스」 25). 원문의 「장엄한(augusta)」에 그의 이름이 걸려 있다.

14. 원문은 「몽둥이(bastón)」와 「제때(sazón)」의 소리를 맞춘다.

15. 스페인 왕 펠리페 2세(1527~1598)의 말로 전한다.

16. 원문은 antiperistasis. 옛 자연학에서 반대되는 성질에 둘러싸이면 한 성질이 더 세진다고 본 현상이다.

17. 로마의 출산의 여신. 유노의 별칭으로도 쓴다.

18.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기원전 1세기). 독살을 두려워해 날마다 독을 조금씩 먹어 몸을 길들였다고 한다.

19.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 무덤 앞에서, 살아서는 참된 벗을 두었고 죽어서는 호메로스라는 전령을 얻었으니 복된 사람이라고 했다(플루타르코스 『알렉산드로스전』 15).

잠언 76~150

76 언제나 농담만 하지 말라. 분별(prudencia)은 진지한 데서 드러나고, 진지함은 재치보다 신용이 두텁다. 늘 농담만 하는 사람은 결코 진심인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와 한가지로 여겨 믿어 주지 않으니,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일까 염려되고 이들의 말은 놀림일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언제 판단력을 차리고 말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판단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칠 줄 모르는 익살만큼 큰 무안은 없다. 어떤 이들은 말재주꾼이라는 명성을 얻고 슬기로운 사람(cuerdo)이라는 신용을 잃는다. 즐거움에는 제 몫의 짧은 때가 있어야 하고, 나머지 때는 모두 진지함의 몫이다.

77 누구에게나 맞출 줄 알라. 사려 깊은 프로테우스[1]가 되라. 학자와는 학자로, 성자와는 성자로. 모든 사람을 얻는 큰 기술이니, 닮음이 호의를 부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기질을 살펴 저마다의 기질에 자신을 맞추고, 진지한 사람이든 쾌활한 사람이든 그 물결을 따라가며 수완 있게 제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 남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에게는 절박한 일이다. 삶의 이 큰 묘수에는 큰 밑천이 든다. 식견으로는 재치가, 안목으로는 천성이 두루 넓은 사내에게는 덜 어렵다.

78 시도의 기술. 어리석음은 늘 불쑥 뛰어든다. 어리석은 자는 모두 뻔뻔하기 때문이다. 그 단순함이 먼저는 걸림돌을 알아채지 못하게 막고, 나중에는 무안을 당해도 아픈 줄 모르게 한다. 그러나 슬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더듬어 들어간다. 살핌과 조심이 척후병이 되어 앞길을 밝혀

나가니, 위험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모든 무모함에 사려(discreción)는 추락을 선고한다. 행운이 때로 사면해 주기는 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어 두려운 곳에서는 멈칫멈칫 가야 한다. 영민함이 앞서 더듬고 분별이 한 걸음씩 땅을 얻게 하라. 오늘날 사람 사이의 교제에는 큰 모래톱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늘 추를 드리워 물 깊이를 재며 나아가야 한다.

79 유쾌한 천성. 절제만 곁들이면 흠이 아니라 자질이다. 익살 한 알이 모든 것에 간을 맞춘다. 가장 큰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호의를 사는 익살이라는 패를 쓴다. 다만 언제나 슬기에 걸맞은 풍모를 지키고, 체통에 먼저 예를 갖춘다. 어떤 이들은 재담 한마디를 곤경에서 벗어나는 지름길로 삼으니, 농담으로 받아넘겨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상대가 가장 진지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익살은 온화함을 드러낸다. 마음을 낚는 갈고리다.

80 전해 들을 때는 주의하라. 사람은 대개 전해 들은 것으로 산다. 제 눈으로 보는 것은 가장 적고, 남의 말을 믿고 산다. 귀는 진실에게는 뒷문이고 거짓에게는 정문이다. 진실은 대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은 드물며, 제 순수한 바탕 그대로 오는 일도 드물어서, 멀리서 올수록 더욱 그러하고, 거쳐 온 감정들에게서 늘 무엇인가 섞여 묻어 온다. 격정은 미워하든 편들든 닿는 것마다 제 빛깔로 물들인다. 격정은 늘 제 인상을 새기려 든다. 칭찬하는 사람은 크게 조심하고, 헐뜯는 사람은 더 크게 조심하라. 이 대목에서는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이에 끼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속셈을 찾아내고, 그가 어느 발로 움직였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 되새겨 보는 일이 빠진 것과 거짓된 것을 가려내는 저울이 되게 하라.

81 제 빛남을 새롭게 하라. 불사조의 특권이다. 뛰어남도 늙기 마련이고, 명성도 함께 늙는다. 익숙해지면 감탄이 줄고, 평범한 새것이 늙어 버린 최고의 탁월을 이기곤 한다. 그러니 용기에서, 재치에서,

행운에서, 모든 것에서 다시 태어나라. 늠름한 새로움에 자신을 걸고 해처럼 여러 번 떠오르며 빛낼 무대를 바꾸어, 떠나온 곳에서는 없어진 아쉬움이 그리움을 부르고 새로 선 곳에서는 새로움이 갈채를 부르게 하라.

82 선도 악도 끝까지 몰아가지 말라. 어느 현자[2]는 온 지혜를 모든 일의 절도 하나로 간추렸다. 지극한 법은 불의가 되고[,3], 오렌지도 너무 짜면 쓴맛이 난다. 즐거움에서도 결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재치도 끝까지 짜내면 마르고, 폭군처럼 쥐어짜는 사람은 젖 대신 피를 짜낸다.

83 가벼운 실수 하나쯤은 허락하라. 소홀함 하나가 때로는 자질을 가장 잘 추천해 주기 때문이다. 시샘에게도 저만의 도편추방이 있어서, 죄가 무거울수록 더 점잖은 얼굴을 한다. 너무 완전한 것을 두고 죄짓지 않는 것이 죄라고 고발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아주 좋은 것의 흠을 찾을 때는 아르고스[4]가 된다.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비난은 벼락처럼 가장 높이 솟은 돋보임을 친다. 그러니 호메로스도 때로는 졸게 하고[,5], 재치나 용기에서는 소홀한 척도 해 보되 슬기에서만은 결코 그러지 말아서, 적의를 달래 독을 품고 터지지 않게 하라. 시샘이라는 소에게 망토를 던져 주고 불멸을 건지는 셈이다.

84 적을 쓸 줄 알라. 모든 것은 다치게 할 칼날 쪽이 아니라 지켜 줄 칼자루 쪽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경쟁심은 더욱 그렇다. 어리석은 자가 벗에게서 얻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내가 적에게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총애라면 손대기를 망설였을 어려움의 산을 적의가 평지로 만들곤 한다. 많은 이의 위대함을 지어 준 것은 그를 미워한 자들이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사납다. 아첨이 덮어 주는 흠을 증오는 확실하게 고쳐 주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앙심을 거울로 삼는다. 애정이 비추는 거울보다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헐뜯는 말이 나오기 전에 흠을

미리 막거나 고친다. 경쟁심이나 적의와 국경을 맞대고 살 때는 조심이 커지는 법이다.

85 말리야[6]가 되지 말라. 많이 쓰이다가 마침내 함부로 쓰이게 되는 것이 뛰어난 것들의 흠이다. 모두가 탐내다 보니 결국 모두를 질리게 한다. 아무 데도 쓸모없는 것은 큰 불행이다. 어디에나 쓰이려 드는 것도 그 못지않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얻으려다 잃고, 앞서 바람을 받던 만큼 뒤에는 미움을 받는다. 온갖 완전함에서 이런 말리야들이 닳아 해진다. 드물다는 처음의 존중을 잃고, 흔하다는 업신여김을 얻는다. 모든 극단의 유일한 처방은 빛남에서 중간을 지키는 것이다. 넘침은 완전함에 두고, 절제는 드러냄에 두어야 한다. 횃불은 밝게 탈수록 더 빨리 닳고 더 짧게 간다. 겉으로 아낀 것은 존중이라는 이자로 돌아온다.

86 나쁜 소문을 미리 막으라. 범속한 무리는 머리가 많으니, 악의를 품은 눈도 많고 헐뜯는 혀도 많다. 그 무리 사이에 나쁜 소문 하나가 돌아 가장 큰 신용에도 흠을 내는 일이 있고, 그것이 범속한 별명으로 굳으면 명망은 끝장난다. 대개는 눈에 띄는 무안이나 우스운 흠이 빌미가 되어 뒷공론에서 갈채받는 거리가 되지만, 어느 한 사람의 경쟁심이 일부러 지어내 범속한 악의에 던져 주는 흠도 있다. 적의의 입이 따로 있어서, 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 대놓고 하는 욕설보다 농담 한마디가 더 빠르다. 나쁜 명성은 얻기가 아주 쉽다. 나쁜 것은 잘 믿기고 지우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슬기로운 사내는 이런 무안을 피하고, 주의로 범속한 무례에 맞서야 한다. 고치는 것보다 막는 것이 쉽다.

87 교양과 단정함. 사람은 야만인으로 태어나, 자신을 갈고닦아 짐승에서 벗어난다. 교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클수록 더욱 그렇다. 그리스는 교양을 믿고 나머지 온 세상을 야만이라 부를 수 있었다. 무지는 몹시 거칠다. 앎만큼 사람을 가꾸는 것은 없다. 그러나

지혜조차 다듬지 않으면 투박하다. 생각하는 것만 다듬을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도 다듬어야 하고, 말을 나누는 것은 더욱 다듬어야 한다. 타고나기를 단정한 사람들이 있으니, 안팎이 다 아름다워서 생각과 말에서, 나무껍질과 같은 몸의 차림새에서, 열매와 같은 영혼의 자질에서 모두 단정하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너무 투박해서, 제 모든 것을, 때로는 탁월한 점까지도 참을 수 없이 야만스러운 지저분함으로 빛바래게 했다.

88 교제는 크게 하고, 그 안에서 높음을 꾀하라. 큰 사내는 처신이 잘아서는 안 된다. 일을 너무 시시콜콜 따져서는 안 되고 달갑지 않은 일은 더욱 그러하니, 무심한 듯 모든 것을 알아채는 것은 이점이지만 일부러 모든 것을 캐내려 드는 것은 이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귀족다운 대범함으로 처신해야 한다. 그것이 아량의 한 가지다. 모른 체하는 것이 다스림의 큰 몫이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넘겨야 한다. 집안사람 사이에서, 벗 사이에서, 적 사이에서는 더욱. 지나친 꼼꼼함은 모두 짜증스럽고, 성품이 그러면 견디기 힘들다. 언짢은 일에 자꾸 들락거리는 것은 일종의 광증이다. 대개 사람의 처신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릇을 그대로 닮는다.

89 자기를 아는 일. 천성과 재치에서, 소견과 감정에서. 먼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비추는 거울은 있어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없다. 자기를 사려 깊게 돌아보는 일이 그 거울이 되게 하라. 바깥 모습은 잊더라도 속 모습은 간직하라. 바로잡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다. 일을 벌이려면 제 슬기와 묘수의 힘을 알고, 일에 몸을 던지려면 제 성내는 힘을 가늠해 보라. 모든 일에 앞서 제 깊이를 재고 제 밑천을 달아 두라.

90 오래 사는 기술은 잘 사는 것이다. 목숨을 일찍 끝내는 것이 둘 있다. 어리석음과 비열함. 어떤 이는 지킬 줄 몰라서, 어떤 이는 지킬

마음이 없어서 목숨을 잃었다. 덕이 제 자신의 상이듯, 악덕은 제 자신의 벌이다. 악덕 속에서 서둘러 사는 사람은 두 갈래로 일찍 끝나고, 덕 속에서 서둘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마음의 올곧음은 몸에도 옮아간다. 좋은 삶은 깊이에서만이 아니라 길이에서도 길게 여겨진다.

91 늘 무분별의 꺼림칙함 없이 행하라. 실행하는 사람에게 실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확신이다. 지켜보는 사람이 맞수라면 더욱 그렇다. 격정이 뜨거울 때부터 소견이 꺼림칙해한다면, 나중에 격정이 식으면 명백한 어리석음이라고 판결할 것이다. 분별이 의심스러운 행동은 위험하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슬기는 개연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언제나 이성의 빛이 한낮일 때 걷는다. 품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경계심이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어찌 잘될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서 반대 하나 없이 통과한 가장 높은 결단도 흔히 불행하게 끝나는데, 이성에서 비틀거리며 시작하고 소견에게서 흉한 점괘를 받은 결단은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92 두루 미치는 지각. 모든 일에서 말이다. 행동과 말의 첫째이자 으뜸가는 규칙이며, 직분이 크고 높을수록 더욱 당부되는 규칙이다. 묘수 몇 짐보다 슬기 한 톨이 낫다. 갈채는 덜 받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 그러나 슬기롭다는 명망은 명성의 개선 행진이니, 그 한 표가 성취를 가리는 시금석인 슬기로운 사람들만 만족시키면 충분하다.

93 두루 갖춘 사람. 온갖 완전함으로 이루어져 여러 사람 몫을 한다. 삶을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그 즐거움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완전함을 갖춘 다채로움은 삶의 즐거운 소일거리다. 좋은 것을 모두 얻을 줄 아는 것은 큰 기술이니, 자연이 사람을 뛰어나게 지어 자연 만물의 요약으로 만들었다면, 기술은 안목과 지성을 닦고 가꾸어 사람을 하나의 우주로 만들라.

94 다 헤아릴 수 없는 밑천. 주의 깊은 사내가 모든 사람의 우러름을 받고 싶다면, 앎이든 값어치든 남이 제 바닥을 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알게는 하되, 다 헤아리게 하지는 말라. 누구도 그 그릇의 끝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라. 깨어남(desengaño)의 위험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밑천은 아무리 크더라도 훤히 드러날 때보다 어디까지 닿는지 짐작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우러름을 낳으니, 누가 그 전부를 알아챌 틈은 결코 주지 말라.

95 기대를 붙들어 둘 줄 알라. 늘 먹이를 주어 키우라. 많이 보여 준 것이 더 많은 것을 약속하게 하고, 가장 좋은 행동으로 더 큰 판돈을 걸라. 첫판에 남은 판돈을 모두 걸어서는 안 된다. 힘에서도 앎에서도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이룬 것을 조금씩 앞으로 내놓아 가는 것이 큰 수다.

96 큰 양식(良識, sindéresis). 이성의 옥좌요 분별의 주춧돌이니, 그것만 믿으면 맞히기가 어렵지 않다. 하늘이 내린 운수이고, 가장 먼저이자 가장 좋은 것이기에 가장 바라는 운수다. 그것은 갑옷의 첫 조각이어서 그 절실함이 대단하니, 다른 어떤 조각이 없어도 모자란 사람이라 불리지 않지만 이것만은 모자라면 더 눈에 띈다. 삶의 모든 행동이 그 힘에 달려 있고, 모두 그 인정을 구한다. 모든 일은 지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치에 가장 맞는 것을 향하는 타고난 기울기이며, 언제나 가장 옳은 것과 짝을 맺는다.

97 명망을 얻고 지키라. 명망은 명성의 열매를 누리는 일이다. 얻기는 무척 어렵다. 탁월에서 나오는데, 탁월은 평범이 흔한 만큼 드물기 때문이다. 일단 얻으면 지키기는 쉽다. 많은 의무를 지우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 그 원인과 영역이 높아 우러름에까지 이르면 일종의 존엄이 된다. 그러나 언제나 값어치가 있었던 것은 알맹이 있는 명망이다.

98 의지를 암호로 감추라. 격정은 마음에 난 샛문이다. 가장 쓸모 있는 앎은 감추는 데 있다. 패를 다 펴 보이고 노는 사람은 질 위험을 안는다. 눈 밝은 사람의 주의에는 조심스러운 사람의 삼감으로 맞서라. 스라소니 같은 추론에는 먹물 뿜는 갑오징어 같은 속내로. 제 입맛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어떤 이는 반대하려고, 어떤 이는 아첨하려고 미리 손을 쓰지 못한다.

99 실제와 겉모습.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통한다.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물고, 겉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다. 얼굴에 악의가 보이면 옳은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100 깨어난 사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요 철학하는 궁정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는 말고, 그런 척은 더더욱 하지 말라. 철학하는 일은 신용을 잃었다. 현자들의 가장 큰 일인데도. 슬기로운 사람들의 학문은 권위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세네카[7]가 로마에 들여왔고, 한동안 궁정에서 대접받았으나, 이제는 주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깨어남은 언제나 분별의 먹이요 올곧음의 즐거움이었다.

101 세상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비웃으니, 모두가 어리석다. 누가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좋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기도 하다. 이 사람이 좇는 것을 저 사람은 쫓아낸다. 모든 것을 제 헤아림으로 재려는 자는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다. 완전함은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입맛은 얼굴 수만큼 많고 얼굴만큼 가지가지다. 아끼는 사람 없는 흠은 없다. 어떤 이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담할 일이 아니니 그것을 높이 치는 다른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갈채에 우쭐할 일도 아니니 또 다른 이들이 그것을 나무랄 것이다. 참된 만족의 기준은 명망 있는 사내들, 그 분야에서 한 표를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다. 사람은 한 표로만, 한 가지 풍속으로만, 한 시대로만 살지 않는다.

102 운이 주는 큰 덩어리를 삼킬 위장. 분별이라는 몸에서 큰 밥통은 결코 하찮은 부분이 아니다. 큰 그릇은 큰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더 큰 행운을 받을 만한 사람은 좋은 행운에 체하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물리도록 배부른 것이 다른 이에게는 허기다. 본성이 좁아서, 그렇게 높은 직분에 길들지도 않고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아서, 아무리 귀한 음식도 탈이 나는 사람이 많다. 교제가 시큼하게 상하고, 덧붙인 영예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큰 위험에 처한다. 운수가 그들 안에 담기지 않으니, 그들도 제 안에 담기지 못하고 들뜬다. 그러니 큰 사내는 더 큰 것을 담을 여유가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고, 좁은 마음을 내비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각별히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

103 저마다 제 나름의 존엄을. 모든 행동이 왕의 행동은 아니더라도, 제 영역에 맞게 왕에게 걸맞은 것이 되게 하라. 슬기로운 운수의 테두리 안에서 왕답게 처신하라. 행동은 높이, 생각은 멀리. 모든 일에서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공로로는 왕의 모습을 보이라. 참된 군주다움은 품행의 올곧음에 있기 때문이다. 위대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함을 시샘할 까닭이 없다. 특히 옥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높음을 조금이라도 몸에 묻혀, 허영의 의례보다는 존엄의 자질을 나누어 받고, 부풀린 겉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알맹이의 돋보임을 갖추어야 한다.

104 직분의 맥을 짚어 두라. 직분은 가지가지다. 그것을 아는 일은 대가의 앎이고 주의가 든다. 어떤 직분은 용기를, 어떤 직분은 묘수를 요구한다. 곧음에 달린 직분은 다루기 쉽고, 꾸밈에 달린 직분은 다루기 어렵다. 앞의 것에는 좋은 본성 하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뒤의 것에는 온 주의와 밤잠을 쏟아도 모자란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고되고, 미친 자나 어리석은 자를 다스리는 일은 더욱 그렇다. 지각 없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지각이 곱절로 있어야 한다. 사람 하나를 통째로 요구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이 늘 같은 직분은 견딜 수 없다. 다채로움과 무게를 아울러 지루함이 없는 직분이 낫다. 번갈아 바뀌면 입맛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가장 권위 있는 직분은 남에게 덜 기대거나 멀리서만 기대는 직분이고, 가장 나쁜 직분은 마침내 사람의 심사[8]에서, 더욱이 신의 심사에서 진땀을 흘리게 하는 직분이다.

105 남을 지치게 하지 말라. 한 가지 일만 붙드는 사람, 한 가지 말만 되뇌는 사람은 대개 따분하다. 짧음은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일도 더 잘 풀리게 한다. 짧아서 잃는 것을 공손해서 번다. 좋은 것은 짧으면 두 배로 좋고, 나쁜 것도 적으면 그리 나쁘지 않다. 잡동사니 더미보다 정수 몇 방울이 더 많은 일을 한다. 긴 사람이 똑똑한 일은 드물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니, 몸의 생김새보다는 말의 짜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상의 장식보다는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발로 밀어 치우는, 주인 잃은 세간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하며, 바쁘게 사는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하니, 그런 사람 하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이 나머지 온 세상을 거스르는 것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잘한 말은 빨리 끝난다.

106 운을 뽐내지 말라. 사람을 내세우는 것보다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더 거슬린다. 잘난 사람 행세는 밉살스럽다. 시샘받는 것만으로도 넉넉했을 텐데. 존중은 찾을수록 덜 얻어진다. 존중은 남의 존경에 달려 있으니, 스스로 차지할 수는 없고 남의 존중을 받을 만하게 되어 기다려야 한다. 큰 직분은 그 일에 걸맞은 권위를 요구하니, 권위 없이는 직분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제 의무의 알맹이를 다하는 데 마땅한 만큼의 권위를 지키라. 쥐어짜지 말고 거들어 주라. 직분에서 일 많은 척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리를 받을 만하지 않았고 지위가 덧대어진 것임을 내비친다. 무엇에 기대야 한다면 굴러온 것보다 제 자질의

탁월에 기대야 하니, 왕조차 바깥에서 얻힌 군주다움보다 제 몸에 지닌 군주다움으로 더 우러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7 제 만족을 드러내지 말라. 불만 속에 살지도, 만족 속에 살지도 말라. 앞의 것은 소심함이고 뒤의 것은 어리석음이다. 자기만족은 대개 무지에서 나와 어리석은 행복으로 끝난다. 그 행복은 즐거움은 달래 주어도 신용은 지켜 주지 못한다. 남에게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함을 알아보지 못하니, 제게 있는 범속한 평범에 흡족해한다. 경계심은 슬기로울 뿐 아니라 언제나 쓸모가 있었다. 일이 잘되도록 대비하게도 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미 두려워하던 사람에게는 운수가 안기는 무안이 새삼스럽지 않다. 호메로스도 때로는 졸고, 알렉산드로스도 제 자리와 제 착각에서 떨어진다. 일은 많은 형편에 달려 있어서 어떤 자리, 어떤 때에 이긴 것이 다른 때에는 실패하지만, 어리석음을 고칠 수 없는 까닭은 가장 헛된 자기만족이 꽃으로 피어나 그 씨앗이 늘 다시 움트는 데 있다.

108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남의 곁에 설 줄 아는 것이다. 교제의 힘은 아주 크다. 습관도 옮고 입맛도 옮는다. 천성은 물론 재치까지도 모르는 사이에 옮아 붙는다. 그러니 성급한 사람은 자제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라. 다른 기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억지 없이 절제를 얻는다. 자신을 알맞게 누그러뜨릴 줄 아는 것은 큰 솜씨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번갈아 드는 것이 우주를 아름답게 하고 떠받치니, 그것이 자연에서 조화를 낳는다면 도덕에서는 그보다 더 큰 조화를 낳을 것이다. 곁을 지키는 벗과 곁에서 부리는 사람을 고를 때 이 수완 있는 깨우침을 쓰라. 양 끝이 서로 오가면 아주 사려 깊은 중간이 맞추어진다.

109 남을 죄인으로 몰지 말라. 사나운 천성을 타고나 무엇이든 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격정 때문이 아니라 본성이 그렇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어떤 이는 했다고, 어떤 이는 할 것이라고. 잔인함보다

더 나쁜 비열한 마음을 드러낸다. 어찌나 부풀려 죄를 씌우는지 티끌을 들보로 만들어 남의 눈을 찌르고[9], 가는 곳마다 노예선 감독[10]이 되어 엘리시온[11]이 될 수도 있었던 곳을 노예선으로 만든다. 격정까지 끼어들면 모든 것을 극단으로 만든다. 반대로 선량한 마음은 무엇에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 준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아니면 미처 몰랐다고.

110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일에게 버림받기 전에 일을 버리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들의 격률이다. 끝나는 일조차 개선 행진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니, 해도 때로는 한창 빛날 때 구름 뒤로 물러나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졌는지 아직 안 졌는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남겨 둔다. 무안을 당해 터지지 않도록 저무는 때를 몸을 틀어 피하라.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아픔을 느끼기에는 산 채로, 존중받기에는 죽은 채로 묻힐 것이다. 눈 밝은 사람은 경주마를 제때 은퇴시킨다. 달리다 쓰러져 경주 한복판에서 웃음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거울을 제때 꼬 있게 깨뜨려야 한다. 나중에 거울 앞에서 깨어나 참지 못하고 깨뜨리지 말고.

111 벗을 두라. 벗은 또 하나의 존재다. 벗은 모두 벗에게 좋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벗 사이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사람의 값어치는 남들이 바라는 만큼이다. 남들이 바라게 하려면 마음을 얻어 그 입을 얻어야 한다. 좋은 섬김만 한 마법은 없고, 우정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우정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많고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달려 있다. 벗과 살든 적과 살든, 어느 한쪽과는 살아야 한다. 날마다 막역한 벗까지는 아니어도 애정을 품은 사람 하나씩은 얻으려고 애써야 하니, 그중 몇은 고르는 눈이 맞으면 나중에 속을 터놓는 벗으로 남는다.

112 으뜸가는 첫째 원인조차 가장 큰 일에서는 미리 마련하고 갖추어 두는 경건한 애정을 얻으라. 감정을 거쳐야 남의 헤아림 속에 들어선다.

어떤 이들은 제 값어치를 너무 믿어 부지런함을 얕보지만, 주의 깊은 사람은 공로만으로 가는 길이 총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크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 호의는 모든 것을 쉽게 하고 모자란 것을 채운다. 자질을 늘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얹어 준다. 용기, 올곧음, 지혜, 사려까지도. 추한 것은 결코 보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애정은 대개 천성, 민족, 혈연, 고향, 직분 같은 바탕이 서로 맞는 데서 생긴다. 자질, 의리, 명망, 공로 같은 격이 맞는 데서 생기는 애정은 더 높다. 어려운 것은 얻는 일뿐이다. 지키기는 쉽다. 애써 얻을 수 있고, 얻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

113 운이 좋을 때 나쁠 때를 대비하라. 여름에 겨울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고, 그때가 더 수월하다. 그때는 총애가 값싸고 벗도 넘친다. 궂은 때를 위해 아껴 두면 좋다. 역경에는 모든 것이 비싸고 모든 것이 모자란다. 벗과 은혜 입은 사람을 예비로 남겨 두라. 지금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언젠가는 귀히 여길 날이 온다. 천한 사람에게는 벗이 없다. 잘나갈 때는 제가 벗을 모른 체하고, 어려울 때는 벗이 그를 모른 체한다.

114 결코 다투어 겨루지 말라. 맞서는 자가 있는 노림은 모두 신용을 해친다. 경쟁은 상대의 빛을 가리려고 곧 금박부터 벗기려 든다. 깨끗하게 싸우는 사람은 드물다. 예절이 잊어 준 흠을 경쟁심이 들추어낸다. 많은 이가 맞수가 없는 동안에는 신용을 누리며 살았다. 맞섬의 열기는 꺼져 가는 추문에 불을 지피거나 죽은 추문을 되살리고, 지난날의 악취와 조상 대의 악취까지 파낸다. 경쟁은 흠을 늘어놓는 데서 시작하고, 할 수 있으나 해서는 안 될 온갖 것의 힘을 빌린다. 모욕은 때로, 아니 대개는 쓸모 있는 무기가 못 되지만, 경쟁은 그것으로 제 복수심을 천하게 채우고, 그 복수를 어찌나 세차게 휘두르는지 지난

무안들에 앉은 망각의 먼지까지 털어 낸다. 호의는 언제나 평화로웠고, 명망은 언제나 너그러웠다.

115 서로 기대어 사는 곳에서는 이로우니, 가까운 사람의 나쁜 성품에도 못난 얼굴에 그러듯 익숙해지라. 함께 살 수도 없고 없이 살 수도 없는 사나운 기질이 있다. 그러니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 솜씨다. 그래야 험한 일이 닥쳤을 때 새삼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섬뜩하지만 차츰 그 첫 끔찍함이 사라지고, 되새겨 보면 언짢은 일을 미리 막거나 견딜 수 있다.

116 늘 의리 있는 사람과 사귀라. 그런 사람에게는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신세를 지울 수도 있다. 그들의 의리 자체가 그들과 사귀는 데 가장 큰 보증이다. 다툴 때조차 그렇다. 그들은 제 됨됨이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낫다. 비열함은 올곧을 의무를 느끼지 않으니 비열함과는 좋은 교제가 없고, 그래서 비열한 자들 사이에는 참된 우정이 없으며, 정성도 명예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듯해 보일 뿐 순금이 아니다. 명예 없는 사람은 늘 멀리하라. 명예를 높이 치지 않는 사람은 덕도 높이 치지 않는다. 명예는 올곧음의 옥좌다.

117 결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를 추어올리면 허영이고, 깎아내리면 소심함이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슬기의 허물이요, 듣는 사람에게는 벌이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피해야 할 일이라면 여럿 앞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서는 더더욱 피해야 하니, 그런 자리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기만 해도 이미 어리석음으로 통한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도 슬기에 똑같이 해롭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가운데 하나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18 갈채받기에 넉넉한, 예절 바르다는 명성을 얻으라. 예절은 교양의 으뜸가는 부분이요 일종의 마법이어서 모든 사람의 호의를 사고, 무례는

모든 사람의 업신여김과 짜증을 산다. 무례가 오만에서 나오면 밉고, 투박함에서 나오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예절은 늘 모자라기보다 넘쳐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공정으로 떨어진다. 적 사이에서도 예절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지니, 그로써 용기가 드러난다. 값은 적게 들고 값어치는 크다. 남을 높이는 사람은 모두 높임을 받는다. 아량과 높임에는 남는다는 이점이 있다. 아량은 베푸는 사람에게, 높임은 높여 주는 사람에게 남는다.

119 미움을 사지 말라. 반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바라지 않아도 반감은 저절로 앞질러 온다. 어떻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적의는 은혜보다 먼저 온다. 해를 끼치는 데 성내는 힘은, 이익을 얻는 데 탐내는 힘보다 더 세고 더 빠르다. 어떤 이들은 남을 짜증 나게 하는 기질 탓에, 또는 늘 짜증 난 기질 탓에 일부러 모두와 사이가 틀어진다. 증오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나쁘게 헤아린 생각처럼 지우기 어렵다. 판단력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험담꾼은 미워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은 역겨워하고,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꺼리고, 유별난 사람은 내버려 둔다. 그러니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 집을 세우려는 사람은 남을 마음에 둔다[12].

120 세상 쓰임에 맞게 살라. 앎조차 유행을 따라야 하고, 앎이 쓰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르는 척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법도 즐기는 법도 때에 따라 바뀐다. 낡은 틀로 생각을 펼쳐서는 안 되고, 새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분야마다 우두머리들의 안목이 표를 던진다. 그때그때는 그 안목을 따라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탁월에 이르러야 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난 것이 더 나아 보여도 지금에 맞추어야 한다. 영혼의 차림새에서도 몸의 차림새에서도. 오직 선함에서만은 이 삶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덕은 언제나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말을 하는 일,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제 알아보는 이도 없고 다른 시대의 일처럼

보이며, 선한 사내들은 좋았던 옛 시절에 지어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사랑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도 유행하지 않고 본받는 이도 없다. 덕은 낯선 것으로, 악의는 흔한 것으로 여기다니, 우리 시대의 불행이 얼마나 큰가! 사려 깊은 사람은 바라는 대로 살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운수가 거절한 것보다 허락한 것을 더 낫게 여기라.

121 일 아닌 것을 일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들이 모든 것을 잡담거리로 만들듯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큰일로 만들어서, 늘 중대한 듯 말하고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툼거리나 비밀로 만든다. 언짢은 일 가운데 일부러 붙들어야 할 것은 거의 없다. 일부러 붙들었다가는 부질없이 휘말린다. 등 뒤로 넘겨야 할 것을 가슴에 품는 것은 앞뒤를 뒤바꾸는 일이다. 무엇인가였던 많은 일이 내버려 두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니던 일이 마음에 두자 큰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끝내기 쉽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약이 병을 만드는 일이 많다. 그냥 두는 것도 삶의 규칙으로 나쁘지 않다.

122 말과 행동의 위엄. 어디서나 넉넉히 자리를 차지하고, 미리 존경을 얻는다. 대화에도, 연설에도, 걸음걸이에도, 모든 것에 스며든다. 눈길에도, 바람에도.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승리다. 위엄은 어리석은 대담함에서도, 짜증스러운 너스레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뛰어난 천성에서 나고 공로가 거드는 품위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123 티 내지 않는 사람. 자질이 많을수록 티는 덜 낸다. 티 내기는 흔히 모든 자질에 범속한 흠이 된다. 남에게 짜증스러운 만큼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에게도 괴롭다. 마음 쓰는 일에 순교자로 살고, 빈틈없으려다 제 몸을 들볶기 때문이다. 탁월한 점조차 티를 내면 값어치를 잃으니, 자유로운 본성보다 꾸며 낸 억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언제나 꾸민 것보다 반가웠다. 티

내는 사람은 제가 티 내는 것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진다. 일을 잘할수록 공들인 흔적은 지워야 한다. 완전함이 본성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티 내기를 피하려다 티 내지 않는 티를 내어 도리어 티 내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 사려 깊은 사람은 제 공로를 아는 내색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무심함이 오히려 남의 주의를 깨운다. 모든 완전함을 제 안에 품고도 제 생각 속에는 하나도 품지 않는 사람은 두 번 탁월하다. 그는 거꾸로 난 길로 갈채의 끝에 이른다.

124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의 호의를 그만큼 얻은 이는 드물었고,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들의 호의라면 행복이다. 물러나는 사람에게 미지근한 것은 흔한 일이다. 이 애정의 상을 받을 길이 있다. 직분과 자질이 탁월하면 확실하고, 상냥하면 효험이 크다. 탁월하면 사람들이 기대게 되어, 그가 자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니, 어떤 이는 자리를 빛내고, 어떤 이는 자리가 빛내 준다. 뒤를 이은 사람이 못나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일 뿐이다.

125 녹색 책[13]이 되지 말라. 남의 추문에 마음을 쓰는 것은 제 명성이 닳아 없어졌다는 표시다. 어떤 이들은 남의 얼룩으로 제 얼룩을 씻지는 못해도 가리려 들거나,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어리석은 자들의 위안이다. 이런 자들은 입에서 악취가 난다. 도시의 오물이 흘러드는 하수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서는 많이 파헤칠수록 더 진흙투성이가 된다. 타고난 흠 하나쯤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드물다. 곧은 핏줄로든 곁가지로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허물은 알려지지 않는다. 주의 깊은 사람은 추문의 장부가 되는 일을 피해야 하니, 그것은 미움받는 치욕의 기둥이 되는 일이요, 살아 있어도 넋이 빠져 버린 사람이 되는 일이다.

126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고 나서 덮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감정도 봉해 두어야 하는데, 흠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차이가 있다. 영민한 사람은 저지른 잘못을 감추고, 어리석은 자는 저지를 잘못까지 미리 떠벌린다. 신용은 한 일보다 조심에 달려 있다. 정결하지 못하면 조심이라도 하라[14]. 큰 사람의 소홀함은 해와 달이 이지러질 때처럼 더 많은 눈이 지켜본다. 우정에도 예외를 두어 제 흠만은 벗에게 털어놓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나 여기서는 잊을 줄 알라는 삶의 또 다른 규칙에 기댈 수 있다.

127 모든 일에 활달함(despejo). 자질의 생명이요, 말의 숨결이요, 행동의 영혼이요, 돋보임 중의 돋보임이다. 다른 완전함은 본성의 장식이지만, 활달함은 완전함 자체의 장식이다. 생각을 펼칠 때조차 기림받는다. 그 대부분은 타고난 특권이고 공부에 빚진 것은 적어 가르침보다도 위에 있으며, 손쉬움을 넘어 늠름함으로 나아가고, 거침없음을 바탕에 깔고 완전함을 보탠다. 활달함이 없으면 모든 아름다움은 죽은 것이고, 모든 멋은 멋없음이다. 용기에도, 사려에도, 분별에도, 존엄 자체에도 두루 미친다. 일을 처리할 때는 수완 있는 지름길이요, 어떤 곤경에서든 점잖게 빠져나오는 길이다.

128 높은 기개. 영웅이 갖출 으뜸가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온갖 위대함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다. 안목을 돋보이게 하고, 마음을 키우고, 생각을 드높이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고, 존엄을 갖추게 한다. 어디에 있든 우뚝 솟고, 때로는 운수의 시샘에 눌려도 터져 나와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할 수 있는 일에서 억눌리면 의지에서라도 넓어진다. 큰 도량과 너그러움과 모든 영웅다운 자질이 높은 기개를 제 샘으로 안다.

129 결코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늘 신용을 떨어뜨린다. 동정을 불러 위안이 되기보다 격정에게 대담해질 본보기가 된다. 듣는 사람에게 같은

짓을 할 길을 열어 주고, 첫 번째 모욕을 알게 된 것이 두 번째 모욕의 핑계가 된다. 어떤 이들은 지난 모욕을 불평하여 다가올 모욕에 빌미를 주고, 구제나 위안을 바라다가 남의 고소해하는 마음을, 나아가 업신여김까지 부른다. 어떤 이에게 입은 은혜를 기려 다른 이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삼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수완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총애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총애를 청하는 일이요, 어떤 이들에게서 얻은 신용을 다른 이들에게 파는 일이다. 주의 깊은 사내는 무안도 흠도 결코 떠벌리지 말고 받은 존중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벗은 붙들어 두고 적은 붙들어 맨다.

130 행하고, 행한 것으로 보이게 하라.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통한다. 값어치가 있고 그것을 보일 줄 알면 두 번 값어치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치조차 이치다운 얼굴을 하지 않으면 우러름을 받지 못한다. 속는 사람이 눈 밝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속임이 이기고, 사물은 겉으로 판단된다. 보이는 것과 아주 다른 것들이 있다. 좋은 겉모습은 속에 있는 완전함을 가장 잘 추천해 준다.

131 성품의 아량. 영혼에도 늠름함이 있다. 정신의 씩씩함이니, 그 아량 있는 행동으로 마음이 아주 의젓해진다. 누구에게나 깃들지는 않는다. 큰 도량을 바탕에 깔기 때문이다. 그 첫째 일은 적을 좋게 말하고, 그보다 더 좋게 대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빛나는 것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이니,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더 낫게 써서, 복수가 가장 승리에 가까울 때 뜻밖의 너그러움으로 바꾼다. 이것은 수완이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의 꽃이기도 하다. 승리를 결코 티 내지 않는다. 아무것도 티 내지 않기 때문이다. 공로로 승리를 얻으면 선량한 마음이 그것을 감춘다.

132 다시 숙고하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상소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신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허락하든 더 낫게 고치든

시간을 벌라. 소견을 굳히고 다질 새 이유가 나타난다. 주는 일이라면, 선물은 서둘러 주는 즐거움보다 슬기를 믿고 줄 때 더 높이 쳐진다. 바라던 것은 언제나 더 높이 쳐졌다. 거절해야 한다면 거절하는 법을 궁리할 여유가 생기고, '아니'를 무르익혀 더 맛이 들게 할 수 있으며, 대개는 욕망의 첫 열기가 지나고 나면 식은 피로는 거절의 무안을 느끼지 않는다. 서둘러 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라. 서두르는 것은 상대의 주의를 따돌리려는 수다.

133 홀로 슬기롭기보다 모두와 함께 미치는 편이 낫다고 정치가들은 말한다. 모두가 미쳤다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고, 슬기가 홀로라면 광기로 여겨질 것이다. 흐름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때로는 모르는 것,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앎이다. 남과 함께 살아야 하고, 무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홀로 살려면 신을 많이 닮든지 짐승을 온전히 닮든지 해야 한다[15]. 그러나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눅이겠다. 홀로 미치기보다 여럿과 함께 슬기로운 편이 낫다. 어떤 이들은 망상에서 유별나고 싶어 한다.

134 삶에 필요한 것을 곱절로 갖추라. 삶을 곱절로 사는 일이다. 기댈 데가 하나뿐이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빼어나도 한 가지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곱절로 해야 하며, 이익과 총애와 즐거움의 근원은 더욱 그렇다. 달은 변하지 않는 것의 경계이고, 그 변덕은 두루 미친다. 깨지기 쉬운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은 더욱 그렇다. 무른 것에 맞서 예비를 두고, 좋은 것과 편한 것의 여건을 곱절로 하는 것을 삶의 기술의 큰 규칙으로 삼아야 하니, 자연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치기 쉬운 지체를 둘씩 주었듯, 기술은 기댈 것들을 둘씩 마련해야 한다.

135 어리석음과 짜증을 짊어지는 반대의 정신을 품지 말라. 슬기가 그에게 맞서 들고일어날 것이다. 무엇에나 어려움을 들이미는 것이 재치 있을 수는 있지만, 고집스러움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자들은 달콤한 대화를 잔싸움으로 만든다. 그래서 사귀지 않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적이 된다. 가장 맛있는 한 입에 걸린 가시가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데, 즐거운 시간에 끼어드는 반대가 바로 그 가시이니, 그들은 짐승 같은 데다 사나움까지 보태는 해로운 어리석은 자들이다.

136 일의 요점을 바로 잡고, 일의 맥을 곧장 짚으라. 많은 이가 쓸데없는 생각의 가지로, 지루한 말잔치의 잎사귀로 빠져, 일의 알맹이에는 닿지 못한다. 한 점을 두고 백 바퀴를 돌며 저도 지치고 남도 지치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가운데에는 끝내 이르지 못한다. 갈피를 잡을 줄 모르는 흐릿한 지성에서 나오는 버릇이다. 버려야 할 것에 시간과 참을성을 다 써 버리고, 정작 버려 둔 것에 쓸 참을성은 남지 않는다.

137 현자는 자기 자신으로 넉넉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가 제 모든 것이었고, 자기를 데리고 다니며 모든 것을 지니고 다녔다[16]. 두루 갖춘 벗 하나가 로마와 나머지 온 세상을 대신할 만하다면, 스스로 자기의 그런 벗이 되라. 그러면 홀로 살 수 있다. 제 헤아림보다 큰 헤아림도, 제 안목보다 큰 안목도 없다면 누가 아쉽겠는가? 오로지 자기에게만 기댈 것이다. 지고한 존재를 닮는 것이 지고한 행복이다. 그렇게 홀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짐승은 조금도 닮지 않고, 현자는 많이 닮고, 신은 온전히 닮을 것이다.

138 내버려 두는 기술. 공공의 바다든 집안의 바다든, 거칠게 일렁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람 사이의 교제에는 회오리가 일고 의지의 폭풍이 분다. 그럴 때는 잠시 비켜서는 안전한 항구로 물러나는 것이 슬기다. 약을 쓰면 병이 더 나빠지는 일이 많다. 저기서는 자연이, 여기서는 도덕이 제 일을 하게 두라. 지혜로운 의사는 처방할 줄 아는 만큼 처방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약을 쓰지 않는 데 기술이 더 있다. 범속한 회오리를 가라앉히려면 손을 떼고 저절로 가라앉게

두라. 지금 시간에 지는 것이 나중에 이기는 길이다. 샘물은 조금만 휘저어도 흐려지고, 맑히려 애쓴다고 다시 맑아지지 않으며, 그냥 두어야 맑아진다. 어지러운 일에는 흘러가게 두는 것보다 나은 약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139 무엇 하나 잘되지 않고 놀이를 바꾸어도 나쁜 운수는 바뀌지 않는 궂은날이 있으니, 그런 날을 알아보라. 두 판쯤 해 보면 알아채고 물러나야 한다. 오늘이 제 날인지 아닌지 살피면서. 지성에도 때가 있어서, 누구도 언제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생각이 잘 펼쳐지는 것도 편지 한 장 잘 쓰는 것처럼 행운이다. 모든 완전함은 제때에 달려 있고 아름다움도 늘 한창은 아니며, 사려도 제 자신을 배반하여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넘치니, 무엇이든 잘되려면 제 날을 만나야 한다. 어떤 날에는 모든 일이 틀어지듯, 어떤 날에는 모든 일이 덜 애써도 잘 풀린다.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다. 재치는 한창이고, 천성은 알맞게 누그러져 있고, 모든 것이 별의 도움을 받는다. 그럴 때는 그날을 잘 써서 티끌만큼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판단력 있는 사내는 한 번 본 우연만으로 나쁘다고, 또는 거꾸로 좋다고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앞의 것은 때를 잘못 만난 것이고 뒤의 것은 행운이었을 수 있다.

140 무엇에서든 좋은 점을 곧바로 찾아내라. 좋은 안목의 행운이다. 벌은 곧장 단것을 찾아가 꿀을 만들고, 독사는 쓴것을 찾아가 독을 만든다. 안목도 그래서, 어떤 안목은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떤 안목은 가장 나쁜 것으로 간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없고, 책이라면 생각해서 쓴 것이니 더욱 그렇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천성이 어찌나 불운한지, 완전함 천 가지 가운데서 하나뿐인 흠을 찾아내 그것을 헐뜯고 떠벌린다. 의지와 지성의 오물을 주워 모으는 이 자들은 흠과 결점을 잔뜩 적어 짊어지고 다니니, 그것은 묘수를 쓰는 일이라기보다 잘못 고른 눈에 내리는 벌이다. 그들은 고달프게 산다. 늘 쓴것을 먹고

불완전함을 꼴로 삼기 때문이다. 흠 천 가지 가운데서 우연히 떨어진 완전함 하나를 곧바로 찾아내는 다른 이들의 안목이 더 행복하다.

141 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남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면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별 쓸모가 없고, 대개 혼자만의 만족은 모두의 업신여김으로 벌을 받는다. 제게 흡족해하는 사람도 실은 모두에게 매인 몸이다. 말하면서 제 말을 듣고 싶어 하면 잘될 리 없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광기라면, 남 앞에서 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곱절의 광기다. 높은 분들의 흠은 버릇말을 달고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하는 말과, 듣는 사람을 두들겨 대는 그 "응?" 하는 소리. 말 한마디마다 동의나 아첨이 나오는지 귀를 세우니, 슬기로운 사람의 참을성을 바닥까지 짜낸다.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도 메아리를 달고 말하는데, 그들의 대화는 뽐냄이라는 굽 높은 신[17]을 신고 걸으니 말끝마다 어리석은 자의 "옳은 말씀!"이라는 짜증스러운 부축을 청한다.

142 상대가 먼저 나서서 좋은 편을 골랐다고 해서 오기로 나쁜 편을 들지 말라. 이미 지고 시작하는 셈이니, 결국 무안을 당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다. 나쁜 것으로는 결코 제대로 앙갚음하지 못한다.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한 것은 상대의 꾀였고, 뒤늦게 나쁜 것으로 맞선 것은 제 어리석음이었다. 행동으로 고집부리는 자는 말로 고집부리는 자보다 더 깊이 빠져든다. 말보다 행동에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반대하려고 진실을 돌아보지 않고, 다투려고 이로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고집쟁이들의 범속함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먼저 나서든지 뒤에라도 더 나은 쪽으로 옮기든지 하여 늘 격정이 아니라 이성의 편에 서니, 상대가 어리석은 자라면 바로 그 까닭에 방향을 바꾸어 반대편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제 편을 나쁘게 만든다. 상대를 좋은 편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그 편을 끌어안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버리게 하고, 그의 오기가 그를 벼랑으로 떨어뜨린다.

143 두 극단 모두 신용을 잃게 하니, 범속함을 피하려다 역설에 빠지지 말라. 무게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어리석음의 한 가지다. 역설은 처음에는 갈채받는 일종의 속임이어서, 새롭고 톡 쏘는 맛으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나중에 그토록 나쁘게 끝나는 것을 보고 깨어나면 크게 무안을 당한다. 일종의 눈속임이고, 나랏일에서는 나라를 망친다. 덕의 길로 영웅다운 경지에 이르지 못하거나 감히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설로 빠져, 어리석은 자들을 놀라게 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짐작이 옳았음을 증명해 준다. 역설은 소견이 절제를 잃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분별과 정반대다. 때로 거짓에 기대지 않더라도 적어도 불확실한 것에 기대니, 중요한 일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144 남의 뜻을 따라 들어가서 제 뜻을 안고 나오라. 이루어 내는 계략이다. 하늘의 일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스승들은 이 거룩한 꾀를 권한다[18]. 중요한 시치미이니, 남이 품은 이로움을 미끼로 삼아 그 의지를 낚으면 그는 제 뜻이 앞서간다고 여기지만 실은 남의 노림에 길을 터 줄 뿐이다. 생각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바닥에 위험이 깔린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첫마디가 으레 '아니'인 사람에게도 겨냥을 감추어야 한다. 그래야 허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채지 못한다. 반감이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충고는 두 번째 의도에 속하고, 두 번째 의도는 모두 묘수 중의 묘수다.

145 모든 것이 거기 와서 부딪히니,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말라. 아프다고 하소연하지도 말라. 악의는 늘 약한 데가 아파하는 곳을 친다. 발끈해 봐야 남의 놀이에 재미만 돋울 뿐이다. 나쁜 속셈은 사람을 펄쩍 뛰게 할 구실을 찾아다닌다. 아픈 데를 찾으려고 슬쩍 던지는 말로 찔러 보고, 생살에 닿을 때까지 천 가지로 떠본다. 주의 깊은 사람은 결코

알아챈 내색을 하지 말고, 제 몸의 것이든 물려받은 것이든 제 아픈 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운조차 때로는 가장 아플 곳을 다치게 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운은 늘 생살을 아프게 한다. 그러니 아프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앞의 것은 끝나도록, 뒤의 것은 오래가도록.

146 속을 들여다보라. 사물은 대개 보이던 것과 아주 다르다. 껍질을 넘어서지 못한 무지는 속까지 꿰뚫고 들어가면 깨어남으로 바뀐다. 거짓은 늘 모든 일에서 맨 먼저 와서, 끝없는 범속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끌고 다닌다. 진실은 늘 맨 나중에, 그것도 늦게, 시간과 함께 절뚝거리며 오니, 슬기로운 사람들은 모두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둘로 만들어 준 그 능력의 나머지 절반을 진실을 위해 남겨 둔다[19]. 속임은 아주 겉에 있어서, 겉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곧장 부딪힌다. 맞는 것은 제 속 깊이 물러나 산다. 그것을 아는 현자와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더 높이 쳐지기 위해서다.

147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때로 일깨워 줄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길 없는 어리석은 자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사람도 벗의 충고에는 자리를 내주어야 하고, 군주의 자리도 남의 말을 듣는 순함을 물리쳐서는 안 된다. 다가갈 수 없어서 구제할 길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 붙들지 못하니 벼랑으로 떨어진다. 가장 올곧은 사람도 우정에게는 문 하나를 열어 두어야 하니,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된다. 벗 하나에게는 거리낌 없이 충고하고 나무랄 수도 있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 벗을 이런 권위에 앉히는 것은 그에 대한 흡족함, 그리고 그의 신의와 분별을 높이 헤아리는 마음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아니 신용조차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심스레 닫아 둔

골방에는, 깨어나게 해 주는 바로잡음을 고맙게 여기고 높이 칠 만한 벗, 속을 터놓는 그 벗이라는 정직한 거울 하나를 두라.

148 사람다운 사람임을 내보이는 대화의 기술을 갖추라.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이보다 주의가 더 드는 일은 없다. 삶에서 가장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편지는 미리 생각해서 글로 하는 대화인데도 쓰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면, 사려를 그 자리에서 시험받는 평소의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혀에서 마음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현자[20]는 말했다. "말해 보라, 그대를 알고 싶으니." 어떤 이들은 대화에서 기술 없이 가는 것을 기술로 여긴다. 대화는 옷처럼 헐렁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주 가까운 벗 사이에서나 그렇다. 예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라면 대화는 더 알차야 하고, 그 사람의 알맹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잘 맞히려면 함께 말을 나누는 사람들의 천성과 재치에 맞추어야 한다. 말마다 트집 잡는 검열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문법학자 취급을 받는다. 남의 이치를 따지는 검사 노릇은 더욱 안 된다. 모두가 그를 피하고 말 섞기를 꺼릴 것이다. 말할 때는 사려가 웅변보다 중요하다.

149 화를 남에게 돌릴 줄 알라. 적의를 막을 방패를 두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들의 큰 수다. 실수에 대한 비난과 뒷공론이라는 뭇사람의 벌을 대신 뒤집어쓸 사람을 두는 것은, 악의가 생각하듯 무능해서가 아니라 한 수 위의 솜씨에서 나온다. 모든 일이 잘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는 머리[21], 불행이 날아와 꽂히는 과녁 하나를 두라. 그 값은 그 사람의 야심이 치른다.

150 제 것을 팔 줄 알라. 그 자체의 좋음만으로는 모자란다. 모두가 알맹이를 씹어 보거나 속을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달려간다. 남들이 가는 것을 보고 간다. 꾸밈의 큰

몫은 신용을 얹어 줄 줄 아는 데 있다. 때로는 기리라. 칭찬은 욕망을 부추긴다. 때로는 좋은 이름을 붙이라. 그것은 높여 주는 큰 수단이다. 다만 늘 티 내기를 감추어야 한다. 아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극을 받으니, 모두가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없다는 것이 욕망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일을 쉽다거나 흔하다고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속하게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드문 것을 문다. 안목에도 재치에도 더 입맛 당기기 때문이다.

---

1. 붙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모습으로 몸을 바꾸는 그리스 신화의 바다 노인.

2. 「무엇이든 지나치지 말라」「절도가 으뜸이다」처럼 고대 그리스 일곱 현인에게 돌려지는 격언을 가리킨다. 원문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3. 라틴어 격언 「지극한 법은 지극한 불의(summum ius summa iniuria)」(키케로 『의무론』 1.33). 원문은 「곧음(derecho)」과 「굽음(tuerto)」을 소리로 맞세운다.

4. 온몸에 눈이 백 개 달려 잠들 때도 몇 개는 뜨고 지켰다는 그리스 신화의 거인.

5. 호라티우스 『시학』 359행 「훌륭한 호메로스도 때로 존다」에서 온 말. 대가도 가끔 실수한다는 속담으로 쓰인다.

6. 17세기 스페인 카드놀이의 으뜸 패(malilla). 어느 패 대신으로도 쓰인다. 어디에나 끼어 쓰이다 값이 떨어지는 사람을 빗댔다.

7.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기원전 4년경~기원후 65년). 히스파니아의 코르도바에서 태어난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8. 레시덴시아(residencia). 스페인 제국에서 관리가 임기를 마치면 그 땅에 머문 채 받던 공식 감사와 심판.

9.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온 그림.

10. 노예선에서 채찍을 들고 노 젓는 죄수들을 부리던 감독(cómitre).

11.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죽은 뒤 사는 복된 들판.

12. 원문은 「집(casa)을 세우려는 사람은 남을 마음에 둔다(caso)」로, 두 낱말의 소리를 맞세운다.

13. 「아라곤의 녹색 책(Libro verde de Aragón)」. 16세기에 아라곤 귀족 가문들의 유대인 혈통을 적어 돌린 필사본으로, 남의 집안 흠을 들추는 장부의 대명사가 되었다.

14. 라틴어 격언 「정결하지 못하면 조심이라도(si non caste, tamen caute)」에서 온 말. 원문은 「정결한(casto)」과 「조심스러운(cauto)」의 소리를 맞세운다.

1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권 2장. 나라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자는 짐승이거나 신이라고 했다.

16. 그리스 일곱 현인의 하나인 프리에네의 비아스. 고향이 적에게 넘어가 모두 짐을 싸서 달아날 때 빈손으로 떠나며 「내 것은 모두 내가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고 전한다(키케로 『스토아 역설』 1.8).

17. 차핀(chapín). 17세기 스페인 여인들이 키를 높이려고 신던, 코르크 바닥을 두껍게 댄 신.

18. 예수회를 세운 이냐시오 데 로욜라(1491~1556)에게 돌려지는 영혼 인도의 격언 「남의 문으로 들어가 제 문으로 나오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19. 자연이 둘씩 준 귀를 가리킨다. 알렉산드로스는 고발을 들을 때 한쪽 귀를 손으로 막아 고발당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플루타르코스 『알렉산드로스전』 42).

20. 출처 미상. 흔히 소크라테스의 말로 전한다.

21. 원문은 「testa de yerros」. 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을 뜻하는 「testaferro(쇠머리)」를 비틀어, 「쇠(hierros)」 자리에 소리가 같은 「잘못(yerros)」을 넣었다.

잠언 151~225

151 미리 생각하라, 오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 여러 날 뒤를 위해. 가장 큰 대비는 대비할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미리 대비한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고, 채비를 갖춘 사람에게는 곤경이 없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생각을 미루어서는 안 되고 생각이 늘 앞서가야 하니, 가장 설익은 고비는 거듭 생각해 얻은 무르익은 판단으로 미리 막아 두라. 베개는 말 없는 시빌라[1]다. 일을 베고 자는 것이 일에 깔려 뜬눈으로 지새우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과를 찾는다기보다 핑계를 찾는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앞에도 뒤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옳은 길을 잡으려면 평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거듭된 숙고와 대비가 앞질러 살 힘을 준다.

152 자기를 빛바래게 할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그가 더 나아서든 더 못해서든. 완전함에서 앞서는 쪽이 존중에서도 앞선다. 상대는 언제나 주역을 맡고 자기는 조역을 맡으니, 혹 얼마간 값을 쳐 받더라도 그것은 상대가 먹다 남긴 부스러기다. 달은 홀로 있는 동안에는 별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빛나지만, 해가 뜨면 보이지 않거나 아예 사라진다. 자기를 가리는 사람 곁에 서지 말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 곁에 서라. 그렇게 해서 마르티알리스의 사려 깊은 파불라[2]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고, 못나거나 꾀죄죄한 시녀들 사이에서 빛났다. 그렇다고 곁에 둔 사람 탓에 옆구리를 앓아서도 안 되고, 자기 신용을 깎아 남을

높여서도 안 된다. 자기를 만들어 갈 때는 탁월한 사람들과 다니고, 다 만들어진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라.

153 큰 빈자리를 메우러 들어가는 일은 피하라. 굳이 나선다면 앞사람을 넘어설 자신이 있을 때만 하라. 앞사람과 겨우 같아지는 데도 곱절의 값어치가 든다. 뒤에 오는 사람이 자기를 아쉬워하게 할 만한 사람이면 그것이 책략이듯, 앞서 물러난 사람이 자기를 가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묘수다. 큰 빈자리는 메우기 어렵다. 지나간 것은 늘 더 나아 보였고, 앞사람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같아지는 것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질을 더 보태야 사람들의 헤아림 속에서 앞사람이 차지한 높은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154 쉽게 믿지도, 쉽게 마음을 주지도 말라. 무르익은 사람은 믿기를 더디 하는 데서 알아본다. 거짓말은 예사이니 믿는 일은 예사롭지 않게 하라. 가볍게 움직인 사람은 나중에 낯을 붉힌다. 그러나 남이 하는 말을 의심한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되니, 말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나 속은 자로 대하는 셈이어서 무례를 넘어 모욕이 되기 때문이다. 더 큰 해는 따로 있다. 믿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표지다. 거짓말쟁이에게는 두 가지 화가 있으니, 남을 믿지도 못하고 남에게 믿기지도 않는다. 듣는 사람은 판단을 미루는 것이 슬기롭고, 말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보증을 그 말의 출처에 미루면 된다. "쉽게 마음을 주는 것도 분별없음의 한 가지다." 말로도 거짓을 하지만 일로도 거짓을 하며, 일로 하는 속임이 더 해롭다.

155 격정에 빠지는 기술. 할 수만 있다면 분별 있는 성찰이 범속한 충동을 앞질러 막게 하라.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격정에 빠질 때의 첫걸음은 자기가 격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니, 그래야 감정을 다스리며 들어가 노여움이 필요한 데까지만 재어 보고 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이 높은 성찰을 지닌 채 노여움에 들어가고

노여움에서 나오라. 멈출 줄 알라, 제때 제대로. 달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추는 일이다. 광기의 고비에서 슬기를 지키는 것은 판단력의 큰 증거다. 지나친 격정은 모두 이성에서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이 노련한 주의가 있으면 이성을 짓밟는 일도, 양식(良識, sindéresis)의 경계를 넘는 일도 없다. 격정을 잘 다루려면 늘 주의의 고삐를 쥐고 가야 한다. 그러면 말 위에서 슬기로운 첫 사람[3]이, 어쩌면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156 골라서 사귄 벗. 벗은 사려로 시험하고 운으로 검증해야 하며, 의지뿐 아니라 지성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 골라야 할 일인데도 가장 마음을 덜 쓰는 일이다. 어떤 벗은 비집고 들어와서 생기고, 대부분은 우연히 생긴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벗으로 정의된다. 현자가 무지한 자와 뜻이 맞은 적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를 즐겨 찾는다고 해서 가깝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니, 그 사람의 그릇을 믿어서라기보다 그 익살이 주는 즐거운 한때 때문일 수 있다. 정실에서 난 우정이 있고 사통으로 난 우정이 있다. 사통의 우정은 쾌락을 위한 것이고, 정실의 우정은 좋은 성취를 많이 낳는다. 사람을 보고 사귄 벗은 적고, 운을 보고 사귄 벗은 많다. 벗 하나의 좋은 지성이 다른 많은 이의 선한 의지보다 더 쓸모 있다. 그러니 운수에 맡기지 말고 골라야 한다. 지혜로운 벗은 근심을 덜어 줄 줄 알고, 어리석은 벗은 근심을 실어 온다. 벗을 잃고 싶지 않거든 그들에게 너무 큰 운을 바라지도 말라.

157 사람을 잘못 보지 말라, 그보다 나쁘고 그보다 쉬운 착각은 없다. 값에 속는 편이 물건에 속는 편보다 낫다. 사람만큼 속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도 없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니, 사람의 기질을 꿰뚫고 사람마다 다른 기분을 가려내는 것은 큰 철학이다. 책을 공부해 두듯 사람도 공부해 두어야 한다.

158 벗을 쓸 줄 알라. 여기에도 사려의 기술이 있으니, 어떤 벗은 멀리 둘 때 좋고 어떤 벗은 가까이 둘 때 좋으며, 때로는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에는 좋지 않던 벗이 편지를 주고받기에는 좋다. 곁에 있을 때는 참을 수 없던 흠도 거리가 걸러 준다. 벗에게서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쓸모도 얻어야 한다. 벗은 선(善)의 세 성질, 다른 이들 말로는 존재의 세 성질[4]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이고, 선하고, 참되어야 한다. 벗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벗은 드물고, 고를 줄 모르면 더 드물어진다. 벗을 지킬 줄 아는 것은 벗을 만드는 것보다 큰일이다. 오래갈 벗을 찾으라. 처음에는 새 벗이라도 오랜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가장 좋은 벗은 단연 간이 잘 밴 벗이다. 겪어 보느라 소금 한 섬'[5]을 다 먹더라도. 벗 없이 사는 것만 한 사막은 없다. 우정은 좋은 것을 불리고 나쁜 것을 나누며, 사나운 운에 맞서는 하나뿐인 약이요 영혼이 숨 돌릴 곳이다.

159 어리석은 자를 참을 줄 알라. 현자는 늘 참을성이 모자랐다. 지식을 더하는 사람은 조바심도 더하기[6]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만족시키기 어렵다. 에픽테토스'[7]에 따르면 삶의 가장 큰 규칙은 참는 것이고, 그는 지혜의 절반을 여기에 모았다. 어리석음을 모두 견뎌야 한다면 참을성이 무척 많이 들 것이다. 때로는 가장 많이 기대는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참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연습에 요긴하다. 참음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평화가 나고, 그 평화가 이 땅의 행복이다. 참을 기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물러나 숨을 일이다. 자기 자신만큼은 견딜 수 있다면 말이다.

160 주의 깊게 말하라, 맞수에게는 경계하느라, 다른 이에게는 품위를 지키느라. 말을 내보낼 시간은 언제나 있지만, 거두어들일 시간은 없다. 유언장을 쓰듯 말해야 한다. 말이 적을수록 송사도 적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중요한 일을 위해 연습해 두어야 한다. 감춤에는 신성의 빛이 어린다. 말이 헤픈 사람은 지기도 쉽고 설복당하기도 쉽다.

161 달콤한 흠을 알라. 가장 완전한 사람도 흠 몇 가지는 피하지 못하고, 그 흠과 혼인하거나 첩살림을 차린다. 재치에도 흠이 있고, 재치가 클수록 흠도 크다. 아니면 더 눈에 띄거나. 당사자가 그 흠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흠을 사랑해서다. 두 가지 화가 겹친다. 격정에 빠지는 것, 그것도 악덕에 빠지는 것. 그런 흠은 완전함에 찍힌 점이어서, 바깥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만큼 당사자의 귀에는 듣기 좋게 울린다. 여기서 자기를 이기고 다른 돋보이는 점들에 이 행복을 보태 주는 것이 늠름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걸려, 감탄하는 숱한 좋은 점을 기려야 할 때 눈에 걸리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는 그 흠을 다른 자질에까지 흠이 되는 것처럼 헐뜯는다.

162 경쟁심과 적의를 이길 줄 알라. 업신여김은 분별 있는 일이라 해도 이제는 모자라다. 아량이 더 낫다. 헐뜯는 사람을 좋게 말해 주는 일에는 아무리 갈채를 보내도 모자라다. 공로와 자질로 하는 복수보다 영웅다운 복수는 없다. 공로와 자질은 시샘을 이기고 시샘을 괴롭힌다. 행복 하나하나가 나쁜 감정을 묶은 밧줄을 한 번 더 죄는 일이요, 겨룸의 상대가 누리는 영광은 맞수에게 지옥이다. 남의 행복에서 독을 얻는 것, 이것을 가장 큰 형벌로 친다. 시샘하는 사람은 한 번에 죽지 않고 시샘받는 사람이 갈채의 함성 속에 살아 있는 횟수만큼 죽으니, 한쪽 명성의 영생과 다른 쪽의 영벌이 서로 겨룬다. 한쪽은 영광을 누리느라 죽지 않고, 다른 쪽은 고통을 겪느라 죽지 않는다. 명성의 나팔은 한 사람에게는 불멸을 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알리며, 시샘에 매달린 그를 목매달림의 형벌에 처한다.

163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다가 운 좋은 사람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이의 불운은 흔히 다른 이의 행운이니, 다른 많은 사람이

불운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 행운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으레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총애로 운의 냉대를 벌충해 주려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잘나갈 때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기울었을 때 모두에게 동정받는 것을 보았다. 높이 오른 사람에게 품던 복수심이 떨어진 사람에게 품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영민한 사람은 운수의 패가 어떻게 섞이는지 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불운한 사람하고만 다니며, 어제 운이 좋다고 피하던 사람을 오늘은 불행하다고 곁에 둔다. 그것은 때로 타고난 바탕이 고귀하다는 증거는 되어도 영민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164 몇 가지는 공중에 띄워 보라. 받아들여지는지 시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려는 것이다. 잘될지, 마음에 들지 미심쩍은 일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 잘 풀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밀고 나갈지 물러설지 정할 여지가 남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지를 떠보면 주의 깊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섰는지 알게 되니, 청할 때도 바랄 때도 다스릴 때도 이만한 대비가 없다.

165 깨끗하게 싸우라. 슬기로운 사람도 싸움에 떠밀릴 수는 있지만, 더러운 싸움에 떠밀리지는 않는다. 사람은 저마다 남이 떠미는 대로가 아니라 제 사람됨대로 행해야 한다. 경쟁심 속에서도 보이는 아량은 갈채받는다. 힘으로 이기려고만 싸울 것이 아니라 싸우는 품새로도 이겨야 한다. 비열하게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항복이다. 너그러움은 언제나 우월함이었다. 올바른 사람은 금지된 무기를 쓰지 않는다. 끝난 우정에서 얻은 무기를 갖 시작된 미움에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니, 믿고 맡긴 것을 복수에 써서는 안 된다. 배신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두 좋은 이름을 더럽힌다. 지킬 것이 많은 인물에게서는 티끌만 한 비천함도 더 낯설다. 고귀함과 비천함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아량과 너그러움과 신의가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제 가슴속에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

166 말의 사람과 행동의 사람을 가려내라. 벗을, 사람을, 직분을 가려내는 일처럼 이것도 더없이 정밀해야 한다. 이것들은 서로 크게 다르다. 좋은 말은 없되 나쁜 행동도 없는 것은 나쁘다. 나쁜 말은 없되 좋은 행동도 없는 것은 더 나쁘다. 바람일 뿐인 말을 먹고 살 수는 없고, 예절을 먹고 살 수도 없다. 예절은 예절 바른 속임이다. 등불로 새를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눈을 홀리는 일이다. 허영에 들뜬 사람은 바람을 받고도 흡족해하지만, 말은 행동의 담보여야 하고 그러니 그만한 값을 지녀야 한다. 열매는 맺지 않고 잎만 내는 나무는 대개 고갱이가 없다. 그런 나무도 알아 두어야 한다. 어떤 나무는 쓸모 때문에, 어떤 나무는 그늘 때문에.

167 스스로 도울 줄 알라. 큰 곤경에서 굳센 마음보다 좋은 길동무는 없고,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 가까이 있는 힘들이 그 몫을 메워야 한다. 자기를 부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고생이 줄어든다. 운에 굴복하지 말라. 굴복하면 운이 끝내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거의 돕지 못하고, 견딜 줄 몰라 고난을 곱절로 만든다. 자기를 이미 아는 사람은 숙고로 제 약함을 구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별에게서마저 이겨 나온다.

168 어리석음의 괴물이 되지 말라.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고집쟁이, 변덕쟁이, 제 생각에 갇힌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꾸며 대는 사람, 익살꾼, 새것에 들뜬 사람, 엉뚱한 소리를 즐기는 사람, 패를 가르는 사람, 그리고 절도 없는 온갖 사람이 다 그런 괴물이다. 모두 주책의 괴물이다. 마음의 기괴함은 모두 몸의 기괴함보다 흉하다. 더 높은 아름다움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록 흔한 어지러움을 누가 바로잡겠는가? 양식이 없는 곳에는 이끌어 줄 여지가 남지 않고,

남의 비웃음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자리에 상상 속 갈채를 두고 그릇되게 품은 자만이 들어앉는다.

169 백 번 맞히기보다 한 번 그르치지 않는 데 주의하라. 눈부신 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가려진 해는 모두가 쳐다본다. 범속한 입방아는 맞힌 것은 세지 않고 그르친 것만 센다. 선한 사람이 갈채로 알려지기보다 악한 사람이 험담으로 더 잘 알려진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서야 알려졌으며, 모든 성취를 다 모아도 아주 작은 흠 하나를 지우기에는 모자란다. 누구나 착각에서 깨어나 알아 두라. 적의는 나쁜 일은 모두 적어 두고 좋은 일은 하나도 적지 않는다.

170 모든 일에 예비를 남겨 두라. 그래야 자기의 무게를 지킨다. 가진 밑천을 다 써서는 안 되고 있는 힘을 매번 다 꺼내서도 안 되며, 앎에도 남겨 둔 몫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완전함을 곱절로 만드는 일이다. 일이 잘못될 고비에 기댈 곳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 구원군이 공격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값어치도 있고 신용도 주기 때문이다. 슬기는 언제나 안전한 쪽으로 나아갔다. 이런 뜻에서는 저 매콤한 역설도 참이다.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8].

171 총애를 헛되이 쓰지 말라. 큰 벗은 큰 고비를 위해 있다. 큰 신뢰를 작은 일에 써서는 안 된다. 호의를 허비하는 일이다. 신성한 닻[9]은 언제나 마지막 위험을 위해 아껴 둔다. 작은 일에 큰 것을 마구 쓰면 나중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힘이 되어 주는 사람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고 오늘날 총애만큼 귀한 것도 없으니, 총애는 세상에서 일을 이루기도 허물기도 하며 재치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자연과 명성이 현자에게 베푼 것을 운은 시샘했다.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고 붙들어 둘 줄 아는 것이 더 낫다.

172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맞붙지 말라. 기울어진 싸움이다. 상대는 부끄러움마저 잃고 왔으니 거리낌 없이 덤비고, 가진 것을 다 털어 버려

더 잃을 것이 없으니 온갖 주책에 몸을 던진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명망을 그토록 잔인한 위험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얻는 데 여러 해가 걸린 명망도 하찮은 체면 한 점 때문에 한순간에 잃는다. 무안 한 번이 빛나는 땀을 숱하게 얼려 버린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아 멈칫한다. 자기 신용을 살피다 보니 상대의 신용도 살피고, 주의하며 나서니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그 덕에 분별이 제때 물러나 신용을 안전한 곳에 거두어들일 시간을 얻는다. 이긴다 해도, 잃을 위험에 몸을 내놓은 순간 이미 잃은 것은 되찾지 못한다.

173 교제에서 유리처럼 굴지 말라. 우정에서는 더욱.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깨져 속이 무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서운함으로, 남들은 짜증으로 가득 채운다. 그 성품이 눈동자보다 여려서 농담으로도 진심으로도 건드릴 수 없다. 티끌 하나에도 상하니 탓할 거리까지 갈 것도 없다. 그런 사람과 사귀는 이는 늘 그 여린 데를 살피며 무척 조심해야 하고, 아주 가벼운 무안에도 언짢아하니 그들 앞에서는 바람결까지 살펴 주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대개 제멋대로이고, 제 입맛의 노예라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짓밟으며, 하찮은 제 체면을 우상처럼 섬긴다. 사랑하는 사람(amante)의 성품은 견디고 버티는 데서 그 절반이 금강석(diamante)이다.

174 서둘러 살지 말라. 일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일을 누릴 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삶은 남았는데 행복은 바닥난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그르쳐 놓고는, 한참 앞서가 버린 뒤에야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삶의 역마꾼이니, 누구에게나 흐르는 시간의 달음박질에 저마다 타고난 허둥거림까지 보탠다. 평생 걸려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을 하루에 삼키려 든다. 행복을 앞당겨 살며 다가올 해들을 먹어 치우고, 그렇게 서두르니 무엇이든 금세 끝장낸다. 알고 싶어 하는 데도 절도가 있어야 어설프게

알지 않는다. 날은 많고 행운은 적다. 누릴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서둘러. 공적은 해치우면 좋고, 즐거움은 해치우면 나쁘다.

175 알찬 사람. 알찬 사람은 알차지 않은 사람에게 흡족해하지 않는다. 알맹이 위에 서지 않은 탁월함은 불행하다. 사람처럼 보인다고 다 사람은 아니다. 속임수로 된 사람이 있으니, 망상으로 잉태해 사기를 낳는다. 그들과 닮은 사람들이 또 있어 그들을 떠받치는데, 이들은 속임수가 약속하는 불확실한 것은 많다고 더 좋아하고 진실이 보장하는 확실한 것은 적다고 덜 좋아한다. 결국 그들의 변덕은 탈이 난다. 올곧음이라는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명망은 오직 진실만이 줄 수 있고, 알맹이만이 쓸모가 된다. 사기 하나에는 다른 사기가 숱하게 필요하니, 건물 전체가 망상이고 허공에 세웠으니 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엉터리는 늙도록 가는 법이 없다. 약속하는 것이 많다는 것만 보아도 의심하기에 족하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176 알라, 아니면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지성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제 것이든 빌린 것이든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리석음의 흠은 고칠 길이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를 모르니 자기에게 모자란 것을 찾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현자라고 믿지만 않았어도 현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슬기의 신탁은 드문데도 하는 일 없이 지낸다. 아무도 물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조언을 구한다고 위대함이 줄지도 않고 그릇이 의심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조언을 잘 구하면 그릇이 신용을 얻는다. 이치로 다투라, 불운과 다투지 않으려면.

177 교제에서 허물없이 굴지 말라. 스스로 그렇게 굴지도 말고, 남이 그렇게 굴게 두지도 말라. 허물없이 구는 사람은 올곧음이 주던 우위를 곧 잃고, 이어서 존중도 잃는다. 별은 우리와 스치지 않으니 그 광채를

지킨다. 신성에는 체통이 따라야 하고, 인간다움은 무엇이든 업신여김을 부른다. 사람의 일은 많이 가질수록 하찮게 여겨지니, 가까이 나누다 보면 조심해서 가려 두던 불완전함까지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와도 허물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 윗사람과는 위험해서, 아랫사람과는 품위가 떨어져서 안 되고, 어리석어서 뻔뻔한 데다 베푼 총애를 총애로 알지 못한 채 당연히 받을 몫으로 여기는 천한 무리와는 더욱 안 된다. 헤픈 것은 범속함에서 뻗은 가지다.

178 마음을 믿으라. 검증된 마음이면 더욱. 마음이 하는 말을 거스르지 말라. 마음은 흔히 가장 중요한 일을 미리 알려 주는 집 안의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으로 죽었다. 그러나 손쓰지 않고 두려워만 해서 무엇에 쓰랴? 어떤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타고난 바탕 덕에 마음이 무척 충직해서, 그 마음이 늘 미리 일러 주고 불행이 다가오면 경종을 울려 손을 쓰게 한다. 화를 맞아들이러 나가는 것은 슬기가 아니다. 그러나 화를 이기려고 마주 나가는 것은 슬기다.

179 비밀을 지키는 힘은 그릇의 봉인이다. 비밀 없는 가슴은 펼쳐 놓은 편지다. 바닥이 깊은 곳에 깊은 비밀이 있으니, 그런 곳에는 중요한 것이 가라앉을 너른 품과 후미가 있다. 이 힘은 자기를 크게 다스리는 데서 나오며, 여기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다. 속을 털어놓은 상대의 수만큼 그들에게 공물[10]을 바친다. 분별의 건강은 안의 절제에 달려 있다. 비밀을 지키는 힘이 맞는 위험은 남의 떠보기이니, 비틀어 짜내려고 반박하기도 하고 가장 입이 무거운 주의 깊은 사람마저 튀어나오게 하려고 슬쩍 던지는 말[11]을 쓰기도 한다. 할 일은 말하지 말고, 말할 일은 하지 말라.

180 적이 할 법한 일에 맞추어 움직이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 이로운지 깨닫지 못하니 슬기로운 사람이 짐작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사려 깊은 사람은 간파당하고 대비까지 된 의도를 뒤집으려 할 것이니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은 양쪽에서 따져 보고 이쪽저쪽으로 뒤집어 보아, 지붕에 두 비탈을 내듯 마련해 두어야 한다. 생각은 사람마다 갖가지다. 어느 쪽에도 기울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라. 일어날 일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181 거짓말은 하지 말되, 참말을 다 하지도 말라. 진실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은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뽑는 일이다.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데도, 묻어 둘 줄 아는 데도 그만큼 솜씨가 든다. 거짓말 하나로 올곧음이 쌓은 신용을 모두 잃는다. 속은 사람은 모자라다는 말을, 속인 사람은 못됐다는 말을 듣는데, 못된 쪽이 더 나쁘다. 참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중요해서, 어떤 것은 남에게 중요해서다.

182 누구에게나 한 알의 대담함을 지니는 것은 중요한 슬기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눅여 두려워할 만큼 높이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며, 상상에 마음을 내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사귀어 보기 전까지는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겪어 보면 존중보다는 깨어남(desengaño)을 얻었다. 누구도 사람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이 하나씩 있다. 어떤 이는 재치에, 어떤 이는 천성에. 지위는 겉보기 권위를 줄 뿐 사람 자신의 권위가 따르는 일은 드무니, 운수는 흔히 직책의 높음을 공로의 낮음으로 앙갚음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언제나 앞질러 가서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린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것까지 품는다. 경험으로 깨어난 이성이 상상을 바로잡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음이 대담해서도, 덕이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단순함에게도 자신감이 도움이 되었다면, 값어치와 앎에게는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는가!

183 생각을 너무 굳게 움켜쥐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모두 제 생각에 갇혀 있고, 제 생각에 갇힌 자는 모두 어리석다. 소견이 그를수록 고집은

세다. 자기가 옳은 것이 뻔한 경우에도 물러서는 것이 선량한 마음이니, 그래도 그에게 이치가 있었음은 다들 알고 물러서는 아량은 다들 알아준다. 고집으로 버티다 잃는 것이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많다. 그것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례를 지키는 것이다. 설득하기 어려운 쇠머리가 있고 그 극단은 고칠 길이 없는데, 거기에 변덕과 제 생각에 갇힌 고집까지 겹치면 어리석음과 풀 수 없는 혼인을 맺어 버린다. 굳셈은 의지에 있어야지 판단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예외는 있다. 지고 말 일을 그냥 두지 않으려는 경우, 두 번 지지 않으려는 경우다. 한 번은 소견에서, 또 한 번은 실행에서.

184 격식을 따지지 말라, 왕에게서조차 그런 티 내기는 별난 짓으로 소문났다. 체면을 따지는 사람은 성가시고, 이 까다로움에 물든 나라도 있다. 어리석음의 옷은 이런 체면의 바늘땀으로 꿰매니, 그런 사람은 제 체면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무엇이든 그 체면을 상하게 할까 겁내어 그 체면이 하찮은 것 위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존경받도록 마음 쓰는 것은 좋지만, 인사치레의 대가로 통해서는 안 된다. 격식 없는 사람에게 뛰어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절을 꾸며서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자잘한 체면에 매달리는 사람은 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185 신용을 단 한 번의 시험에 걸지 말라, 그 한 번이 잘못되면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 한 번쯤 그르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첫 번째는 더욱 그렇다. 사람이 늘 때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다'는 말이 생겼다. 그러니 두 번째 시도를 첫 번째에 받쳐 두어, 첫 번째를 그르치면 두 번째가 그것을 메워 주고 첫 번째를 맞히면 첫 번째가 두 번째를 미리 갚아 주게 하라. 언제나 더 나아질 길이 있어야 하고, 더 높은 데 호소할 길이 있어야 한다. 일은 우연에, 그것도 숱한 우연에 달려 있어서 잘 풀리는 행복은 드물다.

186 흠을 알아보라, 아무리 권위를 등에 업었더라도. 올곧은 사람은 악덕이 비단옷을 걸쳤더라도 악덕을 알아보아야 한다. 악덕은 때로 금관을 쓰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12]을 감추지는 못한다. 그 사람이 고귀하다고 해서 악덕이 비천함의 종살이를 벗지는 못한다. 악덕이 돋보이는 자리에 놓일 수는 있어도, 악덕이 돋보임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저 영웅에게 저런 흠이 있었다는 것은 보면서, 그 흠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 아님은 보지 못한다. 윗사람의 본보기는 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추함마저 남에게 설득해 낸다. 아첨은 때로 얼굴의 추함까지 흉내 냈으나, 그런 추함이 위대한 사람에게서는 가려져도 비천한 사람에게서는 혐오받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187 좋은 일은 모두 손수 하고, 미움받을 일은 모두 남을 시켜 하라. 앞의 것으로는 애정을 얻고, 뒤의 것으로는 적의를 비켜 간다. 큰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다. 그것이 너그러움의 행복이다. 남을 언짢게 하고 자기는 언짢아지지 않는 일은 드물다. 가여워서든 고까워서든. 윗자리의 원인은 어르거나 으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선은 직접 내리고, 악은 남을 거쳐 내리라. 불만의 매가 떨어질 자리를 마련해 두라. 그 매란 미움과 험담이다. 범속한 무리의 분노는 흔히 개의 분노와 같아서, 제가 다친 까닭은 모른 채 연장에 덤벼들고, 연장은 주된 허물이 없는데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다.

188 칭찬할 거리를 지니고 다니라. 그것은 안목의 신용을 세워 주니, 그 안목이 아주 좋은 것에 길들어 있음을 보여 주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높이 칠 때도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완전함을 알아본 사람은 나중에도 완전함을 높이 칠 줄 안다. 이야기할 거리와 본받을 거리를 주고, 갈채받는 식견을 퍼뜨린다. 눈앞에 있는 이들의 완전함에 예절을 파는 노련한 솜씨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헐뜯을 거리를

지니고 다니며, 없는 사람을 업신여겨 있는 사람에게 아첨한다. 겉만 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먹힌다.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을 몹시 헐뜯는 수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제의 극치보다 오늘의 평범을 더 높이 치는 것을 정략으로 삼는다. 주의 깊은 사람은 이렇게 다가오는 묘수를 알아보아 한쪽의 과장에 기죽지도 다른 쪽의 아첨에 우쭐하지도 말아야 하며, 그들이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똑같이 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말뜻을 뒤바꾸어 언제나 자기가 선 자리에 맞춘다.

189 남의 결핍을 이용하라. 결핍이 욕망에 이르면 가장 잘 듣는 조임쇠가 된다. 철학자들은 결핍을 무(無)라 했고 정치가들은 전부라 했다. 정치가들이 결핍을 더 잘 알았다. 어떤 사람은 남의 욕망을 디딤돌 삼아 제 목적을 이룬다. 기회를 이용하고, 얻기 어렵게 만들어 입맛을 돋운다. 가진 것의 미지근함보다 격정의 몸부림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가로막힐수록 욕망은 더 달아오른다. 뜻을 이루는 큰 묘수는 의존을 남겨 두는 것이다.

190 무엇에서든 위안을 찾으라.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위안이 있으니, 오래 산다는 것이다. 위안 없는 고생은 없다. 어리석은 자의 위안은 운이 좋다는 것이고, 그래서 '못난 여자의 행운'[13]이라는 말도 생겼다. 오래 살려면 값어치가 적은 것이 한 방법이다. 금 간 그릇은 끝내 깨지지 않고 오래 버텨 사람을 짜증 나게 한다. 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시샘하는 듯하니,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한 사람에게는 짧게 사는 것을 짝지어 주어, 중요한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은 끝없이 남는다. 그렇게 보여서든, 정말 그래서든. 불운한 사람은 운수와 죽음이 입을 맞추어 잊어버리는 듯하다.

191 지나친 예절에 흡족해하지 말라, 그것은 속임의 한 가지다. 어떤 사람은 홀리는 데 테살리아의 약초[14]가 필요 없으니, 모자를 한 번

멋지게 벗어 드는 것만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아니 허영에 들뜬 사람들을 홀린다. 체면에 값을 매기고는 좋은 말 몇 마디의 바람으로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셈이며, 약속은 어리석은 자를 미끄러뜨리는 비탈이다. 참된 예절은 갚아야 할 빚이고, 꾸민 예절은 속임이며, 유난스러운 예절은 더욱 그렇다. 그것은 품위가 아니라 의존이다. 그들이 절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운이다. 아첨도 알아본 자질이 아니라 바라는 이득에 바친다.

192 크게 평화로운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살려면 남도 살게 두라. 평화로운 사람은 살 뿐 아니라 다스린다. 듣고 보되 입은 다물어야 한다. 다툼 없는 낮이 단잠 드는 밤을 만든다. 오래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은 두 사람 몫을 사는 것이요, 평화의 열매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다. 무엇이든 정색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엉뚱한 짓은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가슴을 꿰뚫게 두는 것이나,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잇새로도 들어오지 않게 두는 것이나 똑같이 어리석다.

193 남의 일을 들고 들어와 제 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조심하라. 꾀를 막는 데는 알아차림만 한 것이 없다. 눈치 빠른 사람에게는 잘 알아듣는 사람으로 맞서라. 어떤 사람은 제 일을 남의 일로 꾸미니, 의도를 풀 해독표가 없으면 남의 이익을 불 속에서 꺼내 주느라 제 손을 데는 일에 걸핏하면 말려든다.

194 자기와 자기 일을 슬기롭게 헤아리라. 삶을 시작할 때는 더욱. 누구나 자기를 높이 생각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더하다. 저마다 제 운을 꿈꾸고 자기를 경이로 상상한다. 희망은 터무니없이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 경험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 주지 않으니, 참된 현실에 깨어나는 일이 그 헛된 상상에게는 고문이 된다. 슬기로 이런 헛짚음을 바로잡으라. 가장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있지만, 무엇이 오든

담담히 받으려면 언제나 가장 나쁜 것을 예상해야 한다. 과녁을 맞히려고 조금 높이 겨누는 것은 솜씨지만, 빗나갈 만큼 높이 겨누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처음 맡을 때 이렇게 헤아림을 고쳐 잡는 일이 꼭 필요하다. 경험 없는 자만은 흔히 과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어리석음에 두루 듣는 약으로 건전한 머리만 한 것이 없다. 저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자기 신분을 알라. 그러면 헤아림을 현실에 맞출 수 있다.

195 높이 칠 줄 알라. 무엇에선가 남의 스승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앞선 사람을 앞서지 못할 사람도 없다. 사람마다 그에게서 얻을 것을 얻어 낼 줄 아는 것은 쓸모 있는 앎이다. 현자는 모든 사람을 높이 친다. 사람마다 지닌 좋은 점을 알아보고, 일이 잘되기까지 얼마나 드는지 알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업신여긴다. 좋은 것을 몰라서, 그리고 나쁜 것을 골라서.

196 자기 별을 알라. 별 하나 없을 만큼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없다. 불운하다면 자기 별을 몰라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왜 그런지도 모르게 군주와 권세가 곁에 자리를 얻으니, 그 운수가 총애를 쉽게 얻게 해 주었을 뿐이고 솜씨가 할 일은 그 운수를 거드는 것뿐이다. 어떤 사람은 현자들의 호의를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보다 저 나라에서 더 받아들여졌고, 저 도시보다 이 도시에서 더 좋게 보였다. 어떤 직분과 신분에서 다른 데보다 행운이 더 따르기도 한다. 공로가 같은데도, 아니 똑같은데도 말이다. 운수는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할 때 패를 섞는다. 저마다 자기 운수를 알고, 자기의 미네르바[15]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잃느냐 얻느냐가 걸려 있다. 운수를 따르고 거들 줄 알라. 둘을 뒤바꾸지 말라. 가까이서 부르는 작은곰자리[16]를 두고 북쪽을 잘못 잡는 일이 될 것이다.

197 어리석은 자에게 얽히지 말라. 어리석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고, 알아보고도 떼어 내지 않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겉으로 사귀기에도 위험하고, 속을 털어놓기에는 해롭다. 한동안은 제 조심과 남의 단속으로 버티더라도 끝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늦어졌다면 그것은 더 거창하게 하려고 늦어진 것이다. 제 신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신용을 도울 수는 없다. 그들은 더없이 불운하다. 그것은 어리석음 위에 덧난 혹이며, 어리석음과 불운은 둘 다 옮는다. 그들에게 덜 나쁜 점이 딱 하나 있으니, 슬기로운 사람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들은 현자에게 식견을 주든 본때를 보여 주든 큰 도움이 된다.

198 자기를 옮겨 심을 줄 알라. 값어치를 인정받으려면 떠나야 하는 나라가 있고, 큰 자리일수록 더하다. 고국은 바로 그 탁월한 사람들의 계모이니, 시샘이 제 고향 땅인 듯 그곳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그가 이른 위대함보다 그가 처음에 지녔던 불완전함을 더 잘 기억한다. 바늘 하나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 존중을 얻었고, 유리 조각 하나가 옮겨 왔다는 것만으로 금강석을 업신여김받게 했다. 바깥 것은 모두 존중받는다. 멀리서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 만들어져 완전한 모습으로 손에 들어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구석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다가 오늘날 세상의 자랑이 된 사람들을 보았다. 고향 사람에게도 바깥사람에게도 존중받는데, 고향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아서, 바깥사람은 멀리서 와서다. 과수원의 통나무일 때 알던 사람은 제단 위의 조각상을 제대로 우러르지 못한다.

199 비집고 들어가지 말고 슬기롭게 자기 자리를 만들 줄 알라. 존중에 이르는 참된 길은 공로의 길이다. 솜씨가 값어치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존중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올곧음만으로는 모자라고 애써 청하기만 하는 것은 비천하니, 그렇게 얻은 것은 진흙투성이로 도착해

명망에 먹칠을 하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추는 것과 자기를 내세울 줄 아는 것, 그 둘의 중간에 길이 있다.

200 바랄 것을 남겨 두라, 행복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몸은 숨 쉬고, 정신은 숨 가쁘게 바란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모든 것이 깨어남이요 불만일 것이다. 지성에도 언제나 알 거리가 남아 있어야 호기심이 먹이를 얻는다. 희망은 숨을 불어넣는다. 행복에 배가 터지도록 물리면 죽는다. 상을 줄 때는 결코 다 채워 주지 않는 것이 솜씨다. 바랄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불행한 행복이다. 욕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201 멍청해 보이는 사람은 모두 멍청하고, 멍청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절반은 멍청하다. 어리석음이 세상을 차지해 버렸고 지혜가 조금 있다 해도 하늘의 지혜에 대면 미련함[17]인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모두 어리석다고 규정하는 사람이다. 현자가 되려면 현자로 보이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스스로 현자로 여기는 것으로는 더욱 모자라다.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남들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다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로 가득한데도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다.

202 말과 행동이 완성된 사내를 만든다. 아주 좋은 것을 말하고 아주 영예로운 것을 행해야 하니, 앞의 것은 머리의 완전함이고 뒤의 것은 마음의 완전함이며, 둘 다 기개의 높음에서 난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말은 여자요 행동은 사내다. 기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기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 공적은 삶의 알맹이요, 격언은 그 장식이다. 행동의 탁월함은 남고, 말의 탁월함은

지나간다. 행동은 주의의 열매다. 한쪽은 지혜롭고, 다른 쪽은 공적을 세운다.

203 자기 시대의 탁월한 사람들을 알라. 그들은 많지 않다. 온 세상에 불사조 한 마리, 대장군(Gran Capitán)[18] 같은 사람 하나, 완벽한 웅변가 하나, 한 세기에 현자 하나, 여러 세기에 탁월한 왕 하나. 평범한 사람은 수로도 값으로도 흔하고, 탁월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드물다. 완전함을 다 갖추어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그 끝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대(大)'라는 칭호를 빌려 갔지만 헛일이었으니, 행동이 없으면 이름은 한 줌 바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네카 같은 사람은 드물었고, 명성이 기린 아펠레스'[19]는 하나뿐이다.

204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손대야 한다. 앞의 것은 자신감이 방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뒤의 것은 자신 없음이 기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일을 안 되게 하려면 다 된 일로 여기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부지런함은 불가능을 평평하게 고른다. 큰일은 깊이 생각하지도 말고 나서기만 하면 된다.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면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이다.

205 업신여김을 부릴 줄 알라. 무엇을 얻으려면 업신여기는 것이 한 수다. 대개 찾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무심할 때 손에 들어온다. 이 세상 것은 모두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서 그림자의 성질을 나누어 가지니, 쫓는 사람에게서는 달아나고 달아나는 사람은 뒤쫓는다. 업신여김은 또한 가장 노련한 복수다. 현자들의 하나뿐인 격률은 펜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것이니, 펜은 자국을 남기고 무례를 벌하기보다 경쟁심을 빚내 주고 말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자들의 꾀는 큰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다. 바로는 기림받을 자격이 없으니 에둘러서라도 기림받으려는 속셈이다. 뛰어난 상대가 상대해 주지 않았다면 이름도

남기지 못했을 사람이 많다. 잊어 주는 것만 한 복수는 없다. 그들을 제 하찮음의 먼지 속에 묻어 버리는 일이다. 무모한 자들은 세상과 세기의 경이에 불을 질러 영원히 남으려 한다[20]. 험담을 잠재우는 기술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맞서면 해를 입고, 믿어 주면 신용을 잃는다. 경쟁심만 흐뭇하게 할 뿐이니, 그런 흠의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완전함을 아주 가리지는 못해도 그 빛을 바래게는 하기 때문이다.

206 어디에나 범속한 무리가 있음을 알라, 코린트[21] 한복판에도, 가장 고귀한 집안에도. 누구나 제 집 문 안에서 그것을 겪는다. 그런데 범속한 무리가 있고, 범속한 무리 위의 범속한 무리(revulgo)가 있으니, 이쪽이 더 나쁘다. 특별한 범속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흔한 범속과 성질이 똑같고 더 해롭기까지 해서, 어리석게 말하고 주책없이 헐뜯으니, 무지의 수제자요 어리석음의 대부요 뜬소문의 동맹이다. 그 무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 무리가 느끼는 것에는 더욱 그렇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면 그 무리를 알아야 한다. 거기 끼는 사람으로서도, 그 표적으로서도. 어리석음은 무엇이든 범속함이고, 범속한 무리는 어리석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207 자제를 지키라. 뜻밖의 일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일을 굽어보고 있어야 한다. 격정의 충동은 슬기를 미끄러뜨리는 비탈이고, 거기서 자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사람은 분노나 기쁨의 한순간에, 담담한 여러 시간에 나아갈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가 버린다. 때로는 잠깐 내달렸다가 평생 낯을 붉힌다. 남의 교활한 의도는 이렇게 분별을 시험하는 덫을 놓아 땅을 엿보듯 속마음을 엿본다. 그런 의도는 비밀을 짜내는 조임쇠를 쓰며, 그 조임쇠는 흔히 가장 큰 밑천까지 바닥나도록 짜낸다. 자제를 그 책략을 꺾는 책략으로 삼으라. 다급할 때는 더욱. 격정이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지 않게 하려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니, 말 위에서도 슬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크게 슬기로운 사람이다. 위험을

헤아리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간다. 말은 던지는 사람에게는 가벼워 보여도 받아서 저울질하는 사람에게는 무겁다.

208 어리석은 자의 고질로 죽지 말라. 흔히 현자는 슬기가 모자라 죽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조언을 배불리 듣고도 죽는다. 어리석게 죽는 것은 생각이 넘쳐 죽는 것이다. 어떤 이는 느끼기 때문에 죽고, 어떤 이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산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음 아파 죽지 않아서 어리석고, 어떤 이는 마음 아파 죽어서 어리석다. 너무 많이 알아서 죽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어떤 이는 알아듣는 탓에 죽고,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덕에 산다. 그러나 어리석음으로 죽는 사람은 많아도, 죽는 어리석은 자는 드물다.

209 흔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아주 특별한 슬기다. 흔한 어리석음은 널리 퍼져 큰 힘을 얻었으니, 저 혼자만의 무지에는 굴복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가 함께 빠진 무지에서는 벗어날 줄 몰랐다. 아무도 제 운수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운수라도 만족하지 않고, 제 재치에는, 그것이 가장 나쁜 재치라도 불만이 없는 것은 범속함이다. 누구나 제 행복에는 불만이면서 남의 행복은 탐낸다. 또 오늘 사람은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쪽 사람은 저쪽 것을 칭찬한다. 지나간 것은 모두 더 나아 보이고, 먼 것은 모두 더 높이 쳐진다.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이나 모든 것에 속을 썩이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리석다.

210 진실을 다룰 줄 알라. 진실은 위험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기에 솜씨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고치는 노련한 의사들은 진실을 달게 하는 법을 찾아냈으니, 진실이란 깨어남에 닿는 순간 쓴맛 가운데서도 가장 쓴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좋은 말씨가 제 솜씨를 부린다. 같은 진실로 어떤 이는 상대를 어루만지고, 어떤 이는 상대를 두들겨 팬다. 지금 사람에게는 옛사람을 빌려 말해야 한다.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패를 살짝 엿보이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도 안 되면 입을 다물 때가 온다. 군주는 쓴 약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깨어남에 금을 입히는 기술이 있다.

211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둘 다 있다. 우리는 두 극단 사이에 있으니 둘 다 맛본다. 운수는 번갈아 온다. 모든 것이 행복일 수도, 모든 것이 역경일 수도 없다. 이 세상은 영(零)이다. 홀로는 아무 값도 없고, 천국과 나란히 놓으면 큰 값이 된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슬기이고, 새것에 들뜨는 것은 현자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처럼 갈수록 얽히다가 끝에 가서 풀린다. 그러니 잘 끝맺는 데 주의하라.

212 기술의 마지막 수는 늘 남겨 두라. 그것이 큰 스승의 일이니, 큰 스승은 묘수를 가르치는 바로 그때도 묘수를 쓴다. 언제나 윗사람으로, 언제나 스승으로 남아야 한다. 기술을 전할 때도 기술을 부려야 한다. 주는 샘을 마르게 해서는 안 되듯, 가르치는 샘도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명망과 의존을 지킨다. 남을 즐겁게 할 때나 가르칠 때나, 늘 감탄에 먹이를 주어 키우면서 완전함은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내보이라는 저 큰 가르침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모든 일에 예비를 두는 것은 살아가고 이기는 큰 규칙이었고, 가장 높은 직분에서는 더욱 그랬다.

213 반박할 줄 알라. 그것은 떠보는 큰 수다. 자기가 말려들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감정을 튀어나오게 하는 조임쇠는 이것뿐이다. 미지근하게 믿는 척하는 것은 비밀을 토하게 하는 구토제요, 가장 굳게 닫힌 가슴을 여는 열쇠다. 의지와 판단력을 함께 떠보는 일은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상대가 수수께끼처럼 던진 말을 영민하게 깔보면 가장 깊은 비밀까지 사냥할 수 있고, 그 비밀을 부드럽게 한 입씩 끌어내어 혀끝까지 올라오게 하고 마침내 꾸민 속임의

그물에 걸려들게 한다. 주의 깊은 사람이 말을 아끼면 상대는 조심하던 것을 내던지고 속내를 드러내니, 그러지 않으면 헤아릴 길 없던 마음이다. 꾸며 낸 의심은 호기심이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아내는 가장 정교한 곁쇠다. 배울 때도 제자가 스승에게 반박하는 것은 좋은 수이니, 스승은 진실을 풀어 밝히고 그 근거를 대려고 더 애쓰게 되고, 이렇게 절도 있는 반박이 온전한 가르침의 계기가 된다.

214 어리석음 하나를 둘로 만들지 말라. 하나를 기우려다 넷을 더 저지르는 일은 아주 흔하다. 주책 하나를 더 큰 주책으로 변명하는 것은 거짓말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어리석음의 혈통이니, 어느 쪽이든 하나를 버티려면 숱한 다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쁜 송사는 늘 변호가 더 나빴다. 화 자체보다 더 나쁜 화는 그 화를 덮을 줄 모르는 것이다. 불완전함이 짊어진 짐은 다른 불완전함을 숱하게 이자로 낳는 것이다. 가장 큰 현자도 한 번의 방심에는 빠질 수 있지만 두 번은 아니다. 그것도 지나가다 빠질 뿐 눌러앉지는 않는다.

215 두 번째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흥정꾼의 책략은 상대의 의지를 방심시켜 놓고 치는 것이다. 의지는 넘어오는 순간 넘어진다. 그들은 의도를 이루려고 의도를 감추고 실행에서 첫째가 되려고 의도를 둘째 자리에 두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화살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가 이토록 깨어 있으니 주의도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의도가 숨으려고 둘째가 되면, 주의는 알아채려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 조심은 그가 다가오는 꾸밈을 알아차리고, 그가 바라는 지점에 이르려고 이리저리 찔러 보는 끝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하나를 내밀고 다른 것을 노리며, 교묘하게 돌아서 제 의도의 과녁을 맞힌다. 그러니 무엇을 내어 주는지 알아야 하고, 때로는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216 풀어 말하는 힘을 지니라. 그것은 막힘없는 말솜씨일 뿐 아니라 생각의 활달함(despejo)이다. 어떤 사람은 잘 잉태하고도 잘 낳지 못한다. 맑음이 없으면 영혼의 자식들, 곧 생각과 결정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릇은 많이 담고 조금 따르는 저 항아리와 같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의지에 결단이 있다면 지성에는 풀어 밝힘이 있다. 둘 다 큰 탁월함이다. 맑은 재치는 갈채받고 흐린 재치는 알아듣지 못하는 덕에 우러름을 받았으며, 때로는 범속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둡게 말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 머릿속에 제 말에 맞는 생각이 없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헤아리겠는가?

217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벗을 내일의 적으로, 그것도 가장 나쁜 적으로 여기고 믿어야 하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만큼 대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겨야 한다. 우정을 버리고 달아난 자에게 무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무기로 가장 큰 싸움을 건다. 적에게는 반대로 하라. 화해의 문을 늘 열어 두되, 그 문은 아량의 문이어야 한다. 그 문이 가장 안전하다. 예전의 복수가 나중에 괴로움이 된 적이 있고, 남에게 해코지하며 맛본 기쁨이 슬픔이 된다.

218 오기로가 아니라 주의로 행하라. 오기(tema)는 모두 종기(postema)다. 격정이 낳은 딸이라서 무엇 하나 바르게 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작은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교제의 산적이라, 하는 일마다 승리이기를 바라고 평화롭게 나아갈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두면 해로우니, 다스림을 패거리 싸움으로 만들고 자식처럼 품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세우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술수로 꾸미고 제 꾸밈의 열매로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 엉뚱한 기분이 드러나면 남들은 곧 그들과 겨루고 그들의 망상을

가로막으려 해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짜증을 배 터지게 먹고, 누구나 그들의 언짢음을 거든다. 이런 사람은 소견이 다쳤고, 때로는 마음까지 상했다. 이런 괴물을 대하는 길은 지구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그곳 사람들의 야만이 이들의 사나움보다는 견딜 만할 것이다.

219 꾸밈의 사람으로 통하지 말라. 이제는 꾸밈없이 살 수 없다 해도. 교활하기보다 분별 있으라. 교제의 담백함은 누구에게나 반갑지만, 누구나 제 집에서 그렇게 살려 하지는 않는다. 진솔함이 단순함의 극단에 빠져서도, 영민함이 꾀의 극단에 빠져서도 안 된다. 속셈이 깊은 사람이라 두려움받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러름받으라. 진솔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속는다. 가장 큰 꾸밈은 꾸밈을 감추는 것이어야 한다. 꾸밈은 속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황금시대에는 꾸밈없음이 꽃피었고, 잘못투성이인 이 쇠의 시대에는 악의가 꽃핀다.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신용은 명예롭고 믿음을 낳지만, 꾸밈 많은 사람이라는 신용은 궤변 같아서 의심을 낳는다.

220 사자 가죽을 입을 수 없거든 여우 가죽을 입으라[22]. 때에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앞서는 것이다. 뜻을 이루는 사람은 명망을 잃지 않는다. 힘이 모자라면 솜씨로. 이 길로든 저 길로든. 용기의 큰길로든, 꾸밈의 지름길로든. 힘보다 재주가 더 많은 일을 해냈고, 현자가 용사를 이긴 일이 그 반대보다 많았다. 얻을 수 없을 때는 업신여길 차례다.

221 말썽을 부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기가 말려들어서도, 남을 끌어들여서도. 자기 체통에도 남의 체통에도 걸리는 돌부리 같은 사람이 있어, 언제나 어리석음을 저지를 채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아주 쉽게 부딪치고, 부딪치면 불행하게 깨진다. 하루에 짜증 백 번으로는 모자란다. 기분이 늘 결을 거슬러 있어서, 있는 사람마다, 있는 것마다 반박한다. 판단력을 거꾸로 신고 다녀서 무엇이든 못마땅해한다. 그러나

슬기를 가장 크게 시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니, 주책이라는 드넓은 나라에는 괴물이 많다.

222 삼가는 사람, 분별 있다는 증거. 혀는 맹수라서, 한번 풀려나면 다시 사슬에 묶기가 몹시 어렵다. 혀는 영혼의 맥이라, 현자는 거기서 영혼의 상태를 안다. 주의 깊은 사람은 여기서 마음의 움직임을 짚는다. 탈은 가장 자제해야 할 사람이 가장 자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자는 짜증과 다툼을 피하며,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주인인지 보여 준다. 두루 살피며 나아간다. 저울질에서는 야누스, 살펴 확인하는 데서는 아르고스[23]다. 모모스[,24]는 가슴에 작은 창이 없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손에 눈이 없다고 아쉬워했어야 옳았다.

223 너무 유별나지 말라, 일부러 꾸며서든 모르고 그래서든. 어떤 사람은 버릇 같은 행동으로 눈에 띄게 유별나지만, 그것은 남다름이라기보다 흠이다. 얼굴의 유별난 추함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듯이, 이런 사람은 몸가짐의 어떤 지나침으로 알려진다. 유별나게 구는 것은 손가락질받는 데밖에 쓸모가 없으니, 그 주책맞은 남다름은 어떤 이에게는 웃음을, 어떤 이에게는 짜증을 번갈아 불러일으킨다.

224 일을 잡을 줄 알라. 결을 거슬러 잡지 말라, 일이 결을 거슬러 오더라도. 모든 일에는 겉과 안이 있다. 가장 좋고 이로운 것도 날을 잡으면 다친다. 반대로 가장 거슬리는 것도 손잡이를 잡으면 자기를 지켜 준다. 많은 일이 괴로움이 되었지만, 그 이로운 점을 헤아렸다면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에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이 있으니, 솜씨는 이로운 쪽을 찾아낼 줄 아는 데 있다. 같은 것도 다른 빛에 비추어 보면 전혀 다른 빛깔을 띤다. 행복의 빛에 비추어 보라. 선과 악의 고삐를 뒤바꾸어 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무엇에서나 기쁨을 찾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찾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운이

뒤집힐 때 막아 주는 큰 방패요, 어느 때 어느 직분에나 맞는 삶의 큰 규칙이다.

225 자기의 으뜸가는 흠을 알라. 이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가장 뛰어난 자질에 맞서 무게를 다는 추다. 타고난 성향이 그 흠을 편들면 흠은 폭군처럼 사람을 휘어잡는다. 그 흠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 흠을 경계하겠다고 널리 알리고 첫걸음으로 선전 포고문을 내야 하니, 흠은 알려지는 순간 꺾이고, 당사자가 남들이 보는 대로 그 흠을 헤아리면 더욱 그렇다. 자기의 주인이 되려면 늘 자기를 지켜보아야 한다. 불완전함의 이 우두머리가 항복하면 나머지도 모두 끝난다.

---

1. 신의 뜻을 받아 앞일을 말하던 고대의 무녀.

2. 로마 시인 마르티알리스의 『에피그램』 8권 79편에 나오는 여자(Fabulla). 늙거나 못생긴 벗들만 데리고 다녀 자기가 예뻐 보이게 했다.

3. 스페인 속담 「말 위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없다(no hay hombre cuerdo a caballo)」를 깔고 하는 말.

4. 스콜라 철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닌다고 본 세 초월적 속성, 곧 하나임(unum), 선함(bonum), 참됨(verum).

5. 사람을 알려면 그와 소금 여러 말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옛말(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키케로 『우정에 관하여』 19장). 원문의 fanega는 곡식을 되는 단위이고, salado(짠)는 「재치 있는」이라는 뜻도 겸한다.

6. 『전도서』 1장 18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를 비튼 말. 원문은 ciencia(지식)와 impaciencia(조바심)로 소리를 맞춘다.

7. 1~2세기의 스토아 철학자. 아울루스 겔리우스(『아티카의 밤』 17권 19장)는 그가 삶의 요체를 「참고 삼가라」 두 마디로 줄였다고 전한다.

8. 헤시오도스 『일과 날』 40행 「어리석은 자들은 절반이 전체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에서 온 역설.

9. 배에 싣는 닻 가운데 가장 큰 것. 마지막 위급할 때만 내렸다. 고대 그리스 이래 「최후의 의지처」를 뜻하는 관용 표현이다.

10. 원문 pecho는 「가슴」 이면서 옛 스페인에서 평민이 바치던 「공물」 이기도 하다. 가슴을 열어 보인 상대마다 공물을 바치는 처지가 된다는 말놀이.

11. 원문은 varillas(가는 막대). 남을 떠보려고 슬쩍 던지는 말.

12. 원문 yerro(잘못)는 hierro(쇠)와 소리가 같아, 「금관」 과 「쇠」 를 맞세우는 말놀이가 된다.

13. 스페인 속담 「못난 여자에게는 행운이 따른다(ventura de fea)」. 예쁜 여자보다 못난 여자가 오히려 팔자가 좋다는 말이다.

14. 그리스 북부 테살리아는 예로부터 마녀와 사랑의 약초로 이름난 땅이었다.

15. 로마의 지혜의 여신. 저마다 타고난 재능을 가리킨다.

16. 원문은 bocina(나팔). 북극성을 품은 작은곰자리를 그 모양을 따서 이렇게 불렀고, 뱃사람은 이 별로 북쪽을 잡았다.

17.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니」(『고린도전서』 3장 19절)를 받은 말.

18. 스페인의 장군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1453~1515)의 별칭. 이사벨 여왕 아래에서 그라나다 전쟁과 이탈리아 전쟁을 이끌어 「대장군(el Gran Capitán)」 이라 불렸다.

19.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궁정 화가(기원전 4세기). 고대 제일의 화가로 꼽혔다.

20. 기원전 356년, 이름을 남기려고 세계 일곱 불가사의의 하나인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헤로스트라토스를 가리킨다.

21. 고대 그리스의 부유한 상업 도시. 사치와 세련으로 이름났다.

22. 사자 가죽이 닿지 않는 곳에는 여우 가죽을 이어 대야 한다는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로스의 말(플루타르코스 『리산드로스전』 7장)에서 온 격언.

23. 야누스는 앞뒤로 얼굴이 둘인 로마의 신, 아르고스는 온몸에 눈이 백 개 달린 그리스 신화의 거인.

24. 흠잡기를 일삼던 그리스 신화의 신. 신들이 만든 사람을 보고, 가슴에 창을 내어 속마음이 보이게 하지 않았다고 탓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잠언 226~300

226 은혜를 입혀 두는 데 주의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제 본모습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고, 남이 자기를 매어 두는 대로 말하고 행한다. 나쁜 일을 믿게 하는 데는 누구라도 넉넉하다. 나쁜 일은 때로 믿기 어려워도 아주 잘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많고 가장 좋은 것은 남의 존경에 달려 있다. 어떤 이들은 이치가 제 편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자라니, 부지런히 애써 이치를 거들어야 한다. 은혜를 입히는 데는 때로 아주 적은 것이 들고, 그 값은 크다. 말로 행동을 산다. 우주라는 이 큰 집에는 한 해에 한 번도 쓰일 일이 없을 만큼 하찮은 세간은 하나도 없고, 값은 적더라도 막상 없으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다. 누구나 제 감정에 따라 대상을 말한다.

227 첫인상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처음 들은 말과 혼인하니 나머지 말은 모두 첩이 되고, 거짓은 언제나 앞질러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남지 않는다. 의지를 처음 만난 대상으로, 지성을 처음 들은 주장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바닥이 얕다는 표시다. 어떤 이들의 그릇은 새 항아리 같아서, 나쁜 술이든 좋은 술이든 처음 담긴 냄새가 차지해 버린다. 이 얕음이 남에게 알려지면 해롭다. 악의 있는 술수에 발판을 주기 때문이다. 속셈이 나쁜 자들은 잘 믿는 남의 마음을 제 빛깔로 물들이려고 미리 손을 쓴다. 늘 다시 살필 자리를 남겨 두라. 알렉산드로스처럼 한쪽 귀는 상대편 몫으로 남겨 두라[1].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말에도 자리를 남겨 두라.

쉽게 물드는 것은 그릇이 작다는 증거이고, 격정에 휘둘리는 것과 멀지 않다.

228 나쁜 말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말라.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남의 명성을 깎는다는 명성을 얻는 일이다. 남을 희생시켜 재치를 부리지 말라. 어렵기보다 밉살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그를 헐뜯으며 앙갚음하니, 그는 혼자이고 그들은 여럿이라 그들이 설복되기보다 그가 먼저 굴복할 것이다. 나쁜 것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험담꾼은 언제까지나 미움을 받고, 때로 큰 인물들이 그를 가까이 두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의 슬기를 높이 쳐서가 아니라 그의 조롱이 즐거워서일 것이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늘 더 나쁜 말을 듣는다.

229 제 삶을 사려 깊게 나눌 줄 알라, 오는 기회대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가려서. 쉼 없는 삶은 주막 없는 먼 길처럼 고되다. 배움이 깃든 다채로움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아름다운 삶의 첫 여정은 죽은 이들과 이야기하는 데 쓰라. 우리는 알고 또 자기를 알려고 태어났으며, 책은 충실하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둘째 여정은 산 사람들과 보내라. 세상의 좋은 것을 모두 보고 살펴야 한다. 모든 것이 한 땅에 다 있지는 않다. 만물의 아버지는 선물을 고루 나누어 주었고, 때로는 못난 땅을 더 넉넉하게 했다. 셋째 여정은 온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행복, 철학하는 일.

230 제때 눈을 뜨라. 보는 사람이 모두 눈을 뜬 것은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이 모두 보는 것도 아니다. 늦게 깨달으면 약이 되지 않고 한이 될 뿐이다. 어떤 이들은 볼 것이 없어진 뒤에야 보기 시작한다. 자기를 세우기도 전에 집과 살림을 무너뜨렸다. 의지 없는 사람에게 지성을 주기는 어렵고, 지성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주기는 더 어렵다. 곁에 있는 자들은 눈먼 사람 다루듯 그들을 가지고 놀고 남들은 그 꼴을 보며

웃지만, 그들은 듣는 데 귀가 먹었으니 보려고 눈을 뜨지도 않는다. 게다가 이 무감각을 부추기는 자도 없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제가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주인의 눈이 없는 말은 불행하다. 살이 오를 리 없다.

231 반쯤 된 일은 결코 내보이지 말라. 다 이루어진 뒤에 누리게 하라. 시작은 모두 꼴이 없고 그 흉한 꼴은 나중까지 머릿속에 남으니, 덜된 것을 보았다는 기억 때문에 다 이루어진 뒤에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큰 대상을 한꺼번에 누리면 부분마다 따지는 판단력은 어지러워도, 안목은 그것만으로 흡족해진다. 모든 것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있기 시작할 때에도 아직 제 없음 속 깊이 잠겨 있다. 아무리 맛난 요리라도 만드는 것을 보면 입맛보다 구역질이 먼저 난다. 그러니 큰 장인은 누구나 제 작품이 태아일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 내보일 만해질 때까지 내놓지 않는 법을 자연에게서 배우라.

232 장사꾼 기질을 조금은 지니라. 모든 것이 사색이어서는 안 되고, 행동도 있어야 한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기 쉽다. 남다른 것은 알아도, 삶에 더 긴요한 평범한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것을 관조하느라 손에 잡히는 일에는 틈이 나지 않는다. 누구나 머리카락을 쪼갤 만큼 훤히 아는 것, 맨 먼저 알았어야 할 것을 모르니, 얕은 범속한 무리에게서 감탄을 받거나 아니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내는 장사꾼 기질을 조금 지니도록 애쓰라. 속지 않고 비웃음도 사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일에 밝은 사람이 되라. 가장 높은 것은 아니어도 삶에 가장 긴요하다. 쓰이지 않는 앎이 무슨 소용인가? 오늘날에는 사는 법을 아는 것이 참된 앎이다.

233 남의 입맛을 빗맞혀, 기쁨을 주려다 괴로움을 주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도리어 노엽게 한다. 사람마다 다른 기질을 헤아리지 못해서다. 어떤 행동은 누구에게는 아첨이 되고

누구에게는 모욕이 된다. 봉사라고 믿은 것이 모욕이 되었다. 때로는 기쁨을 주는 데 들었을 것보다 언짢게 하는 데 더 많은 것이 들었다. 기쁘게 하는 길잡이 별을 잃었으니 감사도 선물도 잃는다. 남의 기질을 모르면 그를 흡족하게 해 주기 어렵다. 어떤 이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이 그만 욕을 하고 말았던 것도 그래서이니, 마땅히 받을 벌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제 말솜씨로 즐겁게 해 주려다 수다로 남의 영혼을 두들겨 팬다.

234 남의 명예를 볼모로 잡지 않고는 제 명망을 맡기지 말라. 입을 다물면 함께 이익을 보고, 입을 가볍게 놀리면 함께 해를 입게 할 일이다. 명예가 걸린 일에서는 늘 동업하는 사이가 되어, 자기 명망 때문에 남의 명망까지 지키게 해야 한다. 결코 맡기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맡긴다면 분별이 조심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써야 한다. 위험은 함께 지고 사정은 서로 얽히게 하라. 자기도 한패임을 아는 사람은 증인으로 돌아서지 못한다.

235 청할 줄 알라. 어떤 이에게는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고, 어떤 이에게는 이보다 쉬운 일이 없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곁쇠가 필요 없다. 아무 때나 '아니'가 첫마디인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수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제때가 필요하다. 몸이 먼저 배불리 먹었든 마음이 먼저 배불렀든, 기분이 좋을 때를 잡는 것이다. 살피는 쪽이 되짚어 보는 주의로 청하는 사람의 묘수를 미리 알아채지만 않는다면 기쁨의 날이 곧 총애의 날이니,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넘쳐흐른다. 남이 거절당하는 것을 본 뒤에는 다가가지 말라. '아니'라고 말하는 두려움이 이미 사라졌다. 슬픔 위에서는 좋은 수가 나오지 않는다. 미리 은혜를 입혀 두는 것은, 상대가 비루하지 않은 한, 틀림없이 돌아오는 환전이다.

236 나중에 상으로 줄 것을 미리 은혜로 베풀라. 큰 정치가들의 솜씨다. 공로보다 앞선 총애는 의리 아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이렇게

앞당긴 총애에는 두 가지 뛰어난 점이 있다. 주는 쪽이 서두른 만큼 받는 쪽은 더 크게 빚진다. 같은 선물이라도 나중에 주면 빚을 갚는 것이고, 먼저 주면 상대를 묶어 두는 것이다. 의무를 뒤바꾸는 교묘한 길이다. 윗사람에게 있어야 할 상 줄 의무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갚을 의무로 넘어간다. 다만 이것은 의리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말이니, 비루한 자에게 명예의 값을 미리 치르면 박차가 아니라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237 윗사람과 비밀을 나누지 말라. 배를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돌을 나누게 된다[2]. 속내를 털어놓는 상대였다가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빵 조각으로 만든 숟가락과 같아서, 다 쓰고 나면 함께 먹힌다. 군주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총애가 아니라 답답한 가슴을 푸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제 추한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고 거울을 깬다. 자기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을 차마 보지 못하고, 못 볼 것을 본 사람은 좋게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너무 크게 빚지게 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빚지게 하더라도 받은 총애보다 베푼 은혜로 그리하라. 무엇보다 우정으로 털어놓는 속내가 위험하다. 제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은 사람은 그의 노예가 되었고, 군주에게 그것은 오래 견딜 수 없는 억지다. 군주는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싶어 하고, 그러려고 무엇이든, 이치까지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238 자기에게 빠진 조각을 알라. 많은 사람이 그 무언가 하나만 모자라지 않았다면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없어 완전한 존재의 정점에 끝내 이르지 못하고 만다. 아주 작은 것만 돌보았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사람들이 눈에 띈다. 어떤 이에게는 진중함이 모자라 큰 자질이 빛을 잃고, 어떤 이에게는 성품의 부드러움이 모자라니, 이는 가까운 사람들이 곧 아쉬워하는 결함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떤 이에게는 실행력이, 어떤 이에게는 자제가 아쉽다. 이 모든 모자람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쉽게 메울 수 있다. 정성을 들이면 습관을 제2의 본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39 지나치게 날카롭지 말라, 분별 있는 편이 더 중요하다. 알맞은 것보다 더 아는 것은 끝을 무디게 하는 일이다. 지나치게 벼린 묘수는 대개 부러지기 때문이다. 자리 잡힌 진리가 더 안전하다. 지성은 있으면 좋지만, 아는 체하는 수다는 아니다. 생각을 지나치게 펼치는 것은 말다툼의 한 갈래다. 필요한 만큼만 생각을 펼치는, 속이 찬 좋은 판단력이 더 낫다.

240 어리석음을 쓸 줄 알라. 가장 큰 현자도 때로는 이 패를 쓴다. 모르는 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앎인 때도 있다. 몰라서는 안 되지만, 모르는 체는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지혜로워 봐야 소용이 적고 미친 자들 앞에서 슬기로워 봐야 마찬가지이니,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쓰는 말로 이야기해야 한다. 어리석음을 꾸미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홑겹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지만 겹으로 된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다. 꾸밈은 여기까지 닿는다.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짐승 가운데 가장 순한 것의 가죽을 쓰는 것이다.

241 농담은 받아 주되 쓰지는 말라. 앞의 것은 일종의 아량이고, 뒤의 것은 시비에 말려드는 일이다. 놀이 자리에서 언짢아하는 사람은 짐승의 기질이 많고, 그보다 더 많이 드러낸다. 농담은 즐겁다. 넉넉히 받아 줄 줄 아는 것은 그릇이 크다는 증거다. 발끈하는 사람은 거듭 놀림받을 빌미를 준다. 농담은 한창 좋을 때 그만두어야 하고,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심각한 일은 늘 농담에서 생겨났다. 이만큼

주의와 솜씨가 필요한 일은 없다.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천성이 어디까지 참아 낼지 알아 두어야 한다.

242 승기를 끝까지 좇으라. 어떤 이들은 시작하는 데 힘을 다 쓰고,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 궁리해 내되 이어 가지 못한다. 천성이 진득하지 못한 탓이다. 아무것도 이어 가지 않으니 칭찬을 받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멈춤으로 끝난다. 또 어떤 이들에게서는 이것이 마음이 조급한 데서 나오는데, 이는 스페인 사람의 흠이다. 참을성이 플랑드르 사람[3]의 장점인 것처럼. 플랑드르 사람은 일을 끝맺고, 스페인 사람은 일을 끝장낸다. 어려움을 이길 때까지는 땀을 흘리지만 이긴 것으로 만족하고, 승리를 끝까지 거두어들일 줄 모르며, 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 해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능에서 오든 경박에서 오든 늘 흠이다. 일이 좋다면 왜 끝내지 않는가? 나쁘다면 왜 시작했는가? 그러니 영민한 사람은 사냥감을 잡으라. 몰이에 힘을 다 쓰고 말아서는 안 된다.

243 비둘기 같기만 하지 말라. 뱀의 간교함과 비둘기의 솔직함을 번갈아 쓰라[4].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믿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잘 맡긴다. 속는 것이 늘 어리석어서는 아니다. 때로는 착해서다. 해를 미리 잘 막는 사람은 두 부류다. 혼이 나 본 사람은 제 손해로 배웠고, 꾀바른 사람은 남의 손해로 배웠다. 꾀가 올가미를 짜는 데 뛰어난 만큼 영민함도 의심하고 경계하는 데 뛰어나야 하고, 남에게 악한 사람이 될 빌미를 줄 만큼 선량하려 해서는 안 된다. 비둘기와 뱀이 섞인 사람이 되라.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로.

244 은혜를 입힐 줄 알라.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는 총애를 남이 받는 총애로 바꾸어 놓는다. 은혜를 받으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믿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어찌나 밝은지, 청하면서 상대를 높이고 제 이익을 남의 명예로 바꾼다. 그들은 일을 아주

교묘하게 꾸며서, 남이 자기에게 줄 때조차 남이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기묘한 정치술로 은혜를 입히는 차례를 뒤집어 놓는다. 적어도 누가 누구에게 총애를 베푸는지 헷갈리게 만든다. 가장 좋은 것을 칭찬 값으로 사고, 무엇을 좋아한다는 내색 하나로 상대를 높이고 기분 좋게 한다. 예절을 볼모로 잡아, 자기가 감사해야 할 것을 남의 빚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들은 은혜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니, 문법가보다 나은 정치가다. 큰 묘수다. 그러나 그 묘수를 알아채는 것이 더 큰 묘수일 것이다. 어리석은 거래를 되물러, 그들에게는 명예를 돌려주고 저마다 제 이익을 거두는 일이다.

245 때로는 남다르게, 범상함을 벗어나 생각하라. 밑천이 뛰어나다는 증거다. 한 번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 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해서다. 아첨에 속아 그 값을 치르지 말고, 아첨을 꾸짖으라. 어떤 이들에게 험담을 듣는 것도 신용으로 삼으라. 좋은 사람이면 누구든 헐뜯는 자들에게 듣는다면 더욱 그렇다. 제 일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면 언짢게 여기라. 좋지 않다는 표시다. 완전한 것은 소수의 몫이다.

246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 변명하지 말라. 청하더라도 지나치면 일종의 죄가 된다. 일이 생기기도 전에 변명하는 것은 제 죄를 털어놓는 것이고, 건강할 때 피를 뽑는 것은 병에게, 그리고 악의에게 어서 오라고 눈짓을 보내는 것이다. 앞질러 하는 변명은 잠자던 의심을 깨운다. 슬기로운 사람은 남의 의심을 알아챈 내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욕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그럴 때는 올곧은 처신으로 그 의심이 틀렸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247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살라. 다른 이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좋은 한가함이 분주함보다 낫다. 우리 것이라고는 시간밖에 없다. 틈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살겠는가? 귀한 삶을 천한 손일에 써 버리는 것이나

고상한 일에 지나치게 써 버리는 것이나 똑같이 불행하다. 일을 잔뜩 짊어지지도, 시샘을 짊어지지도 말아야 한다. 삶을 짓밟고 마음을 질식시키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앎에까지 넓히지만, 알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248 마지막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라. 마지막에 들은 말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주책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들의 생각과 바람은 밀랍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사람이 도장을 찍고 앞의 것은 모두 지운다. 이런 사람은 얻었다 해도 얻은 것이 아니다. 얻을 때처럼 쉽게 잃기 때문이다. 저마다 그들을 제 빛깔로 물들인다. 속을 터놓을 상대로는 나쁘고 평생 어린아이라서, 판단과 감정이 이리저리 바뀌며 늘 흔들리고, 의지도 판단력도 늘 절름거리며 이쪽저쪽으로 기운다.

249 끝내야 할 데서 삶을 시작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처음에 쉬고 수고는 끝으로 미룬다. 본질이 먼저이고, 자리가 남으면 그다음에 곁가지다. 또 어떤 이들은 싸우기도 전에 개선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가장 하찮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신용과 쓸모를 주는 공부는 삶이 끝날 무렵으로 미룬다. 어떤 이는 운을 일구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우쭐해진다. 알고 또 살아갈 수 있으려면 차례가 본질이다.

250 언제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가? 악의로 말을 걸어올 때다. 어떤 이들과는 모든 것을 반대로 받아야 한다. '예'는 '아니'이고, '아니'는 '예'다. 어떤 것을 헐뜯는 것은 그것을 높이 친다는 표시로 여겨야 한다.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은 남에게는 그것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칭찬이라고 모두 좋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려고 나쁜 사람까지 칭찬한다. 아무도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좋지 않을 것이다.

251 신의 수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수단을 구하고, 사람의 수단이 없는 것처럼 신의 수단을 구해야 한다. 큰 스승의 규칙이다[5]. 덧붙일

풀이가 없다.

252 온전히 제 것도, 온전히 남의 것도 되지 말라, 그것은 범속한 폭정이다. 자기를 온통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면 곧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양보할 줄 모르고, 제 편안함을 한 치도 잃으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은혜를 입히는 일이 드물고, 제 운을 믿다가 흔히 기댄 지팡이가 꺾인다. 때로는 남의 것이 되어야 남도 제 것이 된다. 모두를 위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모두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자리를 짐과 함께 내놓으라"고, 노파가 하드리아누스에게 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6].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온통 남의 것이다. 어리석음은 늘 지나침으로 치닫는데 여기서는 불행하기까지 해서, 제 날도 제 시간 한 점도 없을 만큼 남에게 내맡겨진 나머지, 어떤 이는 "모두의 사람"이라고 불렸다. 지성에서도 그렇다. 남을 위해서는 다 알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모른다. 주의 깊은 사람은 알아 두라. 아무도 그 사람 자신을 찾지 않고, 그에게 걸린 이익이나 그를 거쳐 얻을 이익을 찾는다.

253 생각을 너무 쉽게 풀어 놓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듣는 것은 높이 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우러른다. 높이 쳐지려면 값이 들어야 한다. 알아듣지 못할 때 기림을 받을 것이다. 상대가 자기를 높이 헤아리게 하려면 늘 그가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분별 있게 보여야 하되, 지나치게 하지 말고 알맞은 정도로 해야 한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엇에서나 차분한 머리가 큰 힘을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 앞에서는 높이 솟구쳐야 한다. 알아듣느라 바쁘게 만들어 흠잡을 틈을 주지 말라.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까닭을 대지 못할 것을 칭찬한다. 왜인가? 숨은 것은 무엇이든 신비라서 우러르고, 남이 기리는 소리를 들었으니 기린다.

254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으니, 작다고 얕보지 말라. 불행은 행복처럼 사슬로 엮여 다닌다. 행운도 불운도 대개 이미 많은 곳으로 간다. 모두가 불운한 사람을 피하고 운 좋은 사람에게 붙기 때문이다. 비둘기조차 그 순박함에도 가장 흰 탑으로 모여든다[7]. 불운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된다. 제가 저를 저버리고, 생각도 위안도 떠난다. 잠든 불운은 깨우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미끄러지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 뒤로 어디서 멈출지 모를 치명적인 추락이 이어지니, 어떤 행복도 온전히 채워진 적이 없듯 어떤 불행도 온전히 끝난 적이 없다. 하늘에서 오는 불행에는 참을성, 땅에서 오는 불행에는 분별.

255 선을 베풀 줄 알라, 조금씩, 여러 번.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큰 빚을 지워서는 결코 안 된다. 많이 주는 사람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감사를 바닥까지 짜내서는 안 된다. 갚을 길이 없다고 보면 상대는 관계를 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잃는 데는 지나치게 은혜를 입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없으니, 그들은 갚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물러나고 빚진 사람에서 원수로 돌아선다. 우상은 자기를 깎은 조각가를 눈앞에 두고 싶어 하지 않고, 빚진 사람은 은인을 눈앞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는 일의 큰 묘수는, 적게 들고 크게 바라게 되는 것을 주어 더 높이 쳐지게 하는 데 있다.

256 무례한 자, 고집 센 자, 잘난 체하는 자, 그리고 온갖 어리석은 자에 맞서 늘 대비하고 다니라. 그런 자는 많이 마주치니, 슬기는 그들과 부딪치지 않는 데 있다. 날마다 주의라는 거울 앞에서 결심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어리석음이 거는 수를 이길 것이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가면 제 명망을 범속한 뜻밖의 일에 내맡기지 않는다. 슬기로 대비한 사내는 주책에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교제는 신용을 잃게 하는 암초가 가득해서 그 뱃길이 험하니, 꾀에 대해서는 오디세우스에게 물어 암초를 비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여기서는

솜씨 좋게 미끄러져 빠지는 것이 큰 힘을 쓴다. 무엇보다 아량으로 넘기라. 시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257 명망은 늘 상처를 입고 나오니, 결코 결별까지 가지 말라.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지만,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좋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다. 독수리는 쇠똥구리와 사이가 틀어진 날부터는 유피테르의 품 안에서도 편히 둥지를 틀지 못한다[8]. 숨은 적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드러난 적의 발톱을 빌려 불을 돋운다. 틀어진 벗에게서 가장 나쁜 원수가 나온다. 그들은 제 애정의 잘못을 남의 흠에 떠넘긴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바라는 대로 느끼며, 모두가 처음에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끝에는 참지 못했다고, 그리고 언제나 슬기가 없었다고 탓한다. 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변명할 여지가 있게 하라. 노여움의 불길보다 총애의 미지근함으로. 여기에 "아름다운 퇴각"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258 불행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찾으라. 결코 혼자여서는 안 되고, 위험할 때는 더욱 그렇다. 미움을 혼자 다 짊어지게 된다. 어떤 이들은 모든 감독권을 손에 쥐려다 모든 험담을 손에 쥔다. 이렇게 하면 감싸 줄 사람이나 불행을 함께 짊어질 사람이 생긴다. 운도 범속함도 둘에게는 그리 쉽게 덤비지 못하니, 그래서 영민한 의사는 치료를 그르쳤어도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관을 함께 멜 사람을 찾는 일만은 그르치지 않는다. 무게도 무거운 마음도 나뉜다. 불운은 혼자 지면 두 배가 되어 견딜 수 없게 된다.

259 모욕을 미리 막고, 모욕을 은혜로 바꾸라. 모욕은 갚기보다 피하는 것이 더 영민하다. 맞수가 되었을 사람을 속을 터놓는 벗으로 삼고, 제 명망을 노리고 날아오던 화살을 오히려 그 명망을 지키는 방패로 바꾸어 놓는 것은 큰 솜씨다. 은혜를 입힐 줄 아는 것은 큰 힘이

있다. 감사로 상대의 시간을 채우면 모욕할 시간을 빼앗는다. 괴로움이 될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사는 법을 아는 일이다. 적의마저 믿음의 바탕으로 삼으라.

260 누구의 온전한 것도 되지 말고, 누구도 온전히 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핏줄도 우정도 가장 단단한 의무도 그것으로는 모자라다. 가슴을 내주는 것과 의지를 내주는 것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결합에도 예외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진정의 법도가 다치지는 않는다. 벗은 늘 비밀 하나쯤은 자기만 간직하고, 아들조차 아버지에게 무언가는 숨긴다. 어떤 사람에게 감추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그 반대도 있으니, 이렇게 사귐의 경계를 가려 가며 모든 것을 내주면서 모든 것을 거두게 된다.

261 어리석음을 이어 가지 말라. 어떤 이들은 잘못을 고집으로 삼는다. 그르치기 시작했으니 계속하는 것이 지조라고 여긴다. 안의 법정에서는 제 잘못을 고발하고 바깥 법정에서는 변호하니, 어리석음을 시작했을 때 생각이 짧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어 가면서는 어리석은 자로 굳어진다. 생각 없이 한 약속도, 잘못 내린 결심도 지킬 의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처음의 무례를 이어 가고 제 얕음을 밀고 나간다. 한결같이 주책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262 잊을 줄 알라,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 행운이다. 잊어야 할 것일수록 가장 잘 기억난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지니 비열할 뿐 아니라, 와서는 안 될 때 찾아오니 어리석기도 해서, 괴로움을 줄 일에는 끈질기고 기쁨을 주어야 할 일에는 무심하다. 때로는 불행을 고치는 약이 그것을 잊는 데 있는데, 그 약을 잊는다. 그러니 기억을 이렇게 편한 버릇에 길들여야 한다. 기억 하나로 행복도 지옥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족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그들은 순진한 처지에서 단순한 행복을 누린다.

263 즐거움을 주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은 제 것으로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 것일 때보다 남의 것일 때 더 즐긴다. 좋은 것은 첫날만 주인의 몫이고, 나머지 날은 남의 몫이다. 남의 것은 두 배로 즐긴다. 손해 볼 위험이 없고, 새로움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갖지 못할 때 더 맛이 난다. 남의 물조차 넥타르인 척한다. 물건을 가지면 즐거움이 줄 뿐 아니라 빌려주어도 빌려주지 않아도 성가심이 늘고, 남을 위해 간수해 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며,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얻게 되는 원수가 더 많다.

264 방심하는 날을 두지 말라. 운수는 장난치기를 좋아해서, 방심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갖 우연을 다 짓밟고 달려올 것이다. 재치와 슬기와 용기는 늘 시험받을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름다움까지도 그렇다. 마음을 놓는 날이 신용을 잃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심이 가장 필요할 때 조심은 늘 없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망하게 하는 발걸이다. 남의 주의도 흔히 계략을 써서, 엄밀히 값을 매기려고 방심한 틈에 완전함을 붙잡는다. 뽐내는 날은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 꾀는 그날을 그냥 넘겨주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날이 오면 바로 그날을 골라 사람의 값어치를 시험해 본다.

265 아랫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길 줄 알라. 제때 맡긴 어려운 일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다. 물에 빠지면 헤엄치는 법을 배우듯.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용기를, 앎까지도 찾아냈으니, 기회가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움츠림 속에 묻혀 버렸을 것이다. 궁지는 명망이 걸린 승부처이고, 고귀한 사람은 명예가 걸린 처지에 놓이면 천 사람 몫을 한다. 가톨릭 여왕 이사벨[9]은 다른 모든 교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맡기는 이 교훈도 탁월하게 알았고, 이 정치적 총애 덕에 대장군(Gran Capitán)[10]은 이름을 떨쳤으며 다른 많은 사람도 영원한 명성을 얻었다. 여왕은 이 묘수로 큰 인물들을 만들었다.

266 너무 착해서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결코 화내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 무감각한 사람은 사람다운 데가 적다. 그것은 늘 무던해서가 아니라 그릇이 모자라서 나온다. 제때 드러내는 노여움은 사람다운 사람의 행동이다. 새들은 허수아비를 곧 비웃는다. 신 것과 단것을 번갈아 내는 것은 좋은 안목의 증거다. 단것만 찾는 것은 아이와 어리석은 자다. 무감각이라는 이 뜻에서, 너무 착해서 제 몸을 망치는 것은 큰 해악이다.

267 비단 같은 말, 부드러운 성품과 함께. 화살은 몸을 꿰뚫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꿰뚫는다. 반죽이 좋으면 입에서도 좋은 냄새가 난다. 바람을 팔 줄 아는 것, 삶의 큰 묘수다. 대부분은 말로 값을 치르고, 말만으로도 갚을 길 없는 빚을 갚을 수 있다. 바람으로 바람을 거래하고, 높은 이의 입김은 사람에게 큰 기운을 불어넣는다. 말을 설탕에 졸일 수 있게 늘 입에 설탕을 가득 물고 다녀야 한다. 그런 말은 원수에게도 달다.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온화한 것이다.

268 슬기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끝에 하는 일을 처음에 하라. 둘은 같은 일을 한다. 다른 것은 때뿐이다. 앞사람은 제때, 뒷사람은 때를 놓쳐서. 처음에 지성을 거꾸로 신은 사람은 나머지 모든 일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니, 머리 위에 얹어야 할 것을 발밑에 끌고 다니고 오른손을 왼손으로 삼아, 하는 일마다 서툰 왼손잡이가 된다. 깨닫는 데 좋은 때는 하나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꺼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억지로 한다.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은 늦든 이르든 해야 할 일을 곧 알아보고, 즐겁게, 명망을 얻으며 해낸다.

269 새로운 동안에는 높이 쳐지니, 제 새로움을 쓰라. 새로움은 다채롭기에 누구에게나 기쁨을 준다. 안목이 새로워지니, 갓 나온 평범함이 익숙해진 극치보다 더 높이 쳐진다. 탁월함도 닳아서 낡게 된다. 새로움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음을 알아 두라. 나흘이면 존경을

잃는다. 그러니 존중의 첫 열매를 쓸 줄 알고, 기쁨이 달아나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으라. 새것의 온기가 지나가면 열정은 식고, 새것이어서 반가웠던 것이 익숙해서 성가신 것으로 바뀌니, 모든 것에 제 차례가 있었고 그 차례는 지나갔음을 믿으라.

270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혼자 나무라지 말라. 그토록 많은 사람을 흡족하게 한다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즐길 수는 있다. 유별남은 늘 밉살스럽고 틀렸을 때는 우스꽝스러우니, 대상보다 제 그릇된 헤아림이 먼저 신용을 잃고, 결국 나쁜 안목과 함께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찾아낼 줄 모르면 제 얕음을 감추고, 뭉뚱그려 나무라지 말라. 나쁜 안목은 대개 무지에서 나온다. 모두가 하는 말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되려 한다.

271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늘 가장 안전한 것을 붙들라. 어떤 직업에서든 그렇다. 섬세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바탕이 튼튼하다는 소리는 들을 것이다. 아는 사람은 모험을 걸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적으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제 발로 벼랑에 뛰어드는 일이다. 늘 오른쪽 길을 지키라. 다져진 것은 저버리지 않는다. 아는 것이 적으면 큰길로. 앎에서든 무지에서든 어떤 경우에나 유별남보다 안전함이 더 슬기롭다.

272 물건을 예절의 값에 팔아 더 크게 빚지게 하라. 잇속을 차리는 사람이 청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너그러운 사람이 주는 것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예절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우는 것이고, 아량은 가장 큰 빚이다. 선량한 사람에게는 거저 받은 것보다 비싼 것이 없다. 두 번, 두 값에 파는 셈이다. 물건의 값과 예절의 값으로. 물론 비루한 자에게 아량은 알아듣지 못할 아랍 말이다. 좋은 대접이 쓰는 말을 모르기 때문이다.

273 상대하는 사람의 기질을 꿰뚫어 보기, 그 속셈을 알기 위해. 원인을 잘 알면 결과도 안다. 먼저 원인에서, 다음에는 그 동기에서. 우울한 사람은 늘 불행을 점치고 험담꾼은 늘 허물을 점치니, 그들에게는 가장 나쁜 것만 떠오르고, 눈앞의 좋은 것은 알아보지 못한 채 있을 법한 나쁜 일을 알린다.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사물의 실상과 다른 말로 말한다. 그에게서 말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격정이다. 저마다 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그리고 모두 진실과는 아주 멀리. 얼굴을 풀어 읽고, 겉에 드러난 표시에서 영혼을 한 자씩 읽어 낼 줄 알라. 늘 웃는 사람은 모자라고, 결코 웃지 않는 사람은 거짓되다고 알아보라. 캐묻는 사람을 조심하라. 입이 가볍거나 흠을 잡으려는 사람이다. 생김새가 흉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을 별로 기대하지 말 일이다. 이들은 흔히 자연에게 앙갚음하니, 자연이 그들을 별로 높여 주지 않았듯 그들도 자연을 별로 높이지 않는다. 어리석음은 흔히 아름다움만큼 크다.

274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라, 그것은 정치적으로 예의 바른 마법이다. 그 멋진 갈고리는 이익보다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데 쓰라. 아니면 둘 다에. 공로도 호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모자라다. 갈채를 가져다주는 것은 호감이니, 다스리는 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다. 남의 마음에 덥석 드는 것은 운수지만 꾸밈으로 거들 수 있다. 타고난 바탕이 큰 곳에 꾸밈이 더 잘 앉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뜻한 애정이 생겨나, 마침내 모든 이의 호의를 얻는다.

275 스스럼없되 품위를 잃지 않게. 늘 점잔 빼고 뻣뻣하게 굴지 말라. 그러지 않는 것도 아량의 한 갈래다. 모두의 애정을 얻으려면 체통을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 가끔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로 가도 좋지만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겨진 사람은 뒤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쾌하게 논 하루에 잃는

것이 내내 진중하게 얻은 것보다 많다. 그러나 늘 예외로 남아서도 안 된다. 유별난 것은 남을 나무라는 일이다. 새침을 떠는 것은 더욱 안 된다. 그것은 여자들에게 맡겨 둘 일이다. 신앙의 새침마저 우스꽝스럽다. 남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남자답게 보이는 것이다. 여자는 사내다움을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

276 자연과 기술로 천성을 새롭게 할 줄 알라. 일곱 해마다 성품이 바뀐다고들 하니, 그 바뀜이 안목을 낮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쪽이 되게 하라. 첫 일곱 해에 이성이 들어온다. 그 뒤로는 다섯 해마다 새로운 완전함이 하나씩 들어오게 하라.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지켜보아 그것을 거들고, 남에게서도 나아짐을 기대할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분이 바뀌거나 직분이 바뀌면서 몸가짐이 달라졌고, 때로는 그 바뀜이 얼마나 컸는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한다. 스무 살에는 공작이고, 서른에는 사자, 마흔에는 낙타, 쉰에는 뱀, 예순에는 개, 일흔에는 원숭이, 그리고 여든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277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자질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 자질마다 제 차례가 있으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날마다 개선하는 날은 아니다. 멋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서는 작은 것도 크게 빛나고 큰 것은 놀랄 만큼 빛난다. 드러내는 솜씨가 탁월함과 만나면 경이로 통한다. 뽐내기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스페인 사람이 그 으뜸이다. 빛은 지어진 모든 것을 곧바로 빛나게 했다. 드러내 보이는 것은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메우며 모든 것에 두 번째 존재를 준다. 실질이 받쳐 줄 때는 더욱 그렇다. 완전함을 주는 하늘은 드러냄도 함께 마련해 주니, 어느 하나만 있으면 억지스러울 것이다. 드러내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주 뛰어난 것도 형편에 달려 있고, 늘 차례가 오는 것은 아니다. 제때를 놓친 드러냄은 잘못되었다. 드러냄만큼 꾸민 티를 내서는 안 되는 돋보임은 없다. 드러냄은 늘 이 볼썽사나움 때문에

망하니, 허영의 바로 곁에 있고 허영은 업신여김의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 범속해지지 않도록 아주 절제해야 하고, 슬기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지나친 드러냄이 꽤 신용을 잃는다. 드러냄은 때로 말 없는 웅변에, 완전함을 무심한 듯 보여 주는 데 더 있다.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갈채받는 과시이니, 바로 그 감춤이 호기심의 가장 여린 곳을 찌르기 때문이다. 완전함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카드 패를 조금씩 밀어 엿보이듯[11] 조금씩 그려 보이며 늘 한 걸음씩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드러냄의 큰 솜씨다. 하나의 돋보임이 더 큰 돋보임을 약속하게 하고, 첫 갈채가 나머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되게 하라.

278 무엇에서든 눈에 띄는 것을 피하라. 눈에 띄면 돋보이는 자질마저 흠이 된다. 이는 유별남에서 나오는데, 유별남은 늘 비난을 받았고 유별난 사람은 혼자 남는다. 아름다운 것도 너무 튀면 신용을 잃는다. 남의 눈길을 끌면 거슬리게 되고, 체통 없는 유별남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악덕으로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서, 그토록 추한 명성을 얻으려고 비루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아는 것에서도 지나치면 아는 체하는 수다로 떨어진다.

279 반박을 받아도 털어놓지 말라. 반박이 꾀에서 나오는지 범속함에서 나오는지 가려야 한다. 늘 고집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꾸밈이다. 그러니 고집에는 맞서 얽혀 들지 말고, 꾸밈에는 넘어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염탐꾼을 조심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조심은 없고, 남의 마음을 여는 곁쇠에 맞서는 데는 삼가는 마음이라는 열쇠를 안쪽에 꽂아 두는 것보다 나은 맞수가 없다.

280 신의 있는 사람. 바른 처신은 끝났고 의리는 거짓말이 되어 떠돌며 좋은 보답은 드물어서, 가장 좋은 봉사에 가장 나쁜 대가를 주는 것이 이제는 온 세상의 관습이 되었다. 민족 전체가 남을 나쁘게 대하는 데 기운 곳도 있다. 어떤 민족에게서는 늘 배신을, 어떤 민족에게서는

변덕을, 또 어떤 민족에게서는 속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 남의 나쁜 보답은 본받는 데가 아니라 조심하는 데 쓰라. 위험은 비루한 처신을 보다가 올곧음이 돌쩌귀에서 빠져 버리는 데 있다. 그러나 신의 있는 사내는 남들이 어떻든 제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

281 아는 사람들의 호의. 뛰어난 사내 한 사람의 미지근한 '예'가 범속한 무리의 갈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이 쳐지니, 겨를 먹고 트림하는 소리로는 아무 기운도 나지 않는다. 현자들은 지성으로 말하니, 그들의 칭찬은 죽지 않는 만족을 준다. 판단력이 뛰어난 안티고노스[12]는 제 명성의 극장 전체를 제논 한 사람으로 줄였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 학원 전체라고 불렀다[13]. 어떤 이들은 범속한 검불로라도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 군주들조차 글 쓰는 사람이 필요하니, 못생긴 여자가 화가의 붓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그들의 펜을 두려워해야 한다.

282 존경을 얻으려면, 또는 존중을 얻으려면 자리를 비우는 일을 이용하라. 곁에 있으면 명성이 줄고, 떠나 있으면 명성이 는다. 없을 때는 사자로 여겨지던 사람이, 나타나니 산이 낳은 우스운 새끼였다[14]. 자질도 자주 부대끼면 빛이 바래니, 마음속에 든 풍부한 알맹이보다 겉의 껍질이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상상은 눈보다 앞서 달리고, 대개 귀로 들어온 착각은 눈으로 나간다. 제 평판의 한가운데를 지키는 사람은 명망도 지킨다. 불사조조차 물러나 숨어서 체통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하여 귀하게 여겨진다.

283 슬기롭게 지어내는 사람. 넘치는 재치를 보여 준다. 그러나 광기 한 알 섞이지 않은 재치가 어디 있겠는가[15]? 지어내는 것은 재치 있는 사람의 일이고, 잘 고르는 것은 분별 있는 사람의 일이다. 지어내는 힘은 또한 은총이요 더 드문 것이니, 잘 고르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해냈지만 잘 지어내는 일은 몇 사람만, 그것도 뛰어남에서나 시간에서나 맨 앞선

사람들만 해냈다. 새로움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잘 들어맞으면 좋은 것을 두 배로 돋보이게 한다. 판단력의 일에서는 역설이 위험하고, 재치의 일에서는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들어맞으면 어느 쪽이든 갈채받는다.

284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 그러면 무안당하지 않는다. 남이 높이 쳐 주기를 바라거든 스스로를 높이 치라. 자기를 헤프게 쓰기보다 아끼라. 기다려질 때 가면 반겨 맞을 것이다. 부르지 않으면 오지 말고, 보내지 않으면 가지 말라. 제멋대로 나서는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미움을 혼자 다 뒤집어쓰고, 잘되어도 감사를 받지 못한다. 끼어드는 사람은 업신여김의 과녁이고, 뻔뻔하게 끼어드는 바로 그 때문에 창피를 당하며 쫓겨난다.

285 남의 불운에 휩쓸려 망하지 말라. 진창에 빠진 사람을 알아보고, 그가 서로의 불행을 위안으로 삼으려고 손짓해 부를 것임을 알아 두라. 그들은 불운을 함께 짊어질 사람을 찾으니, 잘나갈 때는 등을 돌리던 자들이 이제는 손을 내민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지러 나설 때는 자기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써야 한다.

286 노예가, 그것도 모두의 노예가 될 테니, 누구에게든 온전히 빚지지 말고 모두에게 빚지지도 말라. 어떤 이들은 남보다 행운을 타고났으니, 앞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려고, 뒤의 사람들은 받으려고 태어났다. 자유는 선물보다 귀하다. 선물을 받으면 자유를 잃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사람에게 기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기대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 다스리는 자리의 편익은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제가 걸려드는 빚을 총애로 여기지 말아야 하니, 대개는 남의 꾀가 그를 미리 묶어 두려고 부지런히 꾸며 놓은 것이다.

287 격정에 휩싸여서는 결코 행하지 말라, 모든 것을 그르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닐 때는 제 손으로 하지 말라. 격정은 늘 이성을 쫓아낸다. 그럴 때는 분별 있는 제삼자를 대신 세우라. 격정이 없다면 그는 분별 있을 것이다. 노름하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늘 더 많이 보니, 격정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흥분했음을 알아차리면 슬기가 퇴각 나팔을 불게 할 일이다. 피가 끝까지 끓어오르지 않게 해야 하니, 그러면 모든 일을 피투성이로 해치우고, 잠깐 사이에 오랫동안 제 수치와 남의 험담거리가 될 것을 만들어 낸다.

288 때에 맞추어 살라. 다스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형편에 맞아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원하라. 제때와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덕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사는 데 두루뭉술한 규칙을 내세우지 말고, 바라는 일에 꽉 짜인 법을 들이대지도 말아야 하니, 오늘 업신여긴 그 물을 내일 마시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어찌나 엉뚱하게 주책없는지, 일이 잘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편이 저마다 제 고집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그 반대로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자는 분별의 길잡이 별이 때에 맞추어 처신하는 데 있음을 안다.

289 사람에게 가장 큰 흠은 자기가 한낱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날,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기기를 그만둔다. 경박함은 명망과 가장 크게 어긋난다. 삼가는 사내가 사람 이상으로 여겨지듯, 경박한 사람은 사람 이하로 여겨진다. 이보다 더 체통을 깎는 악덕은 없으니, 경박함은 무게와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경박한 사람은 알맹이가 있을 수 없고, 나이 때문에라도 슬기로워야 할 늙은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흠은 아주 많은 사람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난히 체통을 잃게 하는 것이 덜하지는 않다.

290 귀히 여기는 마음과 감정을 함께 얻는 것은 행복이니, 존경을 지키려면 너무 사랑받지 말라. 사랑은 미움보다 대담하고 애정과

우러름은 잘 어울리지 않으니, 너무 두려움을 사서도 너무 사랑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사랑은 허물없음을 끌어들이고, 허물없음이 들어오는 만큼 존중은 나간다. 감정으로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받으라.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들의 사랑이다.

291 떠볼 줄 알라. 판단력 있는 사람의 주의가 삼가는 사람의 조심과 겨루게 하라. 남의 판단력을 재려면 큰 판단력이 필요하다. 약초와 돌의 성질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섬세한 일 가운데 하나다. 쇠붙이는 소리로 알고, 사람은 말로 안다. 말은 올곧음을 보여 주지만, 행동은 훨씬 더 잘 보여 준다. 여기에는 남다른 살핌, 깊은 관찰, 섬세한 눈여김, 판단력 있는 가늠이 필요하다.

292 직분의 의무가 타고난 바탕을 이기게 하지 말고, 바탕이 직분의 의무를 이기게 하라.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넉넉한 밑천은 직분을 맡을 때마다 더 넓어지고 더 드러난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옥죄이고, 결국 의무와 명망에 눌려 부서지고 만다. 위대한 아우구스투스는 군주로서보다 사람으로서 더 크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여기에는 높은 기개가 힘을 쓰고, 자기를 슬기롭게 믿는 것도 도움이 된다.

293 무르익음. 무르익음은 겉으로도 빛나지만 몸에 밴 행실에서 더 빛난다. 물질의 무게는 금을 귀하게 하고, 도덕의 무게는 사람을 귀하게 한다. 무르익음은 자질의 체통이니, 우러름을 낳는다. 사람의 몸가짐은 영혼의 앞면이다. 그것은 경박함이 우기듯 굼뜬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주 차분한 위엄이다. 무르익은 사람은 말은 격언으로 하고, 행동은 들어맞게 한다. 무르익음은 아주 다 된 사람을 전제한다. 사람은 무르익은 만큼 사람답기 때문이다. 아이이기를 그칠 때 무게와 위엄이 시작된다.

294 제 생각을 누그러뜨리라. 누구나 제게 이로운 대로 헤아리고, 제 생각에는 이유가 넘쳐 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소견은 감정에 자리를 내준다. 두 사람이 정반대로 맞서고 저마다 이치가 제 편에 있다고 자부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만, 충실한 이치는 지금껏 한 번도 두 얼굴을 지을 줄 몰랐다. 이렇게 미묘한 자리에서 현자는 되짚어 생각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이 남의 처신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을 것이다. 때로는 상대편에 서 보고, 반대쪽에서 그 사람의 동기를 살피라. 그러면 그를 그토록 눈멀게 나무라지도, 자기를 그토록 눈멀게 옳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295 공을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세우는 사람. 할 일이 가장 없는 자들이 가장 바쁜 척한다. 무엇이든 비밀로 만드는데 그럴수록 더 싱겁다. 갈채를 먹고 사는 카멜레온[16]이 되어 모두에게 웃음을 실컷 안겨 준다. 허영은 언제나 성가셨지만 여기서는 웃음거리가 되니, 명예에 꾄 개미 떼가 공을 구걸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가장 큰 탁월함일수록 덜 내세우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맡기라. 공은 남에게 내주되 팔지는 말아야 하고, 금으로 된 펜을 삯을 주고 빌려서 진흙을 쓰게 해서도 안 되니, 슬기로운 사람이 보면 구역질이 날 일이다. 영웅처럼 보이기보다 영웅다워지기를 바라라.

296 자질을, 그것도 존엄한 자질을 갖춘 사내. 으뜸 자질이 으뜸가는 사람을 만든다. 그런 자질 하나는 평범한 자질 여럿과 맞먹는다. 어떤 이는 날마다 쓰는 세간까지 제 모든 것이 크기를 좋아했다. 큰 사람은 제 마음의 자질이 더욱 크도록 얼마나 더 애써야 하겠는가! 신에게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러니 영웅에게서도 모든 것이 크고 존엄해야 하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까지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웅대한 존엄을 옷처럼 두르고 있어야 한다.

297 늘 남이 보는 것처럼 행하라. 남이 자기를 보고 있거나 보게 되리라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이야말로 잘 살피는 사내다. 그는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한 일은 밖으로 터져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안다. 혼자 있을 때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처럼 행하니, 모든 것이 알려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문을 듣고 증인이 될 사람들을 그는 지금 벌써 증인처럼 바라본다. 온 세상이 자기를 보아 주기를 바랐던 사람은 이웃집에서 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17].

298 세 가지가 경이로운 사람을 만들며, 이것은 더없는 너그러움이 내리는 가장 큰 선물이다. 샘솟는 재치, 깊은 판단력, 빼어나게 흥겨운 안목. 잘 떠올리는 것은 큰 이점이지만, 생각을 잘 펼치는 것은 더 큰 이점이니, 좋은 지성의 몫이다. 재치가 등뼈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날카롭기보다 고되게 애쓰는 꼴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하는 것은 이성을 지닌 존재의 열매다. 스무 살에는 의지가, 서른에는 재치가, 마흔에는 판단력이 다스린다. 스라소니의 눈처럼 스스로 빛을 내뿜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잘 생각을 펼치는 지성이 있고, 때를 맞추는 지성도 있어서 늘 가장 알맞은 것과 마주친다.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그것도 좋은 것이 떠오른다. 더없이 복된 풍요다. 그러나 좋은 안목은 삶 전체에 맛을 낸다.

299 배고픈 채로 남겨 두라. 넥타르라도 입술에만 적시고 거두어야 한다. 욕망은 존중의 잣대다. 몸의 목마름조차 돋우되 다 풀어 주지 않는 것이 좋은 안목의 수다. 좋은 것은 적으면 두 배로 좋다. 두 번째에는 값이 크게 떨어지니, 즐거움으로 물리도록 배를 채워 주는 것은 위험해서 더없이 영원한 탁월함에도 업신여김을 부른다. 기쁘게 하는 유일한 규칙. 입맛이 돋은 채, 남은 허기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것. 애태워야 한다면 즐김에 물려서가 아니라 욕망을 참지 못해서 애가 타게 하라. 애태운 끝에 얻은 행복은 두 배로 달다.

300 한마디로, 성자가 되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한 셈이다. 덕은 모든 완전함을 잇는 사슬이요 모든 행복의 중심이다. 덕이 사람을 분별 있고, 주의 깊고, 영민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자제할 줄 알고, 올곧고, 행복하고, 갈채받고, 참되고, 모든 면에서 영웅인 사람으로 만든다. 세 가지 에스(s)가 사람을 복되게 한다. 거룩함(santo), 건강(sano), 지혜(sabio). 덕은 작은 세계인 사람의 태양이요, 선한 양심이 그 해가 뜨는 하늘이다. 덕은 너무도 아름다워 신과 사람의 호의를 함께 얻는다. 사랑스러운 것은 덕밖에 없고 미운 것은 악덕밖에 없다. 덕은 진심의 일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농담이다. 사람의 그릇과 위대함은 운이 아니라 덕으로 재야 한다. 덕은 홀로 제 자신에게 충분하다. 덕은 사람이 살아서는 사랑받게 하고, 죽어서는 기억되게 한다.

---

1. 알렉산드로스는 고발을 들을 때 한쪽 귀를 막아 고발당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2. 스페인어에서 「누구와 배를 나누다(partir peras)」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한다. 그라시안은 배(peras)를 돌(piedras)로 바꾸어 소리를 맞세운다.

3. 원문은 「벨가스(belgas)」. 당시 스페인 왕실이 다스리던 네덜란드 지방, 곧 플랑드르 사람들을 가리킨다.

4.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장 16절)를 받은 말. 원문은 뱀의 「간교함(calidez)」과 비둘기의 「솔직함(candidez)」을 소리로 맞세운다.

5. 흔히 이냐시오 데 로욜라의 규칙으로 전한다.

6. 카시우스 디오의 『로마사』에 전하는 일화. 길에서 한 여인이 청을 올리자 하드리아누스가 틈이 없다고 물리쳤고, 여인이 "그러면 황제 노릇을 그만두라"고 외치자 황제가 돌아서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

7. 오비디우스의 『비가』 1권 9편에 "비둘기는 흰 지붕으로 모여들고, 더러운 탑에는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8. 이솝 우화 「독수리와 쇠똥구리」. 독수리에게 앙심을 품은 쇠똥구리가 그 알을 거듭 굴려 떨어뜨렸다. 독수리가 유피테르의 품에 알을 맡기자 쇠똥구리는 신의 무릎에 똥 덩이를 떨어뜨렸고, 신이 그것을 털려고 일어서는 바람에 알이 떨어져 깨졌다.

9.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 1세(1451~1504). 남편인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와 함께 교황에게서 「가톨릭 군주」라는 칭호를 받았다.

10.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1453~1515)의 별칭.

11. 카드놀이에서 겹쳐 쥔 패를 조금씩 밀어 내며 끝자락만 엿보는 것을 「브루훌라」라 했다. 원문은 이 말로 조금씩 드러내는 솜씨를 그린다.

12. 마케도니아 왕 안티고노스 2세 고나타스(기원전 320년경~기원전 239년). 스토아학파를 세운 키티온의 제논을 존경해, 아테네에 오면 그의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13. 고대의 전기에 따르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학원의 「지성」이라 부르고, 그가 자리에 없으면 "지성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14. 호라티우스 『시학』의 "산들이 산고를 겪더니 우스운 생쥐 한 마리가 태어난다"를 받은 말.

15. 세네카는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광기가 섞이지 않은 위대한 재능은 없었다"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인용한다.

16. 옛사람들은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고 산다고 믿었다.

17. 로마의 호민관 마르쿠스 리비우스 드루수스를 두고 하는 말로 보인다. 그는 집 안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지어 주겠다는 건축가에게, 무엇을 하든 모두가 볼 수 있게 지어 달라고 했다(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 『로마사』 2권 14장).

판권면

세상을 보는 지혜

원제 · Oráculo manual y arte de prudencia (손에 들고 보는 신탁, 그리고 분별의 기술)

지은이 · 발타사르 그라시안 (Baltasar Gracián y Morales, 1601~1658)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647년, 우에스카(Huesca), 후안 노게스(Juan Nogués) 인쇄. 지은이 이름은 동생의 이름을 빌린 「로렌소 그라시안」이었다.

저본 · 위키문헌(es.wikisource.org)에 공개된 1647년판 본문(철자만 현대식으로 고친 판). 스페인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조지프 제이컵스(Joseph Jacobs)의 영어 번역 《The Art of Worldly Wisdom》(London: Macmillan, 1892)은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스페인어 약 31,500단어 · 「독자에게」 와 잠언 300개 · 원문 301문단 · 옮긴이 주 83개

저작권 · 원저작물은 1647년에 나왔고, 지은이는 1658년에 죽었다. 대한민국(저작권법, 저작자 사후 70년)과 미국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난 퍼블릭도메인이다. 저본 본문은 17세기 원문의 철자만 고친 것이라 새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

한국어 번역 · 이 한국어 번역은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6